

2018

정책연구 2018-15

전라북도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진 조경옥 · 이주연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15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조경옥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주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아람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서재복 •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양귀의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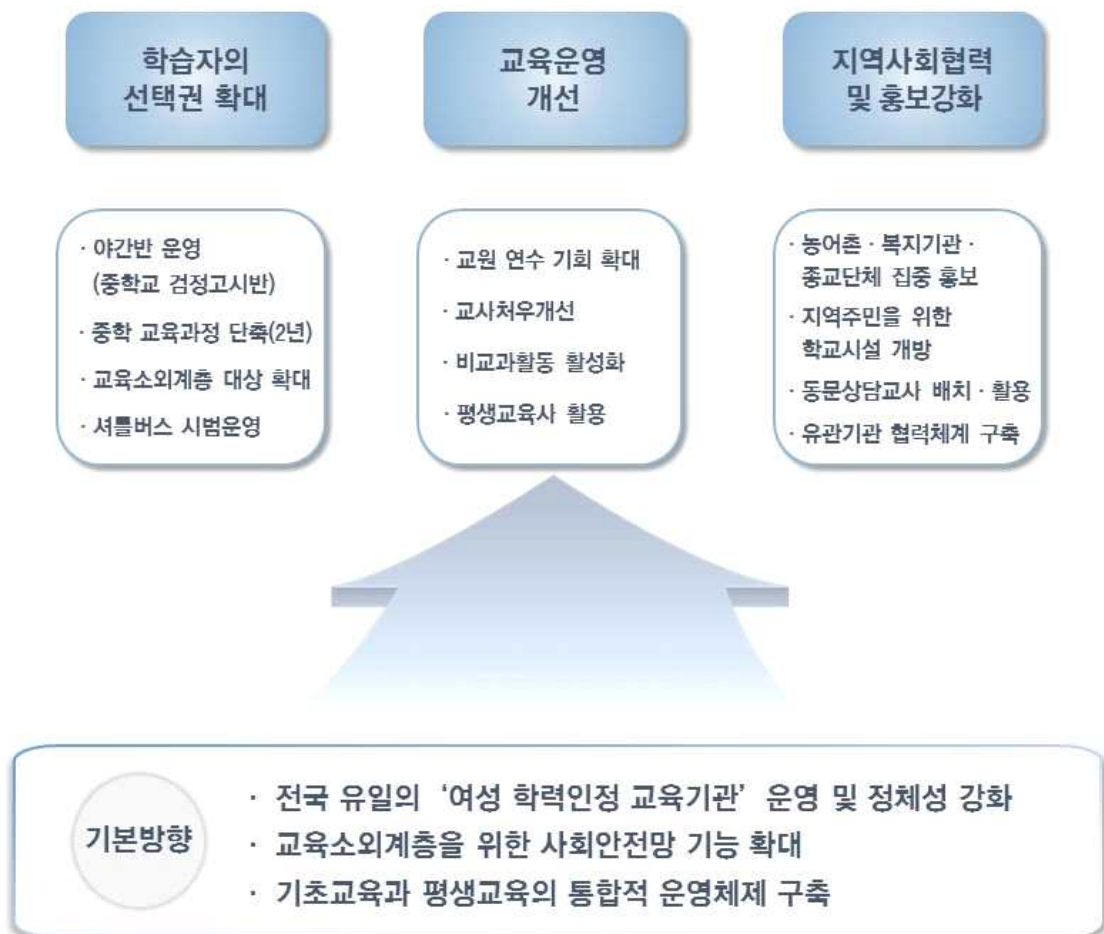
연구관리 코드 : 18JU1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요약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 개교 당시 중고 입학정원이 각각 50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40명, 2015에는 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입학정원의 감소추세는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성인학습자의 노령화 등 교육환경의 여건과 변화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과 입학생의 80%가 전주권역에서 모집되는 등 학습자 선택권 및 기회의 제약과 같은 학교운영 내부의 문제점도 학생 수 감소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 감소에 따른 향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를 예측전망하고자 함. 또한 성인학습자 감소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학생자원을 창출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설립 정체성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북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고졸미만의 학력자 비율은 감소추세 있으며 2030년까지의 학력비를 예측하면 남성은 13.0%(총 117,055명) 여성 25.1%(총 227,807명)으로 예측됨. 이 가운데 여성 고졸미만 학력자 수는 2015년 이후 매 5년마다 1만5천명~1만 8천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감소 추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보면, 1970년 전체 507,664명에서 2015년 322,404명으로 184,660명(36.3%) 감소할 동안 20세 이상의 저학력 여성은 239,816명에서 187,211명으로 불과 52,605명(21.9%)만 감소해 남성(49.4%)에 비해 여성의 감소가 매우 더딤
- 이상의 예측결과는 전국평균보다 고졸미만의 학력자 비율은 전북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이 두 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인정교육시설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감소는 남성에 비해 더딘 측면이 있고 향후 교육수요 측면에서는 여성의 잠재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자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녀공학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과 관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교육수요 예측 및 전망을 통해 2030년까지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
 풀은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운영을 모색해야하
 며 발전전략으로는 1) 잠재적 학생수요자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
 정에 대한 개편과 교육소외계층의 범주 확대, 학생자원을 전주권역 이외로 확대
 하는 등의 학습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안정적 수요
 라고 할 수 있는 재학생, 졸업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요구도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체제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전략과 3)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및 지지를 위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학교운영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전략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및 구성	5
나. 연구방법	7
제2장 성인여성 미진학 교육현황 및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실태	9
1. 전북 성인학습자 교육현황 및 성인여성 진학수요	11
가. 성인여성학습자의 특성	11
나. 성인학습자 교육현황	16
다. 전라북도 미진학 성인여성 진학수요 예측	27
2. 학력인정교육기관 현황 및 여건 변화	34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34
나. 학력인정교육기관 교육환경 및 여건변화	42
3.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분석	51
가. 전북지역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	51
나. 타 지역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	58
4. 소결	66
제3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69
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기본 현황	71
가. 설립목적과 학교운영 경과	71
나. 시설규모 및 예산	73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실태분석	76
가. 학생현황 및 변화추이	76
나. 교사현황	82
다. 교육과정	85

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특성 및 현안과제	91
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특성	91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현안과제	95
4. 소결	99

제4장 교육수요 및 학교발전방안조사 분석결과 101

1. 재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103
가. 조사개요	103
나. 분석 결과	105
2. 미진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134
가. 조사개요	134
나. 분석 결과	136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173
가.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173
나. 심층면접조사(FGI) 분석결과	177
4. 소결	197
가. 재학생 대상 조사결과	197
나. 미진학생 대상 조사결과	199
다. FGI 분석결과	201

제5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 203

1.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05
가. 학력인정교육시설 운영사례 분석	205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208
다. 교육수요도 및 욕구 실태조사 분석결과	210
라. 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GI 분석결과	215
2. 교육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218
가. 교육수요 전망 및 대응전략	218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	222

표목차 | Contents

〈표 2-1〉 전국 및 전북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17
〈표 2-2〉 전국 및 전북 성별 진학률	19
〈표 2-3〉 전북 성별·연령별 학력 현황(2015)	21
〈표 2-4〉 전북 행정구역별 20세 이상 인구 학력 현황(2015)	24
〈표 2-5〉 지역별 초등학력 및 중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여성 성인학습자(수요자) ..	25
〈표 2-6〉 전국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28
〈표 2-7〉 전북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30
〈표 2-8〉 전라북도 14개 시군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32
〈표 2-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35
〈표 2-10〉 전라북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37
〈표 2-11〉 전라북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39
〈표 2-12〉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성별추이(2016-2018)	40
〈표 2-13〉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연령대(2017)	40
〈표 2-14〉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역(2018)	41
〈표 2-15〉 장래인구 추계(중위 추계 시나리오)	42
〈표 2-16〉 교육단계별 취학률 : 1970년 - 2017년	44
〈표 2-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비교	46
〈표 2-1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수 및 학생 수(2000-2017)	49
〈표 2-19〉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추이(2010-2017)	50
〈표 2-20〉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일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52
〈표 2-21〉 성별, 연령별, 과정별 평화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55
〈표 2-22〉 학년별, 과정별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59
〈표 2-23〉 성별, 과정별 진영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61
〈표 2-24〉 연령별 진영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61
〈표 2-25〉 성별·학년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63
〈표 2-26〉 연령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64

〈표 3-1〉 주요시설 규모	73
〈표 3-2〉 2018년도 예산현황	75
〈표 3-3〉 지원자 및 입학생 현황(1998-2018)	76
〈표 3-4〉 연령별 재학생 현황(2014-2018)	78
〈표 3-5〉 연령별 재학생 현황(2004)	78
〈표 3-6〉 지역별 재학생 현황(2014-2018)	79
〈표 3-7〉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80
〈표 3-8〉 교직원 현황	82
〈표 3-9〉 연도별 교사모집과 선발 현황	83
〈표 3-10〉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현황	84
〈표 3-11〉 중학교 학년별 과목별 수업 시수(2018)	85
〈표 3-12〉 고등학교 학년별 과목별 수업 시수(2018)	87
〈표 3-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내용	89
〈표 3-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	91
〈표 3-1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성	93
〈표 4-1〉 재학생용 세부 설문조사 항목	104
〈표 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인적 특성	106
〈표 4-3〉 재학생의 과거 교육 미수혜 및 중단 이유	107
〈표 4-4〉 재학생의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108
〈표 4-5〉 재학생의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108
〈표 4-6〉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109
〈표 4-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이유	111
〈표 4-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목적별 충족 정도	112
〈표 4-9〉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	112
〈표 4-10〉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	113
〈표 4-11〉 입학과정에서의 어려움 유무	114
〈표 4-12〉 입학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유	114
〈표 4-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만족도 평가	116

〈표 4-14〉 응답자 특성별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1순위)	117
〈표 4-1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통학방법	118
〈표 4-1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정책지원 요구(1순위)	119
〈표 4-17〉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의견	120
〈표 4-18〉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남녀공학 전환 의견	120
〈표 4-19〉 재학생의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22
〈표 4-20〉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22
〈표 4-21〉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반대 이유	124
〈표 4-2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의견	126
〈표 4-23〉 응답자 특성별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의견	127
〈표 4-24〉 재학생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견	128
〈표 4-25〉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28
〈표 4-26〉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130
〈표 4-2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경험	132
〈표 4-2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방안	133
〈표 4-29〉 미진학생용 세부 설문조사 항목	135
〈표 4-30〉 미진학생의 인적 특성	137
〈표 4-31〉 과거 교육 미수혜 및 중단 이유	138
〈표 4-32〉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139
〈표 4-33〉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139
〈표 4-34〉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140
〈표 4-3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 여부	142
〈표 4-36〉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 여부	142
〈표 4-37〉 초등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진학 의사	144
〈표 4-38〉 중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 진학 의사	144
〈표 4-39〉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이유	145
〈표 4-40〉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이유	145
〈표 4-41〉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지 않은 이유	148
〈표 4-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 시 예상되는 문제점	150

〈표 4-4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시 예상되는 어려움의 집단 간 차이	151
〈표 4-44〉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	153
〈표 4-45〉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	156
〈표 4-46〉 남녀공학 전환 의견	159
〈표 4-47〉 응답자 특성별 남녀공학 전환 의견	160
〈표 4-48〉 남녀공학 전환시 입학 의사	162
〈표 4-49〉 응답자 특성별 전환시 입학 의사	163
〈표 4-50〉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64
〈표 4-51〉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65
〈표 4-52〉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반대 이유	166
〈표 4-53〉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견	167
〈표 4-54〉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168
〈표 4-55〉 응답자 특성별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170
〈표 4-5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방안	172
〈표 4-5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FGI 제1그룹: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 ...	174
〈표 4-5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FGI 제2그룹: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외부집단 ...	175
〈표 4-59〉 FGI 기초질문	176
〈표 4-60〉 FGI 분석결과 요약	20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내용 구성 및 흐름도	6
〈그림 2-1〉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	13
〈그림 2-2〉 전국 및 전북 평균 교육년수 및 50세 이상 평균 교육년수	18
〈그림 2-3〉 전북 여성의 연령별 학력 분포	22
〈그림 2-4〉 전북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 인구 분포	23
〈그림 2-5〉 지역별 초등학력 및 중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여성 성인학습자(수요자) ·	26
〈그림 2-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분포 및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인구 현황 ·	38
〈그림 2-7〉 연령별 인구구성비(1965 - 2065)	43
〈그림 2-8〉 20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1970 - 2015)	45
〈그림 3-1〉 주요시설 현황	74
〈그림 3-2〉 입학생 현황	77
〈그림 3-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위축 과정	83
〈그림 4-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경로	110
〈그림 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목적 충족 정도	111
〈그림 4-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만족도 평가	115
〈그림 4-4〉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117
〈그림 4-5〉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유	121
〈그림 4-6〉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찬성 이유	121
〈그림 4-7〉 재학생의 사이버교육 병행 반대 이유	123
〈그림 4-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의견	126
〈그림 4-9〉 재학생의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129
〈그림 4-10〉 재학생의 1년 2학기제(3년제) 찬성 이유	131
〈그림 4-11〉 재학생의 1년 3학기제(2년제) 찬성 이유	131

〈그림 4-12〉 미진학생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경로	143
〈그림 4-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지 않은 이유	147
〈그림 4-14〉 도립 여성중고등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	153
〈그림 4-15〉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유	161
〈그림 4-16〉 남녀공학 전환 찬성 이유	161
〈그림 4-17〉 사이버교육 병행 반대 이유	166
〈그림 4-18〉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169
〈그림 4-19〉 1년 2학기제(3년제) 찬성 이유	171
〈그림 4-20〉 1년 3학기제(2년제) 찬성 이유	171
〈그림 5-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 기본방향, 전략과 추진과제	224
〈그림 5-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232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20대 이상의 성인인구 13.1%가 기초교육 소외집단이지만 초등교육 100% 달성이라는 통계에 묻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재정투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학력 미비로 생활상에서 여러 폐해를 담당하고 있는 연령은 현재 50대~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517만 여명의 기초교육 소외집단 중 3/4이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 고령자로 밝혀지고 있다(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이와 같이 기초교육 소외집단의 대다수가 여성인 이유는 과거 가부장적 문화로 인하여 남성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초교육의 소외집단인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인가(98.1.17)와 개교(98.3.9)를 통해 교육시기를 놓친 전라북도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 개교 당시 중·고 입학정원이 각각 50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40명, 2015에는 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입학정원의 감소추세는 저학력 성인여성학습자의 노령화와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 등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가 진행되고 저소득 성인 학습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학생자원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가난과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교육기회에서 차별과 배제, 소외를 당해 온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자체가 설립한 전국 유일의 공립학교로서의 학교설립 목적과 배경,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단순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성과 당

위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성인학습자의 노령화 등 교육환경의 여건과 변화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생의 80%가 전주시권역에서 모집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선택권 및 기회의 제약과 같은 학교운영 내부의 문제점도 학생 수 감소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자원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생모집 방법이나 학교운영 한계에서 벗어나 잠재적 학생수요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 감소에 따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제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를 예측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성인학습자의 노령화 등으로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 감소현상이 일반적인 추세라면 향후 학생자원을 창출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립 정체성에 근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및 구성

이상의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의 전체 구성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향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잠재 교육수요자를 예측, 전망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20세 이상의 고졸미만 학력자에 해당하는 성인학습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2030년까지의 교육수요자를 예측,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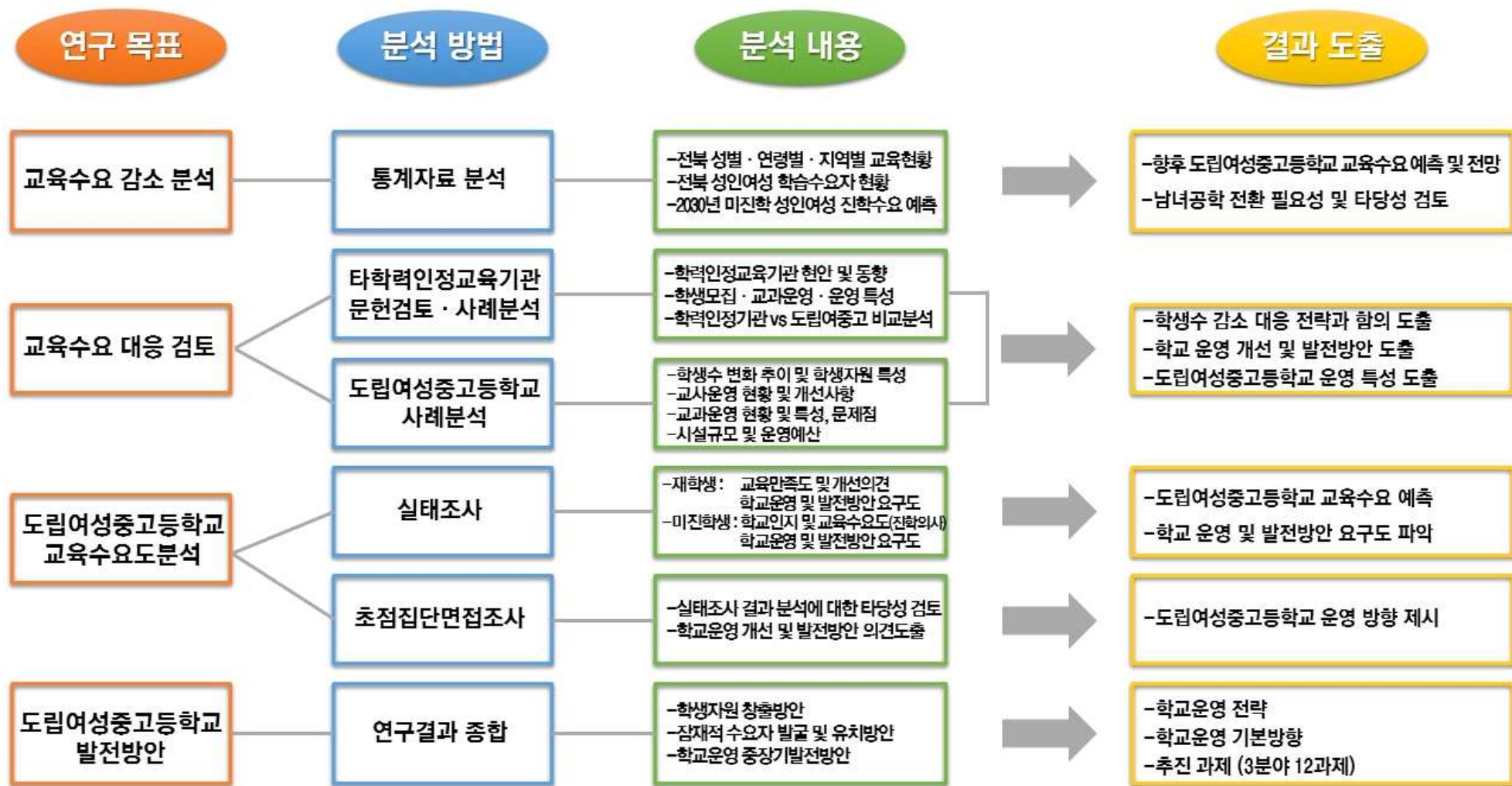
둘째, 학생 수 감소 현상은 비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당면하고 있는 현안임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안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학교운영 전략, 정책적 함의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운영실태 및 현황분석을 위해 학생, 교사, 교과 운영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운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육수요와 요구도, 발전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잠재적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고졸미만의 성인학습자(미진학생)를 대상으로 교육 중단 이유, 학교인지도와 교육수요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요자 발굴을 위한 전략과 방안 및 학교발전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생자원 창출방안, 잠재적 학생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방안 등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과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관련 연구진행 절차와 흐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내용 구성 및 흐름도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검토를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및 최근 동향, 학교운영의 문제점 및 현안과제, (여성)성인 학습자의 학습동기, 특성 등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관련 조례,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 교사현황, 시설 및 재정규모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 통계자료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통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현황 및 성인여성 학습수요자 등 현황분석을 하였다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한 2030년까지의 전북의 20세 미만의 고졸미만의 학력자를 성별, 지역별로 예측,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183명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내용 : 교육중단과 그로인한 경험과 구체적 내용,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사유 및 입학과정에서의 어려움, 학교생활 만족도(교사, 교육과정, 시설, 학교생활, 교육성과),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학교운영 개선 및 요구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및 요구도, 학교홍보방법 등

- 미진학 잠재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현재 각 시군 주민센터 및 사설교육기관의 문해교육수강자, 방송통신중학교 성인학생 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잠재수요자로 판단되는 고졸미만의 성인학습자 212명
- 조사내용 : 교육중단과 그로인한 경;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진학의사여부 및 이유, 학교진학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그 정도, 미진학사유, 학교운영 요구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학교홍보방법 등

- 초점집단면접조사

-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재학생(7명), 졸업생(7명), 교사(4명), 전문가(7명)로 구성하고 이들을 1그룹(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 2그룹(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외부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조사
- 조사내용 : 제1그룹을 대상으로는 학교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어려움, 개선사항,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제2그룹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결과, 타 학교운영사례 및 시사점, 제1그룹 FGI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방향,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자원 창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간담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연구범위와 방법, 학교운영사례 선정, 설문조사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연구관련 전반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다.

- 정책간담회

- 향후 교육수요자 예측에 따른 학생수급방향 제시, 수요 감소시의 대안, 교육과정 개선 및 발전방안, 홍보방법의 적절성 등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등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추진

2

장

성인여성 미진학 교육현황 및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실태

Jeonbuk Institute

-
1. 전북 성인학습자 교육현황 및 성인여성 진학수요
 2. 학력인정교육기관 현황 및 여건 변화
 3.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분석
 4. 소결

제 2 장 성인여성 미진학 교육현황 및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실태

1. 전북 성인학습자 교육현황 및 성인여성 진학수요

가. 성인여성학습자의 특성

1) 일반 성인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동기

가) 성인학습자의 특성

성인학습자는 일반적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학습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권미정(2007)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청소년학습자들이 의무성에 기초하여 학습에 참여하는 반면 성인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발성에 의해 학습에 참여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는 청소년학습자보다 삶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경험이 많으며,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확립된 정체성이 청소년학습자보다 뚜렷하다. 이러한 특성은 성인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환경과 학습 형태에 뚜렷한 선호를 가지게 하며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은 학습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특성이다. 청소년학습자는 학습의 목표, 설계, 평가 등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성인학습자는 독립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 학습의 목표, 설계,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하며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의 경우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최행원(2014)은 성인학습자가 과거에 교육을 중단한 주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가난으로 인한 것이다.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60대 이상의 성인들은 1970년대와 그 이전에 학령기를 지나왔으며 전쟁이 끝난 후 회복되지 못한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배움을 포기하였다.

성인학습자가 과거에 교육을 중단하였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부모와의 사별이다. 양친 모두와 사별하여 친척집을 전전하며 떠돌아 배움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양친 중 한 분이라도 사별할 시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책임이나 가사 양육 등 가정적 책임을 지기 위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성인학습자가 교육을 중단한 주요 원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인학습자의 학업중단은 대부분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가난 혹은 부모와의 사별 등 가정으로 인한 문제가 학업을 중단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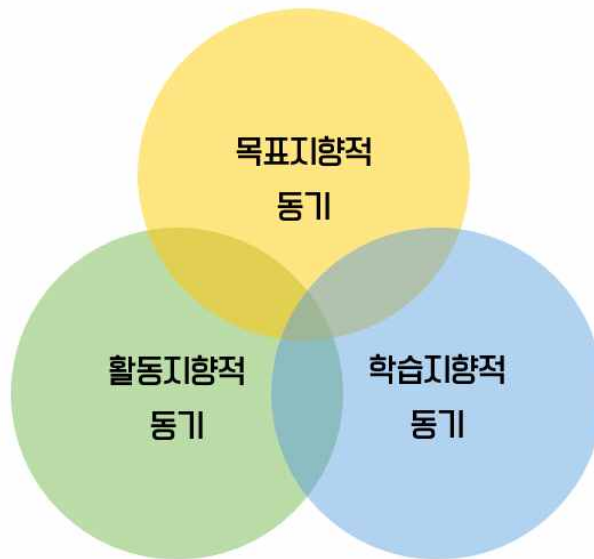
나)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는 1961년 Houle의 연구를 통하여 유형화 된 바 있다. Houle(1961)은 성인들의 학습동기를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목표지향성’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동기이며 목표지향적 학습자들은 자격증이나 졸업장의 획득,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 및 개인 능력의 향상 등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다.

‘활동지향성’은 ‘목표지향성’과 반대되는 학습동기로서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보다는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교육에 참가하는 학습동기이다. 활동지향적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소속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고독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

마지막 ‘학습지향성’은 특정한 목적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교육에 참가하는 학습동기이다. 학습지향적 참가자들은 타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며 스스로를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김한별(2010)은 위의 세 가지 학습동기가 학습자의 단일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연령, 경험, 상황 등에 따라 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개인의 학습동기가 특정한 동기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 : 김한별, 『평생교육론』, 2010, p.122.

〈그림 2-1〉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

최행원(2014)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학습동기는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들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력 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 마음속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을 풀기 위하여 늦은 나이에 배움을 결정한 것이다.

또 다른 동기는 학력으로 인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학력 취득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한 성인학습자의 가장 큰 입학동기이며 이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낮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자신의 학력을 속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자신의 학력이 삶을 움아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공유되고 있다.

2) 성인여성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동기

가) 성인여성학습자의 특성

백종주(2002)는 성인여성학습자가 일반적인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기보다는 대체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일을,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분화되고 가부장적인 성별구분은 가정 내에서 아들과 딸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딸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임하(2003) 역시 여성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남성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적 인습이라고 보았는데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도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으로 한정지어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시골에서는 여성이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한글조차 배우지 못하였다. 도시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는 가정은 거의 없었다.

최행원(2014)의 연구에서도 성인여성학습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주요 원인은 딸이라는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안이 크게 어렵지 않아도 여자는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지고 시집가서도 잘 살지 못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집안의 남성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다.

백종주(2002)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성인여성학습자의 또 다른 특성은 이들이 배움을 갈망하는 만큼 학창시절에 대한 경험의 결핍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을 취득하고 지식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같은 반 학생들과 교류하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여성학습자들은 당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성인여성학습자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나)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동기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더불어 성인여성학습자들만이 가지는 공통적인 학습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현모가 되기 위해서, 또는 현모가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이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만 잘 하면 된다는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교육은 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주(2002)는 저학력의 성인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큰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학습에 눈을 뜨는 시기부터 저학력의 성인 여성들은 답답함과 자기비하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은 저학력의 성인 여성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그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로 결심하거나, 그때의 한을 풀기 위하여 학습을 결심한다.

성인여성학습자들이 교육을 받을 것을 결심하는 또 다른 동기는 가족 특히 남편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백종주(2002)의 연구에서 저학력 성인 여성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와 무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험은 배우지 못했기에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남편에게 받는 차별과 멸시, 폭력 등에 맞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성인 여성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동기는 현모가 되기 위해 또는 현모가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남편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 주로 가정 내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이는 성인남성학습자의 동기가 주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 등 사회 활동에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나. 성인학습자 교육현황

1) 일반여성 교육현황

가)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는 6세 이상 인구 중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어 평균 교육년수로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전국 평균 교육년수는 2000년 10.6년, 2005년 11.2년, 2010년 11.6년, 2015년 12.1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북 또한 같은 기간 9.3년, 9.9년, 10.4년, 11.1년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대비 2015년 평균 교육년수 증가율은 전국 14.2%, 전북 19.4%로 전북의 평균 교육년수 증가율이 전국보다 5.2%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남녀 간 평균 교육년수 차이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전국은 2000년 남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보다 1.7년 높게 나타났고 이후 2005년 1.6년, 2010년 1.5년, 2015년 1.4년으로 매년 0.1년씩 감소하고 있다. 전북은 같은 기간 2.2년, 2.2년, 2.1년, 1.9년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를 살펴보면 전국과 전북 모두 2000년 이후 25~29세 연령층의 평균 교육년수가 가장 높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9세부터 50세 이상까지 각 연령층별 평균 교육년수의 감소폭 또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은 2000년 평균 1.22년, 2005년 평균 1.16년, 2010년 1.04년, 2015년 0.92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북은 같은 기간 1.46년, 1.44년, 1.32년, 1.14년으로 감소하였다.

〈표 2-1〉 전국 및 전북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단위 : 년)

구분			평균	6~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	45~49	50세 이상
전국	2000	계	10.6	0.0	5.0	11.5	12.8	13.3	13.1	12.6	11.6	10.7	7.2
		여	9.8	0.0	5.1	11.6	13.1	13.3	12.9	12.1	10.9	9.8	5.5
		남	11.5	0.0	5.0	11.4	12.3	13.3	13.4	13.1	12.3	11.5	9.2
	2005	계	11.2	0.0	5.3	11.6	13.3	14.0	13.7	13.4	12.8	11.8	8.2
		여	10.5	0.0	5.3	11.7	13.6	14.0	13.6	13.1	12.2	11.1	6.7
		남	12.1	0.0	5.3	11.6	12.8	14.0	13.9	13.7	13.3	12.5	10.0
	2010	계	11.6	0.0	7.0	11.5	13.6	14.3	14.2	13.8	13.4	12.6	9.1
		여	10.9	0.0	7.0	11.5	13.9	14.4	14.2	13.6	13.0	12.1	7.7
		남	12.4	0.0	7.0	11.5	13.0	14.2	14.3	14.0	13.7	13.2	10.6
	2015	계	12.1	0.0	6.5	11.7	13.5	14.7	14.6	14.4	13.9	13.4	10.1
		여	11.4	0.0	6.5	11.7	14.0	14.8	14.6	14.3	13.7	13.1	8.9
		남	12.8	0.0	6.6	11.7	12.8	14.6	14.6	14.5	14.1	13.7	11.5
전북	2000	계	9.3	0.0	5.2	11.3	12.8	13.1	12.9	12.2	11.0	9.8	5.8
		여	8.3	0.0	5.2	11.3	13.1	13.1	12.6	11.6	10.2	8.9	4.2
		남	10.5	0.0	5.1	11.2	12.4	13.2	13.2	12.8	11.8	10.8	7.9
	2005	계	9.9	0.0	5.3	11.4	13.3	13.9	13.5	13.2	12.4	11.1	6.7
		여	8.9	0.0	5.5	11.4	13.6	13.9	13.3	12.8	11.8	10.3	5.1
		남	11.1	0.0	5.2	11.4	12.8	13.9	13.6	13.5	12.9	11.9	8.7
	2010	계	10.4	0.0	7.3	11.3	13.6	14.3	14.0	13.5	13.2	12.3	7.7
		여	9.4	0.0	7.3	11.3	14.0	14.3	13.9	13.4	12.8	11.7	6.2
		남	11.5	0.0	7.2	11.3	13.0	14.2	14.1	13.7	13.5	12.9	9.5
	2015	계	11.1	0.0	7.5	11.6	13.5	14.6	14.4	14.1	13.7	13.2	8.9
		여	10.2	0.0	7.5	11.5	14.0	14.7	14.4	14.0	13.5	12.9	7.5
		남	12.1	0.0	7.5	11.6	12.8	14.5	14.4	14.2	13.8	13.4	10.6

주 : 6세 이상 인구조 재학생·미상 제외.

초등종퇴 3년, 초졸 6년, 중학종퇴 7.5년, 중졸 9년, 고교종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종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종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종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종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각각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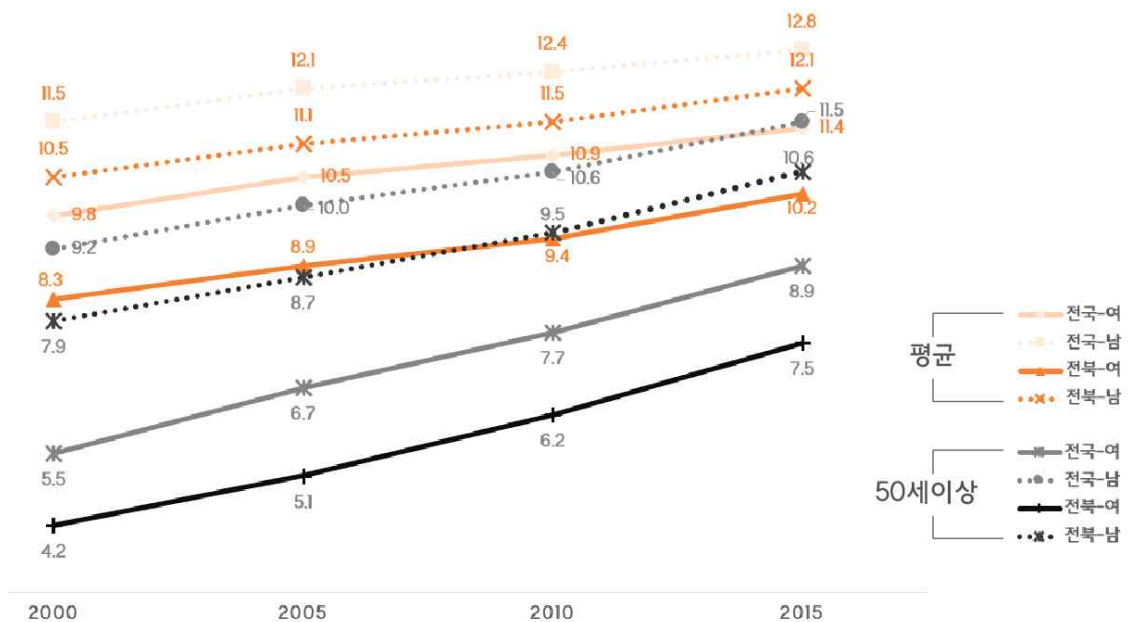
대학수로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각년도

전국 및 전북의 평균 교육년수 및 5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교육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전국 및 전북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평균 교육년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 이상 전북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2000년 4.2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78.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 전북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2015년 전국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8.9년)와 비교하여 1.4년 적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전북 남성(10.6년)과는 3.1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 기회의 확대로 남녀 간 격차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시기를 놓쳐버린 여성은 여전히 전라북도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년)



주 : 6세 이상 인구로 재학생·미상 제외.
 초등중퇴 3년, 초졸 6년, 중학중퇴 7.5년, 중졸 9년, 고교중퇴 10.5년, 고졸 12년, 전문대중퇴 13년, 전문대졸 14년, 대학중퇴 14년, 대학졸 16년, 석사중퇴 17년, 석사졸 18년, 박사중퇴 19년, 박사졸 20년으로 각각 계산.
 대학수료 및 석사, 박사 수료는 졸업으로 포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각년도

〈그림 2-2〉 전국 및 전북 평균 교육년수 및 50세 이상 평균 교육년수

나) 진학률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 비율을 의미한다. 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5년 99.90%에서 2000년 99.98%로 증가하여 100%에 가까운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 또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3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약 100%의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보다는 다소 낮으나 전국 및 전북 모두 2017년 전체 진학률이 99.73%, 99.72%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의 진학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로의 진학률과 비교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에서는 전국 및 전북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전북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국은 70.4%, 전북은 75.9%의 진학률을 보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진학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 전국 및 전북 성별 진학률

(단위 : 년)

구분		초등학교→중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과정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전국	2017	99.98	99.98	99.98	99.73	99.74	99.72	68.87	72.72	65.34
	2016	99.97	99.97	99.97	99.74	99.76	99.73	69.78	73.54	66.29
	2015	99.98	99.98	99.97	99.75	99.78	99.72	70.78	74.63	67.29
	2014	99.98	99.98	99.98	99.72	99.73	99.70	70.91	74.59	67.60
	2013	99.98	99.97	99.98	99.71	99.75	99.68	70.73	74.50	67.43
	2012	99.98	99.98	99.98	99.70	99.74	99.67	71.29	74.31	68.64
	2011	99.98	99.98	99.98	99.68	99.71	99.66			
	2010	99.98	99.98	99.98	99.69	99.73	99.66			
	2005	99.98	99.98	99.98	99.74	99.77	99.72			
	2000	99.96	99.95	99.96	99.57	99.60	99.54			
	1995	99.90	99.90	99.90	98.49	98.42	98.55			

구분		초등학교→중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과정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전 북	2017	100.00	100.00	100.00	99.72	99.71	99.74	74.78	80.28	69.76
	2016	99.97	99.97	99.98	99.76	99.80	99.72	75.63	81.37	70.45
	2015	99.97	99.96	99.97	99.75	99.76	99.74	75.88	80.67	71.44
	2014	99.98	99.99	99.96	99.59	99.66	99.52	75.62	80.06	71.55
	2013	99.88	99.81	99.94	99.60	99.72	99.49	76.88	81.29	72.87
	2012	99.99	99.99	99.98	99.54	99.53	99.55	76.70	79.75	73.92
	2011	99.99	99.99	99.98	99.49	99.57	99.42			
	2010	100.00	100.00	100.00	99.24	99.24	99.24			
	2005	100.00	100.00	100.00	99.72	99.79	99.66			
	2000	99.92	99.90	99.94	98.59	98.55	98.62			
	1995	99.92	99.93	99.92	97.23	96.82	97.62			

주 : 진학률=(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연도 졸업자)×100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
 (2005년부터 국외진학자가 포함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 전라북도 성인여성 교육현황

가)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학력 분포

2015년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6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초졸미만 143,275명으로 전체의 16.7%, 초졸이상~중졸미만은 143,842명으로 16.7%, 중졸이상~고졸미만은 108,272명으로 12.6%, 고졸이상은 464,445명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각각 78,294명(9.2%), 100,783명(11.8%), 105,371명(12.4%), 567,147명(66.6%)로 여성보다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여성 중 초졸미만 학력 인구는 남성보다 7.5% 높고, 중졸미만 4.9%, 고졸미만 0.2%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졸이상 학력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12.6% 높게 나타나 고졸미만 학력인구보다 성별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 인구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층의 고졸미만 학력 인구 비율이 80% 대이며, 75세 이상 연령은 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85세 이상 연령층에서 80%대 비율이 나타나 연령대별 학력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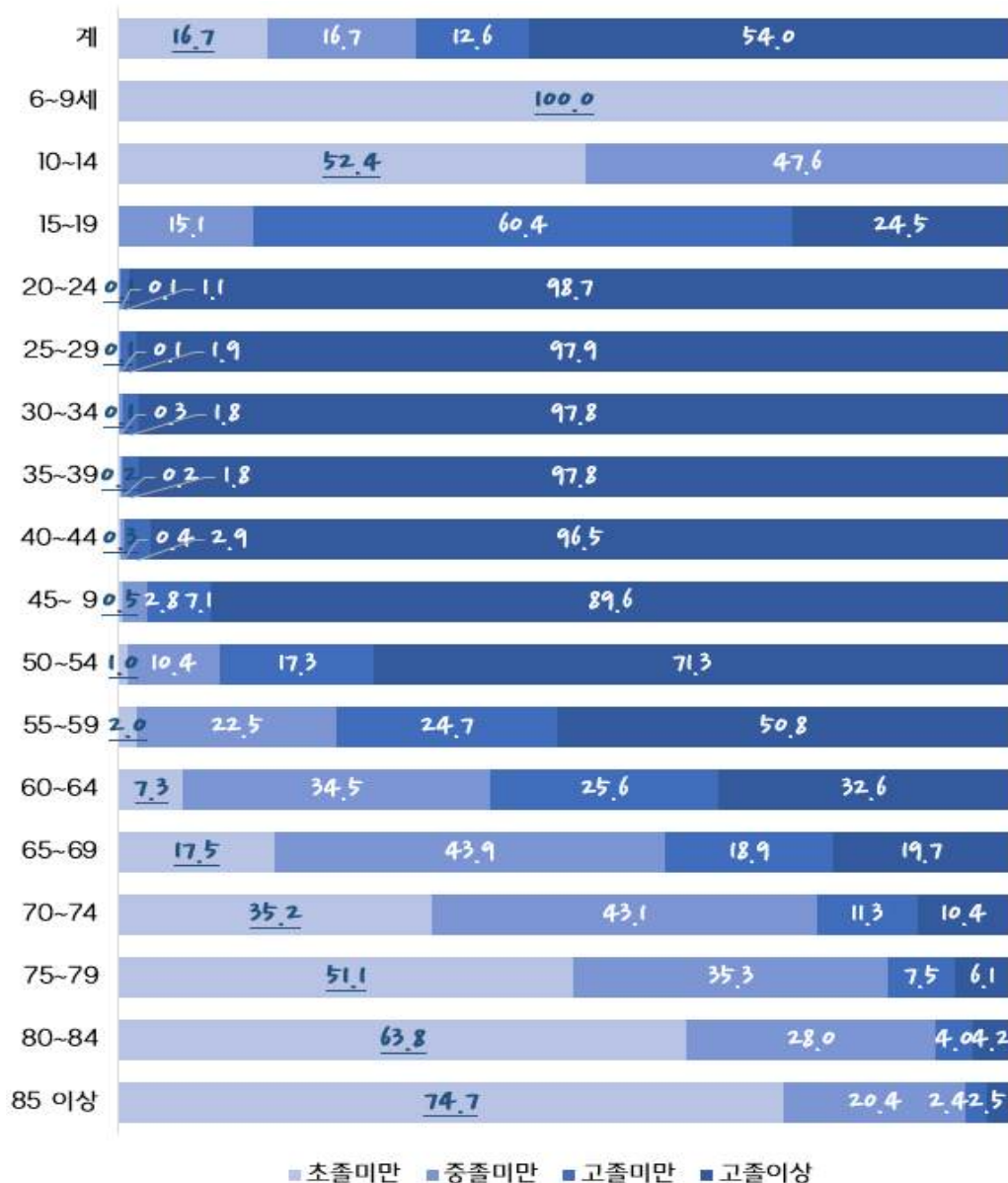
〈표 2-3〉 전북 성별·연령별 학력 현황(2015)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6세 이상	초졸 미만	중졸 미만	고졸 미만	고졸 이상	6세 이상	초졸 미만	중졸 미만	고졸 미만	고졸 이상
계	859,834	143,275	143,842	108,272	464,445	851,595	78,294	100,783	105,371	567,147
6~9세	30,644	30,644	0	0	0	32,474	32,474	0	0	0
10~14	43,897	22,988	20,909	0	0	47,030	24,595	22,435	0	0
15~19	58,264	22	8,823	35,171	14,248	65,211	16	9,338	39,188	16,669
20~24	53,975	73	54	585	53,263	66,694	87	72	676	65,859
25~29	42,228	42	54	786	41,346	49,057	95	75	632	48,255
30~34	50,317	50	145	912	49,210	54,607	66	129	1,098	53,314
35~39	57,549	119	110	1,051	56,269	60,318	112	195	1,604	58,407
40~44	67,673	216	251	1,929	65,277	73,240	195	423	2,638	69,984
45~ 9	70,014	363	1,954	4,985	62,712	74,645	331	1,645	4,149	68,520
50~54	70,108	672	7,288	12,154	49,994	73,828	537	4,460	8,165	60,666
55~59	69,579	1,406	15,664	17,191	35,318	70,442	881	8,780	12,482	48,299
60~64	54,740	3,988	18,876	14,022	17,854	53,212	1,705	10,517	11,074	29,916
65~69	48,886	8,542	21,452	9,247	9,645	45,590	2,503	12,668	9,825	20,594
70~74	46,887	16,504	20,217	5,303	4,863	35,393	3,899	12,513	6,968	12,013
75~79	42,274	21,586	14,921	3,177	2,590	26,946	4,373	9,772	4,173	8,628
80~84	30,886	19,690	8,646	1,243	1,307	15,354	3,482	5,166	2,028	4,678
85 이상	21,913	16,370	4,478	516	549	7,554	2,943	2,595	671	1,345

주 : 6세 이상 인구로 외국인 제외, 표본부분 통계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단위 : %)



〈그림 2-3〉 전북 여성의 연령별 학력 분포

나)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20세 이상 인구 학력 분포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20세 이상 인구의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초졸 미만, 중졸미만 학력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미만 및 고졸이상 학력 인구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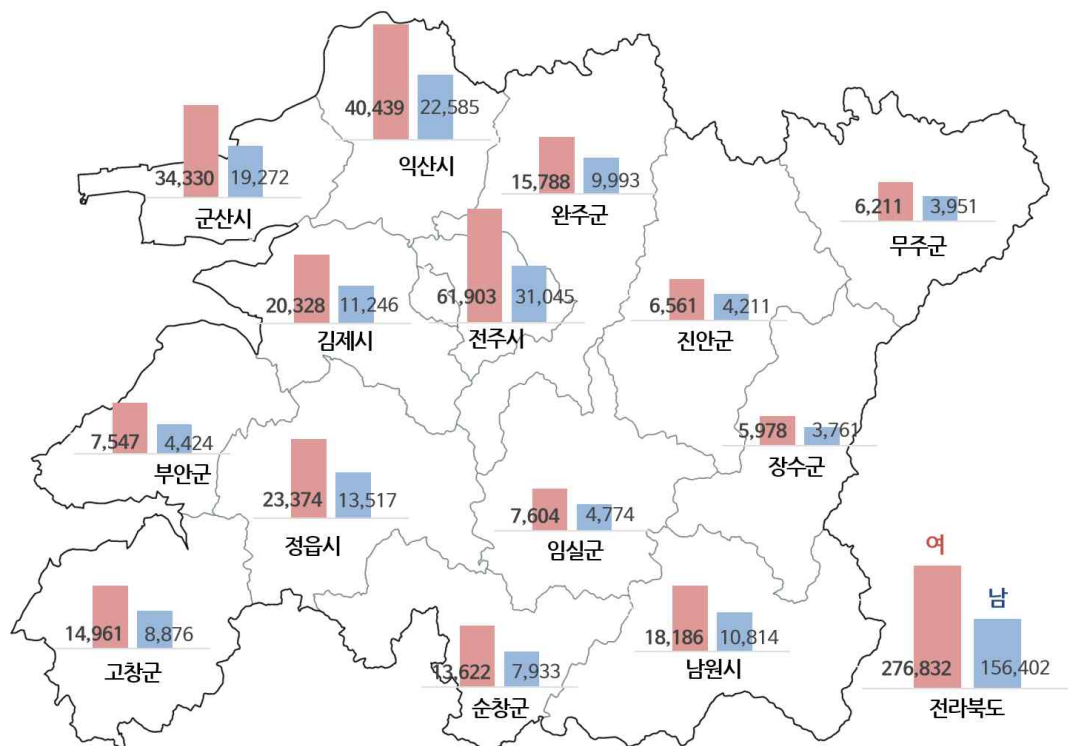
20세 이상 전북 여성 727,029명 중 12.3%는 초졸미만, 15.7%는 초졸이상 ~ 중졸미만, 10.1%는 중졸이상 ~ 고졸미만, 61.9%는 고졸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남성

의 경우 706,880명 중 각각 3.0%, 9.8%, 9.4%, 77.9%의 비율로 학력이 분포되어 있었다. 초졸미만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9.3%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미만은 5.9%, 고졸미만은 0.7%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고졸이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16.0% 높게 나타나 저학력일수록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고졸미만 인구 비율은 여성 38.1%, 남성 22.1%이며 지역별로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미만 여성 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67.2%가 학력인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안군 65.8%, 장수군 65.7%, 순창군 64.3%, 고창군 62.7%, 무주군 6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미만 인구수는 전주시 여성이 61,903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익산시 여성이 40,43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미만 인구 비율과 달리 고졸미만 인구수는 시단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또한 전주시 31,045명, 익산시 22,585명, 군산시 19,272명으로 시단위 지역에서의 고졸미만 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그림 2-4〉 전북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 인구 분포

〈표 2-4〉 전북 행정구역별 20세 이상 인구 학력 현황(2015)

(단위 : 명, %)

구분		내국인 (20세 이상)		초졸미만		중졸미만		고졸미만		고졸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북	여	727,029	100.0	89,621	12.3	114,110	15.7	73,101	10.1	450,197	61.9
	남	706,880	100.0	21,209	3.0	69,010	9.8	66,183	9.4	550,478	77.9
전주	여	256,657	100.0	13,595	5.3	26,201	10.2	22,107	8.6	194,754	75.9
	남	246,151	100.0	2,847	1.2	12,529	5.1	15,669	6.4	215,106	87.4
군산	여	103,542	100.0	8,340	8.1	14,723	14.2	11,267	10.9	69,212	66.8
	남	107,112	100.0	1,803	1.7	7,497	7.0	9,972	9.3	87,840	82.0
익산	여	118,169	100.0	10,428	8.8	17,244	14.6	12,767	10.8	77,730	65.8
	남	116,376	100.0	2,475	2.1	9,244	7.9	10,866	9.3	93,791	80.6
정읍	여	45,097	100.0	8,373	18.6	9,591	21.3	5,410	12.0	21,723	48.2
	남	43,087	100.0	2,232	5.2	6,072	14.1	5,213	12.1	29,570	68.6
남원	여	33,433	100.0	7,338	21.9	7,615	22.8	3,233	9.7	15,247	45.6
	남	31,141	100.0	1,710	5.5	5,272	16.9	3,832	12.3	20,327	65.3
김제	여	35,588	100.0	7,365	20.7	8,369	23.5	4,594	12.9	15,260	42.9
	남	33,780	100.0	1,686	5.0	5,157	15.3	4,403	13.0	22,534	66.7
완주	여	36,168	100.0	5,989	16.6	6,346	17.5	3,453	9.5	20,380	56.3
	남	37,150	100.0	1,829	4.9	4,422	11.9	3,742	10.1	27,157	73.1
진안	여	9,972	100.0	2,889	29.0	2,498	25.1	1,174	11.8	3,411	34.2
	남	9,335	100.0	670	7.2	2,050	22.0	1,491	16.0	5,124	54.9
무주	여	10,102	100.0	2,952	29.2	2,323	23.0	936	9.3	3,891	38.5
	남	9,592	100.0	774	8.1	1,996	20.8	1,181	12.3	5,641	58.8
장수	여	9,104	100.0	2,873	31.6	2,319	25.5	786	8.6	3,126	34.3
	남	8,649	100.0	665	7.7	1,991	23.0	1,105	12.8	4,888	56.5
임실	여	11,310	100.0	3,505	31.0	2,955	26.1	1,144	10.1	3,706	32.8
	남	10,782	100.0	877	8.1	2,410	22.4	1,487	13.8	6,008	55.7
순창	여	11,743	100.0	3,735	31.8	2,741	23.3	1,071	9.1	4,196	35.7
	남	10,535	100.0	926	8.8	2,216	21.0	1,282	12.2	6,111	58.0
고창	여	23,849	100.0	6,906	29.0	5,497	23.0	2,558	10.7	8,888	37.3
	남	22,076	100.0	1,686	7.6	4,325	19.6	2,865	13.0	13,200	59.8
부안	여	22,295	100.0	5,333	23.9	5,688	25.5	2,601	11.7	8,673	38.9
	남	21,114	100.0	1,029	4.9	3,829	18.1	3,075	14.6	13,181	62.4

주 : 6세 이상 인구로 외국인 제외, 표본부문 통계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다) 전라북도 성인여성 학습 수요자

전라북도 20세 이상 성인여성 고등학교 중퇴자, 중졸 및 중학교 중퇴자, 초졸 및 초등학교 중퇴자, 무학자를 따로 추출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이상 수요자 비율은 전국 27.3%, 전북 38.0%로 전북이 전국보다 10.7%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학교 이상 수요자 비율은 전국 20.7%, 전북 25.7%로 전북이 5.0%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초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276,715명,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187,095명으로 초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경우 전주시가 61,88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익산시 40,414명, 군산시 34,329명, 정읍시 23,370명, 김제시 20,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또한 전주시가 48,292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익산시 29,986명, 군산시 25,989명, 정읍시 14,997명, 김제시 12,9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이상 수요자 비율은 진안군이 각각 65.8%, 36.8%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성인 가운데 학력인정 학교시설의 잠재수요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이상 수요자 및 중등학교 이상 수요자 합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초등이상은 61,887명 중등이상은 48,29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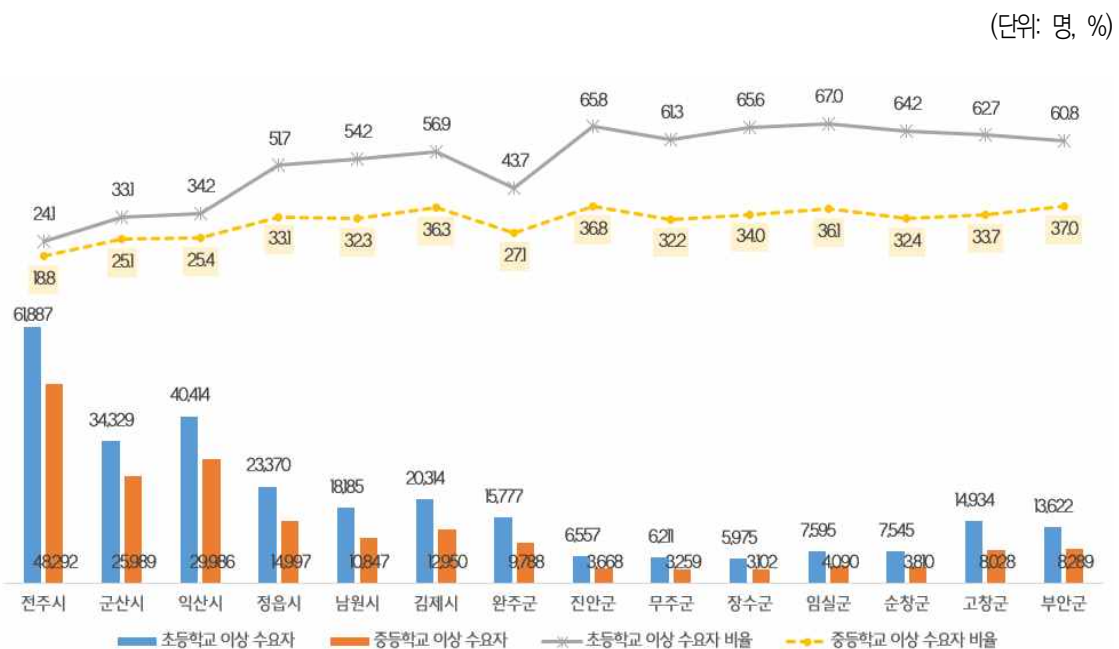
〈표 2-5〉 지역별 초등학력 및 중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여성 성인학습자(수요자)

(단위: 명, %)

구분	초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수요자)						20세 이상 여성 전체인구 (a)	초등학교 이상 수요자 합계(b)	중등학교 이상 수요자 합계(c)	초등학교 이상 수요자 비율 (b/a) × 100	중등학교 이상 수요자 비율 (c/a) × 100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전국	1,064,205	262,090	2,187,625	111,575	1,739,613	105,730	20,033,409	5,470,838	4,144,543	27.3	20.7
전북	76,254	13,366	110,243	3,849	69,405	3,598	727,883	276,715	187,095	38.0	25.7
전주	10,751	2,844	25,059	1,141	20,857	1,235	256,851	61,887	48,292	24.1	18.8
군산	6,855	1,485	14,152	570	10,651	616	103,716	34,329	25,989	33.1	25.1
익산	9,034	1,394	16,562	679	12,160	585	118,250	40,414	29,986	34.2	25.4
정읍	7,306	1,067	9,335	256	5,185	221	45,244	23,370	14,997	51.7	33.1

구분	초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수요자)						20세 이상 여성 전체인구 (a)	초등학교 이 상 수요자 합계(b)	중등학교 이 상 수요자 합계(c)	초등학교 이 상 수요자 비 율 (b/a) × 100	중등학교 이 상 수요자 비 율 (c/a) × 100
	중등학교 이 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수요자)-도립여중고직접 대상자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초등 학교 중퇴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중퇴					
남원	6,483	855	7,398	217	3,080	152	33,572	18,185	10,847	54.2	32.3
김제	6,440	924	8,103	265	4,414	168	35,677	20,314	12,950	56.9	36.3
완주	4,988	1,001	6,138	206	3,244	200	36,093	15,777	9,788	43.7	27.1
진안	2,553	336	2,444	54	1,107	63	9,968	6,557	3,668	65.8	36.8
무주	2,495	457	2,279	44	882	54	10,126	6,211	3,259	61.3	32.2
장수	2,542	331	2,269	50	751	32	9,111	5,975	3,102	65.6	34.0
임실	3,059	446	2,894	59	1,090	47	11,328	7,595	4,090	67.0	36.1
순창	3,102	633	2,661	80	993	76	11,760	7,545	3,810	64.2	32.4
고창	6,052	854	5,356	133	2,454	85	23,800	14,934	8,028	62.7	33.7
부안	4,594	739	5,593	95	2,537	64	22,387	13,622	8,289	60.8	37.0

주 : 표본부문 통계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2-5〉 지역별 초등학력 및 중등학력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여성 성인학습자(수요자)

다. 전라북도 미진학 성인여성 진학수요 예측

1) 전국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전국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20세 이상 총 인구와 고졸미만 학력자 인구를 구한 후, 각 년도 별로 총 인구 중에서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졸미만 학력비를 구한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고졸미만 학력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력비의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15년 인구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 2025년, 2030년 추계인구에 그 비율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의 고졸미만 학력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계열자료 분석에 의하여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고 있는 학력비의 감소세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2년의 고졸미만 학력자 수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1970년 전국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4%였으며 남성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9%, 여성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0%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전국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6.8%로 나타났다. 2015년 남성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의 비율은 12.1%, 여성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의 비율은 21.5%였다. 각 년도 고졸미만 학력비에서 여성의 학력비는 전체 학력비보다 높았으며 남성에 비해서는 약 10% 높아 남성보다는 여성의 저학력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2015년까지 45년 동안 여성의 고졸미만 학력비는 44.0%에서 21.5%로 반절 이상 감소하여 학력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학력비의 감소폭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학력비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는 남성인구의 10.8%, 여성인구의 19.9%로 전체인구의 15.3%가, 2025년에는 남성인구의 9.6%, 여성인구의 18.4%, 전체인구의 14.0%가, 2030년에는 남성인구의 8.6%, 여성인구의 17.0%, 전체인구의 12.8%가 고졸미만의 학력자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인구에 적용해보면 1970년에 12,364,503이었던 고졸미만 학력자 수는 2020년 7,964,295명, 2025년 7,364,959명,

2030년 6,771,95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며 그 중 여성 고졸미만 학력자의 수는 매 5년마다 약 32~33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6〉 전국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단위 : 명, %)

구분	인구			고졸미만 학력자			고졸미만 학력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70	32,240,827	16,308,607	15,932,220	12,364,503	5,357,874	7,006,629	0.384	0.329	0.440
1975	35,280,725	17,765,828	17,514,897	13,501,941	5,902,083	7,599,858	0.383	0.332	0.434
1980	38,123,775	19,235,736	18,888,039	14,022,475	5,810,199	8,212,276	0.368	0.302	0.435
1985	40,805,744	20,575,600	20,230,144	13,709,438	5,426,189	8,283,249	0.336	0.264	0.409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12,789,828	4,924,878	7,864,950	0.298	0.228	0.369
1995	45,092,991	22,705,329	22,387,662	11,903,787	4,452,520	7,451,267	0.264	0.196	0.333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10,564,297	3,919,993	6,644,304	0.225	0.166	0.285
2005	48,184,561	24,243,234	23,941,327	9,539,264	3,456,898	6,073,366	0.198	0.143	0.254
2010	49,554,112	24,881,114	24,672,998	9,240,340	3,357,810	5,882,530	0.186	0.135	0.238
2015	51,014,947	25,585,894	25,429,053	8,558,174	3,084,509	5,473,665	0.168	0.121	0.215
2020	51,973,817	26,043,821	25,929,996	7,964,295	2,808,752	5,155,543	0.153	0.108	0.199
2025	52,609,988	26,349,538	26,260,450	7,364,959	2,542,173	4,822,786	0.140	0.096	0.184
2030	52,941,342	26,507,827	26,433,515	6,771,954	2,287,860	4,484,094	0.128	0.086	0.170

주: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구총조사 자료의 확정인구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한 추계인구를 분석에 이용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2) 전라북도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전라북도의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수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20세 이상 전라북도 인구와 전라북도 고졸미만 학력자 인구를 구한 후, 각 년도 별로 전라북도 인구 중에서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졸미만 학력비를 구한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고졸미만 학력비의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15년 인구 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 2025년, 2030년 추계인구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2030년까지의 고졸미만 학력자 수를 추계하였다.

1970년 전라북도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5%였으며 남성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4%, 여성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7%로 전국의 고졸미만 학력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역시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전국적 수준보다는 그 정도가 낮아서 2005년 고졸미만 학력자 비율은 28.2%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라북도 20세 이상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3.6%였으며 남성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의 비율은 17.1%, 여성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의 비율은 30.1%였다. 전라북도도 각 년도 고졸미만 학력비에서 여성의 학력비가 전체 학력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서는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높아 전국의 남성과 여성 학력비보다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학력비의 감소폭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학력비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는 남성인구의 15.6%, 여성인구의 28.4%로 전체인구의 22.0%가, 2025년에는 남성인구의 14.2%, 여성인구의 26.7%, 전체인구의 20.5%가, 2030년에는 남성인구의 13.0%, 여성인구의 25.1%, 전체인구의 19.1%가 고졸미만 학력자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인구에 적용해보면 1970년에 983,180이었던 고졸미만 학력자 수는 2020년 400,718명, 2025년 371,473명, 2030년 344,86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며 그 중 여성 고졸미만 학력자의 수는 매 5년마다 약 1만 5천 명 ~ 1만 8천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7〉 전북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단위 : 명, %)

구분	인구(추계인구)			고졸미만 학력자			고졸미만 학력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70	2,490,827	1,254,387	1,236,440	983,180	430,957	552,223	0.395	0.344	0.447
1975	2,497,939	1,258,653	1,239,286	997,331	447,610	549,721	0.399	0.356	0.444
1980	2,329,212	1,173,496	1,155,716	926,890	395,096	531,794	0.398	0.337	0.460
1985	2,220,652	1,117,674	1,102,978	853,972	349,343	504,629	0.385	0.313	0.458
1990	2,046,776	1,020,617	1,026,159	759,371	300,818	458,553	0.371	0.295	0.447
1995	1,921,970	955,405	966,565	643,372	246,475	396,897	0.335	0.258	0.411
2000	1,927,005	958,211	968,794	583,272	219,211	364,061	0.303	0.229	0.376
2005	1,816,604	901,531	915,073	512,955	187,688	325,267	0.282	0.208	0.355
2010	1,795,819	887,155	908,664	480,697	174,380	306,317	0.268	0.197	0.337
2015	1,835,125	916,353	918,772	433,234	156,402	276,832	0.236	0.171	0.301
2020	1,823,507	910,563	912,944	400,718	141,787	258,931	0.220	0.156	0.284
2025	1,815,361	906,089	909,272	371,473	128,720	242,753	0.205	0.142	0.267
2030	1,809,662	903,166	906,496	344,862	117,055	227,807	0.191	0.130	0.251

주: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구총조사 자료의 확정인구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한 추계인구를 분석에 이용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3) 전라북도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수요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라북도 14개 시군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수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의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수 예측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세 이상 인구와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인구를 구한 후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비를 구한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비의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15년 인구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 2025년, 2030년 추계인구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전라북도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추계인구를 구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추계인구자료는 전라북도까지만 제공되므로 각 시군에 대한 예측은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에서 각 시군의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가 구성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970년 전라북도 인구 중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는 507,064명이었으나 2015년 322,404명으로 약 18만 명이 줄었고, 2020년 299,981명, 2025년 279,685명, 2030년 261,116명으로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970년 전체 507,064명 이었던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가 2015년 322,404명으로 184,660명 감소할 동안 20세 이상 여성인구 중 초졸이상 고졸미만 인구는 1970년 239,816명에서 2015년 187,211명으로 불과 52,605명만 감소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소가 매우 더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는 매 5년마다 약 2,000명~2,500명이, 전주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은 매 5년마다 약 1,500명이,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매 5년마다 약 600명~8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8〉 전라북도 14개 시군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 학력자 예측

(단위 : 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전북	계	507,064	608,952	613,542	592,972	535,799	458,302	404,323	359,351	345,821	322,404	299,981	279,685	261,116
	여자	239,816	294,836	318,412	318,761	295,553	258,363	227,773	206,009	200,067	187,211	175,498	164,902	155,097
전주	계	61,344	75768	90660	95828	103764	95329	90523	83369	83238	76506	74,998	73,485	71,932
	여자	33,618	42296	53244	58291	63963	58962	55833	52002	51913	48308	47,584	46,870	46,114
군산	계	62,623	76538	79513	77845	71767	59371	54220	46849	46241	43459	40,774	38,329	36,075
	여자	31414	38975	43145	43331	40961	34455	31251	27567	27383	25990	24,517	23,180	21,937
익산	계	63002	77226	83222	85423	76199	68622	62507	54808	53075	50121	47,639	45,351	43,213
	여자	31603	39006	45182	47840	43467	40146	36461	32437	31692	30011	28,690	27,480	26,338
정읍	계	51581	59351	56786	54160	50675	39292	33202	29504	28056	26286	23,780	21,538	19,516
	여자	24398	28428	29355	28776	27448	21950	18323	16630	15896	15001	13,641	12,422	11,311
남원	계	35515	42117	41002	38371	35815	31135	26035	23423	22040	19952	18,294	16,803	15,450
	여자	16271	19568	20422	19660	18811	16738	13992	12739	12179	10848	9,976	9,192	8,475
김제	계	50780	57879	54064	50962	45046	35698	30353	27128	24927	22523	19,933	17,628	15,564
	여자	24426	27768	27837	27067	24372	19878	17085	15482	14325	12963	11,516	10,223	9,053
완주	계	34,661	41284	42605	40970	27713	25206	20943	19182	19024	17963	16,315	14,839	13,507
	여자	15,243	18914	20689	20446	14037	13158	10922	10162	10099	9799	8,967	8,220	7,538
진안	계	17,936	22884	20952	18973	14609	11718	9557	7984	7128	7213	6,309	5,507	4,793
	여자	7,121	9744	9704	8973	7063	5776	4633	3995	3674	3672	3,246	2,865	2,521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무주	계	13,753	16206	14752	13533	11216	10004	8252	7404	6789	6436	5,765	5,167	4,630
	여자	5,679	7079	6882	6517	5316	5046	4162	3850	3583	3259	2,933	2,641	2,376
장수	계	12779	16114	14102	13028	10217	8795	7497	6825	6496	6201	5,590	5,043	4,552
	여자	5100	7068	6617	6261	5032	4406	3712	3436	3406	3105	2,819	2,563	2,330
임실	계	19191	24305	22100	19494	15335	12947	10335	9287	8259	7996	7,021	6,156	5,383
	여자	8184	10853	10472	9435	7619	6514	5093	4743	4163	4099	3,604	3,162	2,764
순창	계	18419	20651	18481	16201	13562	11158	9379	8223	7871	7310	6,366	5,530	4,785
	여자	7772	9149	8997	7934	6757	5627	4671	4190	4111	3812	3,339	2,916	2,535
고창	계	33158	39147	35700	34549	28769	24491	20476	17693	16710	15245	13,609	12,151	10,844
	여자	14240	17598	17092	17038	14658	12661	10561	9250	8934	8055	7,232	6,496	5,828
부안	계	32316	39471	36450	33635	31112	24536	21044	17672	15967	15193	13,589	12,158	10,873
	여자	14747	18363	18175	17192	16049	13046	11074	9526	8709	8289	7,435	6,670	5,977

주: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구총조사 자료의 확정인구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한 추계인구를 분석에 이용함.

2. 학력인정교육기관 현황 및 여건 변화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청소년, 성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야간특별학습, 각종 학교(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이다.

둘째, 고등교육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는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 학교(대학 과정)이다.

셋째,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다.

2018년 3월 기준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50개소로 서울이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11개소, 경기도가 8개소, 전북이 6개소로 전북의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학력인정 교육기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이유는 앞서 <표 2-1>의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와 <표 2-5>의 초·중등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여성)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보다 학력수준이 낮은 점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2-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2018년 3월 기준

지역	시설명	특성화고 형태	학기제
서울(13)	서현초등학교		4년제
	양원초등학교		4년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서울자동차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성지중고등학교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정암미용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진형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청량정보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청암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한국예술고등학교		1년 2학기제
	한림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1년 2학기제
부산(11)	국제금융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경보건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 부경중학교		1년 3학기제
	부산경호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산골프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산골프고등학교 병설 중학교		1년 3학기제
	부산미용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학교		1년 3학기제
	부산예원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 예원여자중학교		1년 3학기제
	부산조리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대구(1)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인천(2)	남인천중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대전(1)	대전예지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지역	시설명	특성화고 형태	학기제
경기(8)	계명고등학교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안양상업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1년 3학기제 혼용
	진영고등학교	특성화	청소년 - 1년 2학기제 성 인 - 1년 3학기제
	부천실업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고양실업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		1년 2학기제
	진영중학교		1년 3학기제
	진영초등학교		4년제
강원(1)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충북(1)	예일미용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전북(6)	진북고등학교		1년 3학기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1년 2학기제
	군산평화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백제고등학교		1년 2학기제
	남일초중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인화초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전남(2)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홍지중고등학교		1년 3학기제
경북(1)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특성화	1년 3학기제
경남(3)	경남미용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경남보건고등학교	특성화	1년 2학기제, 1년 3학기제 혼용

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

2) 전라북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전라북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전주시에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있으며, 군산시·익산시·정읍시·임실군에 각각 1개의 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초등학력인정 학교는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2개 학교에 불과하며, 이외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로 중등학교는 4개 학교, 고등학교는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기운영에 따라 3년제와 2년제로 구분되어지는데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및 백제고등학교는 정규과정으로 1년 2학기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북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는 1년 3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급 수로는 남일초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 4학급, 중학교 9학급, 인문계고 10학급, 미용학과 4학급으로 총 27학급을 운영하여 편성 학급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전라북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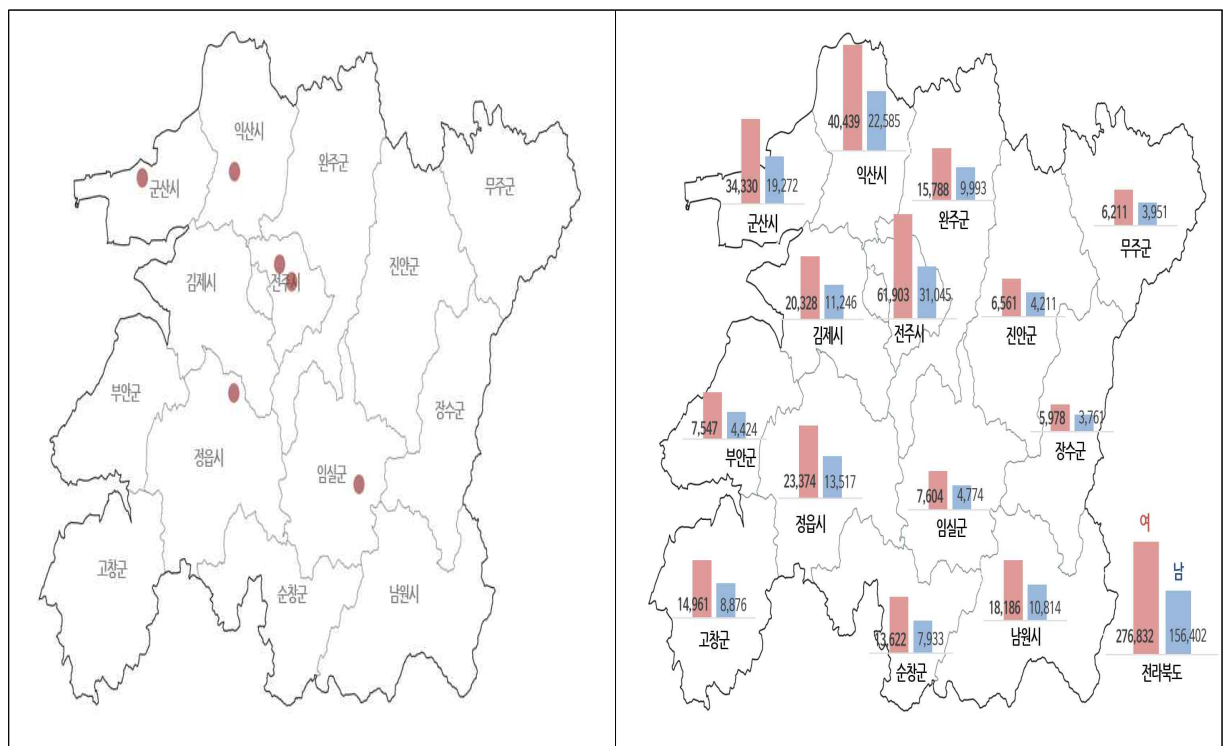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시 설 명	위 치	편성 학급 수				교직원 수	교육과정	지정일
		초	중	고	계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리3길 35(진북동)	-	-	2	2	-	1년 3학기제	1987.11.30
전라북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 (송천동)	-	3	3	6	24	1년 2학기제	1998.01.17
군산평화 중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9(삼학동)	-	4	4	8	12	1년 3학기제	2003.02.24.(중) 2004.01.29.(고)
백제고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항길 26	-	-	4	4	11	1년 2학기제	2005.02.16
남일 초중고등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백산감산로 706	4	9	14	27	39	1년 3학기제	2003.08.07(중,고) 2006.03.28.(초)
인화 초중고등학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2길 19번지	4	2	2	8	20	1년 3학기제	2007.07.02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참고

전라북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살펴보면 임실군을 제외한 5개의 학교가 시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학력인정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전주, 익산, 군산, 임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다음 <그림2-6>은 현재 전북의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학력인정교육시설의 분포와 전북의 20세 이상 고졸미만의 학력인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의 경우 20세 이상의 고졸미만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시단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군단위 역시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력인정 학교시설은 임실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시단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 거주하는 수많은 성인학습자들이 검정고시에 의존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력인증 교육시설의 접근성이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2-6>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분포 및 20세 이상 고졸미만 학력인구 현황

3) 기타 학력인정 교육기관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과 주말 출석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는 다른 형태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며, 소속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제와 교육과정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학교로 학제나 교육과정 등이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하다. 학교생활기록부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학교와 형식이 동일하다.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해당되지만,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한다.

전라북도에서는 학력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2015년에 전라중학교 부설로 방송통신중을 설립, 현재 운영 중에 있다. 2016년 학교 개설 당시에는 뜨거운 관심을 받아 합격자가 155명(남 19명, 여136명), 2017년 92명(남17명, 여75명), 2018년 128명(남11명, 여117명)에 달하였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70명 수준이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중도탈락율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수업에 대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표 2-11〉 전라북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구분	규모	교육과정	설립일	비고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4학급 91명	3년제	1975	월2~3회수업 격주 일요일 출석수업 원격수업
전주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급씩 6학급 180여명	3년제	1974	월2~3회수업 격주 일요일 출석수업 원격수업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급씩 9학급 현원 242명	3년제	2015	월2~3회수업 격주 토요일 출석수업 원격수업

지난 3년간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성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 입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90명의 입학생 중 남성 입학생은 19명으로 약 21%에 불과하지만 여성 입학생은 71명으로 전체 입학생 중 약 79%를 차지했다. 여성 입학생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입학생의 약 88%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12%에 불과했다.

〈표 2-12〉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성별추이(2016-2018)

(단위 : 명, %)

	계	남성	여성
2016	90 (100.0)	19 (21.1)	71 (78.9)
2017	90 (100.0)	18 (20.0)	72 (80.0)
2018	90 (100.0)	11 (12.2)	79 (87.8)

자료: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http://jeolla.or.kr/>

2017년 기준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의 연령대는 평균 57.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없었으며 30대는 2명으로 전체의 2.2%를, 40대는 5명으로 전체의 5.6%를 구성하였으며 50대는 48명으로 과반이 넘는 53.3%, 60대는 32명으로 35.6%, 70대는 3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3.3%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연령대(2017)

(단위 : 명,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평균연령
명	2	5	48	32	3	90	57.5세
%	2.2	5.6	53.3	35.6	3.3	100.0	

자료: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http://jeolla.or.kr/>

2018년 기준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의 거주 지역은 전라북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순창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생의 거주지는 전주가 48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완주가 10명으로 11.1%를 구성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군산이 9명으로 10.0%, 익산이 6명으로 6.7%로 나타났으며 김제시와 고창군이 4명, 남원시가 3명, 정읍시·진안군·장수군·임실군·부안군이 각각 2명이며 무주군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에 가까운 전주와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많으나 신입생의 거주 지역이 전라북도 내 다양한 시군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한 달에 두 번만 출석수업이 진행되는 방송통신중학교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4〉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역(2018)

(단위 : 명,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명	43	9	6	2	3	4	10
%	47.8	10	6.7	2.2	3.3	4.5	11.1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명	2	1	2	2	0	4	2
%	2.2	1.1	2.2	2.2	0	4.5	2.2

자료: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http://jeolla.or.kr/>

나. 학력인정교육기관 교육환경 및 여건변화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통계청이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1960년 25,012,374였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60년 인구의 배를 넘어서는 51,973,81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1년 52,957,605명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5〉 장래인구 추계(중위 추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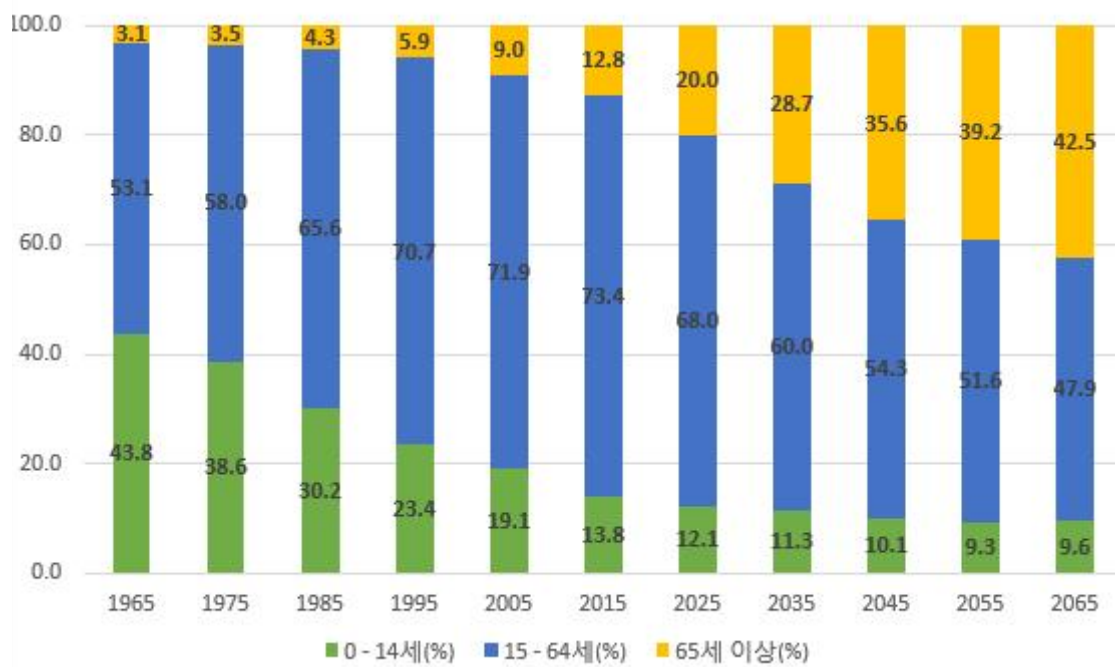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전체인구	25,012,374	32,240,827	38,123,775	42,869,283	47,008,111	49,554,112
연 도	2020	2030	2031	2040	2050	2060
전체인구	51,973,817	52,941,342	52,957,605	52,197,882	49,432,752	45,245,98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2016)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하여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1965년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유소년이 차지한 비중은 43.8%,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던 비중은 53.1%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2015년은 유소년이 전체의 13.8%를, 생산가능인구가 73.4%를, 고령인구가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65년에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의 비중이 9.6%,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47.9%이며 고령인구가 4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65년과 2065년의 인구구성비율을 비교해보면,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5년에 비해 2065년에 약 5배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가능인구는 1965년과 2065년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으나 2015년과 2065년을 비교하면 25%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는 1965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여 2065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2016)

〈그림 2-7〉 연령별 인구구성비(1965 - 2065)

2) 고등교육 보편화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음을 각 교육단계의 취학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부터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도별로 조금씩 등락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1975년 이후 97% 이상의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970년에 비하여 높은 취학률을 보였다. 1970년 남성 40.9%, 여성 29.7%이던 중학교 취학률이 1990년 90%를 넘었고, 남녀의 차이도 없어졌다. 고등학교 역시 남성 22.3%, 여성 16.9%로 1970년 취학률은 매우 낮았지만 2005년에 들어 90%를 넘어섰다.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1970년 5.4%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67.6%까지 높아졌다. 남녀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어 2015년에는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의 취학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6〉 교육단계별 취학률 : 1970년 - 2017년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70년	92.0	92.6	91.3	36.6	40.9	29.7	20.3	22.3	16.9	5.4	6.0	3.4
1975년	97.8	97.8	97.8	56.2	60.9	49.7	31.3	33.4	26.2	6.7	7.5	4.3
1980년	97.7	97.2	98.2	73.3	75.4	70.9	44.8	45.2	44.3	11.4	12.8	6.6
1985년	-	-	-	82.0	82.3	81.7	64.2	66.3	61.7	22.9	25.7	16.2
1990년	100.5	100.0	101.0	91.6	91.2	92.0	79.4	81.4	77.2	23.6	25.7	19.1
1995년	98.2	98.0	98.4	93.5	93.3	93.7	82.9	83.4	82.4	36.0	38.4	31.7
2000년	97.2	96.7	97.8	95.0	94.3	95.8	89.4	89.4	89.4	52.5	55.4	47.8
2005년	98.8	98.7	98.9	94.6	94.2	95.0	91.0	91.0	91.0	65.2	67.9	61.1
2010년	98.6	98.6	98.6	97.6	97.6	97.6	92.4	92.1	92.7	70.1	71.7	68.5
2015년	99.1	99.1	99.0	95.3	95.5	95.2	92.5	92.2	92.8	67.5	67.1	67.9
2017년	97.3	97.4	97.3	94.2	94.5	93.9	93.7	93.6	93.8	67.6	66.2	69.0

주 : 1) 취학률 = (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 수 ÷ 취학 적령 인구) × 100

2) 취학 적령 인구 =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

3) 초등학교의 경우 취학 적령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취학률이 100%를 넘을 수 있음

4)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과정)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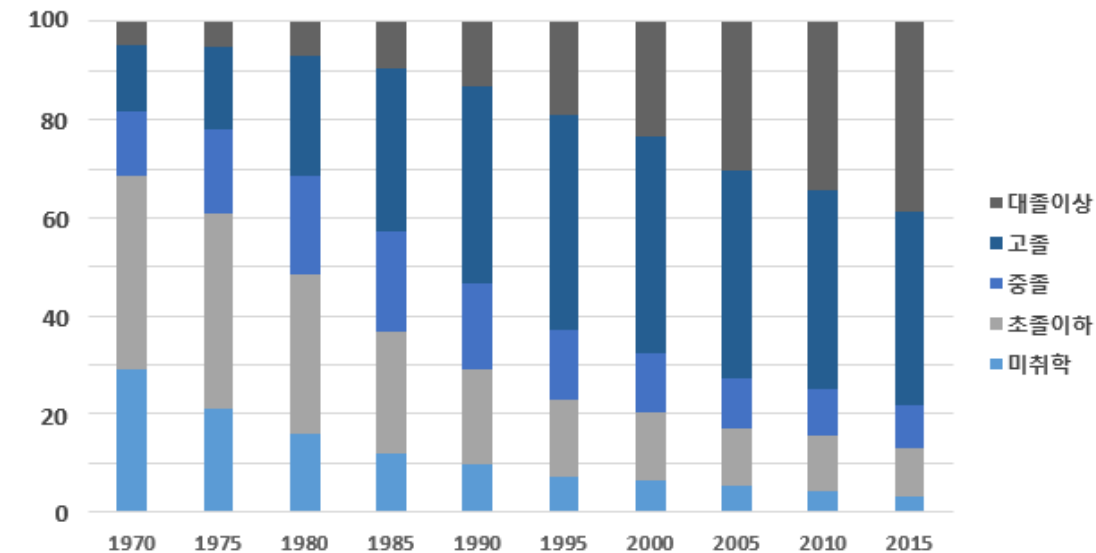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학력수준의 고도화 : 미취학 성인인구 대폭 감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20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구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에는 20세 이상 국민의 29.0%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미취학자였고, 39.4%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 전체 성인의 과반이 넘는 68.4%로 나타났다. 13.4%는 중졸, 13.5%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4.6%만이 대졸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저학력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학력자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85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가 40% 미만으로 나타났고 1995년 처음으로 고졸이상 학력자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20세 이상 미취학 성인의 비율이 3.2%에 불과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9.8%로 나타났다. 중졸 학력은 8.6%, 고졸 학력은 39.7%, 대졸이상 학력은 38.7%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구성, 각 년도

〈그림 2-8〉 20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1970 - 2015)

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학생 수 감소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학생 수의 증감현황으로 2004년 전국의 43개교는 2018년 현재 9개교가 폐교하고 10개교가 신설되어 총 44개교¹⁾이고 전체 학생 수는 2004년 29,675명에서 2018년 24,202명으로 18.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과 비교하여 2018년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30%정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하는 학교는 80%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읍의 남일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현재 1,000명 이상의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총 9개교로 2004년 15개교에서 약 2/3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10개교로 2004년과 6개교에서 4개교 더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 총 6개교 중 4개교가 200명 미만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고 전북고등학교는 폐교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학생 수의 감소는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생자원의 감소,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로 인한 감소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감소는 교육부의 법인화 방침을 거부하는 학교가 늘면서 폐교절차에 들어간 학교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

지역	학교명	2004		2018		학생 수 증감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서울	서현초등학교	신설		8	280	-
	양원초등학교	신설		22	770	-
	진형중고등학교	신설		29	1,112	-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전 이광자동차고등학교)	11	575	8	224	-61.0%
	성지중고등학교	34	1551	15	403	-74.0%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22	1023	22	778	-23.9%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2	1057	25	996	-5.8%

1) 진형초중고등학교와 부경보건중고등학교·부산골프고등학교·부산미용고등학교·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를 개별 집계할 시 〈표 2-7〉과 같은 50개교임.

지역	학교명	2004		2018		학생 수 증감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정암미용고등학교	4	172	13	342	98.8%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22	1110	7	214	-80.7%
	청량정보고등학교	12	430	14	383	-10.9%
	청암중고등학교	24	1241	27	1,047	-15.6%
	한국예술고등학교	7	244	5	166	-32.0%
	한림초중고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33	1746	34	1,263	-27.7%
	경일중경영정보고등학교	17	829	폐교		-
	수도중학교	6	233	폐교		-
경기	계명고등학교	12	382	10	271	-29.1%
	안양상업고등학교	10	317	12	248	-21.8%
	진영초중고등학교 (전 진영정보중공업고등학교)	27	1121	32	1,187	5.9%
	부천실업고등학교	6	117	6	77	-34.2%
	고양실업고등학교	6	186	6	182	-2.2%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	신설		1	52	-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	6	257	폐교		-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12	427	11	291	-31.9%
	부경보건중고등학교(병설중학교) (전 부경정보과학중고등학교)	35	1561	44	1,765	13.1%
	부산경호고등학교	14	448	15	480	7.1%
	부산골프고등학교(병설중학교)	11	265	17	569	114.7%
	부산미용고등학교(병설중학교)	25	1015	30	1,222	20.4%
	부산예원고등학교(병설중학교) (전 예원정보여자중고등학교)	39	1791	39	1,606	-10.3%
	부산조리고등학교	17	652	18	720	10.4%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17	777	17	780	0.4%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29	1295	폐교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	37	1700	35	1,360	-20.0%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전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31	1180	31	1,167	-1.1%
	예화여자중고등학교	32	1391	폐교		-
광주	광주진명중학교	1	120	폐교		-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15	529	18	514	-2.8%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전 원일실업고등학교)	3	57	7	122	114.0%

지역	학교명	2004		2018		학생 수 증감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강릉인문중고등학교	6	139	폐교		-
	동해자동차고등학교	6	54	폐교		-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신설		9	239	-
전북	인화초중고등학교	신설		8	215	-
	백제고등학교	신설		3	11	-
	진북고등학교	15	637	2	28	-95.6%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6	269	6	184	-31.6%
	군산평화중고등학교	6	119	8	193	62.2%
	남일초중고등학교 (전 석산중고등학교)	7	145	38	761	424.8%
	금암고등학교	8	260	폐교		-
전남	홍지중고등학교	신설		12	437	-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25	1299	22	971	-25.3%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신설		3	77	-
경남	경남보건고등학교	신설		4	46	-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전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9	684	9	161	-76.5%
	경남미용고등학교	10	270	12	288	6.7%
소계		697	29675	714	24,202	-18.4%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8)

다음의 <표 2-18>에 의하면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수는 2008년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가 검토된 이후 2009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평생교육시설이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사립학교지원법에 의거하여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6년에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가 2015년 이후 거의 2배 가깝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2000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2년 222명에서 2017년 1639명으로 약 19%가 감소하였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학습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12년 97.3%, 2017년 97.6%로 여성학습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학교의 경우는 2000년 2,693명에서 2017년 1,344명으로 약 17년 동안 1,349명이 감소하여 거의 절반(49.9%)에 가깝게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전체 학습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9.3%에서 2017년 95.6%로 증가하여 남성학습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학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 18,722명에서 2017년 11,713명으로 7,009명이 감소하여 37.4% 정도 감소하였고 여성학습자의 비중은 2000년 63.7%에서 2017년 58.5%로 감소하였으나 남성학습자 비중은 확대되었다.

통합과정에서는 2014년 9,253명에서 2017년 11,380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며 여성학습자의 비중은 2014년에는 76.7% 2017년에는 78.2%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1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수 및 학생 수(2000-2017)

(단위 : 개교 개,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국	2000	자료 없음				13	63	2,693	2,404	38	426	18,722	11,938				
	2003					17	133	6,208	4,708	36	481	20,241	12,829				
	2006					24	172	7,689	6,953	47	621	25,352	15,599				
	2009					27	200	8,542	7,635	52	748	31,839	18,793				
	2012	6	56	2022	1969	26	180	6,993	6,353	51	725	27,928	16,796				
	2013	5	54	1927	1876	24	174	6,586	5,982	50	697	25,888	15,851				
	2014	5	54	1871	1822	12	67	2,324	2,109	37	480	17,200	10,369	9	247	9,253	7,100
	2015	5	54	1874	1830	12	68	2,402	2,162	37	456	15,735	9,545	9	232	8,572	6,585
	2016	3	46	1640	1600	5	35	1,386	1,314	28	378	12,759	7,477	16	303	10,550	8,263
	2017	3	46	1639	1601	5	35	1,344	1,286	27	357	11,713	6,862	17	325	11,380	8,900
전북	2000	자료 없음				2	4	152	150	3	28	1,240	674				
	2003					-	-	-	-	-	-	-	-				
	2006					3	15	420	349	6	44	1,311	784				
	2009					4	17	494	388	7	58	1,904	915				
	2012	2	8	240	230	4	18	531	445	7	55	1,573	785				
	2013	2	8	240	230	4	18	531	445	7	55	1,573	785				
	2014	2	8	221	214	4	18	498	417	7	40	1,183	654	-	-	-	-
	2015	2	8	236	231	4	18	483	394	7	37	1,008	589	-	-	-	-
	2016	-	-	-	-	-	-	-	-	3	10	230	70	4	49	1,350	1,123
	2017	-	-	-	-	-	-	-	-	2	6	130	28	4	49	1,323	1,078

주 :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분류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분류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다음의 <표 2-19>는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추이를 성인학생과 미성년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2010년 기준 전체 학생 수 43,622명 가운데 성인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1%이고 2017년에는 52.1%로 미성년학생 비율은 감소한 반면 성인학생 비중은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성년 학생의 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중학교에서는 2010년에는 217명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중학교 의무교육의 영향으로 미성년 학생은 2017년에는 불과 1명에 불과하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성인학생의 비율은 2010년 25.5%에서 2017년 16.8%로 감소하였지만 통합과정에서는 2014년 성인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5.2%이고 2017년에는 76.1%로 증가하여 성인학생과 미성년학생 수가 역전하고 있다. 학력인정 고등학교는 통합과정이 아닌 경우, 과거 산업체근로학교 전신이었다가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근로청소년들을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미성년학생보다 성인학생의 비중이 높은 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통합과정은 늦깎이 성인들이 중학교과정에 입학하였다가 동일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인학생의 수가 미성년보다 많다. 통합과정의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학생의 비율은 2014년 34.8%에서 2017년 23.9%로 감소하고 있다.

<표 2-19>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추이(2010-2017)

(단위 :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		
	계	성인 학생	미성년 학생	계	성인 학생	미성년 학생	계	성인 학생	미성년 학생	계	성인 학생	미성년 학생	계	성인 학생	미성년 학생
2010	43,622	18,820	24,802	2,256	2,255	1	8,352	8,135	217	33,014	8,430	24,584			
2011	41,771	17,761	24,010	2,260	2,258	2	7,667	7,544	123	31,844	7,959	23,885			
2012	36,943	16,217	20,726	2,022	2,021	1	6,993	6,950	43	27,928	7,246	20,682			
2013	34,401	15,026	19,375	1,927	1,927	0	6,586	6,569	17	25,888	6,530	19,358			
2014	30,648	10,693	19,955	1,871	1,871	0	2,324	2,313	11	17,200	2,781	14,419	9,253	6,030	3,223
2015	28,583	12,602	15,981	1,874	1,874	0	2,402	2,389	13	15,735	2,723	13,012	8,572	5,616	2,956
2016	26,335	12,247	14,088	1,640	1,639	1	1,386	1,384	2	12,759	1,628	11,131	10,550	7,596	2,954
2017	26,076	13,599	12,477	1,639	1,638	1	1,344	1,343	1	11,713	1,959	9,754	11,380	8,659	2,721

주 :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분류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과정으로 분류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분석

가. 전북지역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

1) 정읍시 남일초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자보다는 아들과 남자를 더 가르쳐야한다는 성차별, 또는 건강 등의 이유로 정규학교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만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겠다는 건학이념을 토대로 2004년 석산 중고등학교로 문을 열었다. 한글반 2학급,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출발한 학교는 2006년 제1회 졸업생(중78명, 고43명)을 배출하였고 같은 해에 초등학교 1학급을 인가받았으면서 남일초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9년에는 고등 미용학과 4학급을 인가받아 특성화 과정도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초등은 9회, 중·고등은 13회 졸업을 통해 총 314명이 졸업하였으며 누적 졸업생은 총 3,541명이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2018년 기준, 남일초중고등학교는 총 756명이 재학 중에 있다. 전체 학생 수는 초<중<고로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 학습자의 연령 특성으로는 초등학교 경우 70대 이상이 43.2%, 60대가 42.4%로 60~7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60대가 48.1%, 50대가 32.3%로 50~60대가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50대 미만과 50대, 60대가 비교적 같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일고등학교는 현재 미용학과 특성화반을 4학급이나 운영 중에 있어 5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공학으로 운영 중인 남일초중고등학교는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37.3%나 되고 있다. 재학생의 지역별 분포로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정읍시가 40% 정도로 가장 많고 이웃한 인접지역인 김제와 전주 학생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전북도내권인 아닌 경우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10%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배우지 못해 학력인정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속성 때문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표 2-20〉 성별, 연령별, 지역별 남일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성별		연령				거주지역				
	남	여	50대 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	정읍	김제	부안	완주·전주	기타
초 (118명)	12 (10.2)	106 (89.8)	17 (14.4)	16 (13.6)	50 (42.4)	51 (43.2)	52 (44.1)	33 (28.0)	11 (3.4)	17 (14.4)	5 (4.2)
중 (260명)	45 (17.3)	215 (82.7)	28 (10.8)	84 (32.3)	125 (48.1)	23 (8.9)	101 (38.8)	39 (15.0)	33 (12.7)	32 (12.3)	55 (21.3)
고 (378명)	141 (37.3)	287 (62.7)	105 (27.7)	123 (32.5)	105 (27.8)	45 (11.7)	144 (38.1)	54 (14.3)	38 (10.1)	55 (14.6)	94 (23.0)

2018년 현재 학생모집은 초등학교 30명(주야), 중학교 150명(주야), 고등학교 인문계 150명(주야), 고등학교 특성화(미용과) 60명(주야)으로 구분하여 총 390명을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성인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남일중고등학교의 대다수는 본교 출신의 학생이 많다. 모집정원 390명 대비 졸업생은 평균 330명 정도로 80~85% 정도의 졸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초·중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진학률은 전문대 이상 학교에 90%가 진학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학진학자는 총 136명으로 집계되었다.

다) 학교운영의 특성

■ 초·중·고의 통합교육 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017년 전국 총 52개 시설 중 단지 4~5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의 남일초중고등학교와 임실의 인화초중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일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교출신의 학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 정원을 충족하는 일이 비교적 용이하다. 초·중·고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글을 잘 몰라 부끄러워하는 학습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용기를 갖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학교를 권하거나 독려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한다. 또한 본교 출신의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이 비교적 용이해지는 등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 주야간반과 특성화 과정 운영

2004년 설립 당시 학력인정 석산중고등학교로 출발하여 2006년에는 초등학교 1학급을 인가받아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용학과 4학급을 인가받아 학력인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학생모집과 운영은 주간과 야간반으로 모집하고 2년 6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남일초중고등학교는 학교 기능다각화를 통해 꾸준히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학교운동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학교반, 초등학교반 병설운영, 농번기를 이용한 찾아가는 순회학급운영, 근로자를 위한 학점은행 대학 등을 설치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 학교운영 인력

남일초중고등학교 교직원 현황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각 1명, 부장교사 2명, 정교사 2명, 강사 29명, 행정직 3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었다. 남일초중고등학교는 타 학교와 달리 학교운영 인력에 퇴직교장과 교사들 참여가 높다. 현재 교장, 교감과 행정실장이 모두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고 부장교사와 정교사가 각각 2명씩 상근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타 학교와 다른 점이다.

2) 군산시 평화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시간경제적 제약 등으로 학교 교육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 성인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소외된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을 토대로 2000년 군산청학중학교를 설립하였다. 2003년 군산 YWCA가 군산청학중학교를 인수하면서 군산YWCA부설 군산평화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군산평화고등학교 신축교사를 준공 완료하여 2004년에 군산평화고등학교 2년제 인가를 받았다.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독서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2015년에 평화중고등학교 1층에 ‘평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한글반 2학급,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출발한 학교는 2006년 제1회 졸업생(중78명, 고43명)을 배출하였고 2018년 중학교는 제16회 34명, 고등학교는 제13회 50명을 졸업시켜 당해 연도 총 84명이 졸업하였으며 누적 졸업생은 총 1,362명이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2018년 기준, 군산평화중고등학교는 총 192명이 재학 중에 있다. 각 학교별 학생 수는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117명으로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학습자의 연령 특성으로는 중학교 경우는 60대 이상이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50대와 60대가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평균연령은 57세로 비교적 다른 학력인정학교 학습자의 평균연령보다 젊다. 이는 평화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016년부터 위탁 대안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이 26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평화중고등학교는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자 학습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남자 성인학습자는 생업과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다른 학력인정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성학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1〉 성별, 연령별, 과정별 평화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중학교(75명)								고등학교(117명)									
연령				성별		주간/야간		연령						성별		주간/야간	
50 미만	50 대	60 대	70 이상	남	여	주	야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남	여	주	야
3	24	45	2	9	66	46	29	10	16	7	7	40	37	22	95	60	57

다) 학교운영의 특성

■ 위탁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평화중고등학교는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인근 경찰서 의뢰를 계기로 위탁교육 학생을 받아들이면서 학교의 활력을 찾고 있다. 위탁 대안교육기관이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학습 부적응,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적을 유보한 뒤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할 경우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식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산평화중고등학교는 2018년 고등학교에서만 위탁학생을 12명 받아들여 교육 중에 있다. 이들 학생은 부모와 같은 성인들 사이에서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학생과 학교 측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학과의 MOU를 통한 상생

평화중고등학교 바로 이웃한 곳에는 군산 서해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평화중고등학교의 만학도들은 대학에 대한 열망도 커서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군산평화중고등학교와 서해대학은 MOU를 통해 진학상담과 학생입학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

3) 임실군 인화초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2007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문을 연 임실초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4년제, 중·고등학교는 2년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제1회 중학교 32명, 고등학교 33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2017년 초등학교 7회 중·고등학교 9회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2012년 공익재단법인 인화설립을 거쳐 2013년 교명을 인화로 변경하였다. 2017년 초등학교는 제7회 26명, 중학교는 제9회 26명, 고등학교는 36명을 졸업시켜 당해 연도 총 88명이 졸업하였으며 누적 졸업생은 초등 158명, 중등 241명, 고등 280명으로 총 679명이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2018년 기준, 임실 인화초중고등학교는 총 209명이 재학 중에 있다. 전체 학생수는 초등 117명, 중학생 48명, 고등학생 44명으로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부분의 초·중·고 통합과정에서는 본교출신이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화 중·고등학교는 50% 미만의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은 여성학습자가 95%에 육박하고 학급은 초등학교 4학급, 중학교 2학급, 고등학교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인 교원 15명, 사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화초중고등학교의 학생자원은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주로 동부권 학생들이 많다. 동부권 학습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스쿨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학교운영의 특성

■ 지리적 분포 다양한 학습수요자의 수용

임실 인화초중고등학교의 학습자 거주지는 주로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전라북도 동부권으로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학습자의 거주지 분포가 넓기 때문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쿨버스 운영은 학습자에게는 편리성을, 학교 측에서는 학생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동부권은 학력인정교육기관의 잠재적 수요

자에 해당하는 미진학 학력자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인프라와 문해교육 기관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화초등학교 초등학습자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학교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나. 타 지역 학력인정교육기관 운영 사례

1) 서울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2000년에 성인여성을 위한 학력인정 2년제 학교로 지정받았으나 학교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52년 야학으로 시작하였다. 1952년 야학설립자인 이선재 교장이 1963년 일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근로여성을 위한 무상학교로 일성일요학교를 운영(1978~1988)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성주부반(양원주부반으로 개명)을 양원초등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양원초등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5년 국내 최초로 성인대상 4년제 학력인정 초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올해까지 2천 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55년 동안 비문해자 및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양원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단법인·학교법인에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내주는데 2007년 이전 설립된 시설은 설립자가 물러날 경우 학교운영자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법인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금의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2000년에 성인여성을 위한 학력인정 2년제 학교로 인가받아 운영 중에 있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2018년 기준, 서울시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총 985명이 재학 중에 있다. 각 학교별 학생 수는 중학교 주간 280명, 야간 272명, 고등학교 주간 233명, 야간 160명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고 야간보다는 주간이 많다. 한편 양원초등학교와 양원주부학교가 2016년 졸업생을 끝으로 학생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정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웠던 일성여자중고등학교로서는 향후 학생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초·중·고등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원초등학교와 주부학교 및 본교 출신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양원초등학교 210명과 양원주부학교 405명 등 총 615명이 졸업하였고 이 가운데 약 50%가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진학을 하였으

며 중학교의 2/3 이상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표 2-22〉 학년별, 과정별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계
	중	고	중	고	
오전	160	113	160	120	553
오후	160	80	112	80	432
소계	320	193	272	200	985
합계	513		472		985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2012년 이래 대학 진학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고등학교 졸업생 208명 가운데 208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였으며 이 가운데 4년제는 20명(9.6%). 2년제는 188명(90.4%)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원 현황은 교장1, 부장7, 교사 22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학교운영의 특성

■ 학습자 고령화에 따른 눈높이 교육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학습자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과활동에 수요자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정규 체육과목에서는 주로 댄스나 생활 체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중앙치매센터와 MOU를 맺고 치매예방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통해 일성여자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양원지역봉사회가 지역사회 기여와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 동아리활동 활성화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현재 10개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홍보수단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생모집 시기에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방송매체에 홍보함으로써 학생모집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부천시 진영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진영중고등학교는 1982년에 부천새마을중고등학교로 개교하여 1985년 진영실업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듬해 1986년에 교육부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9학급, 야간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어 1986년에는 주·야간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1986년에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18학급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1988년에는 전자과 18학급, 상업과 12학급으로 고등학교 학급을 대폭 확대 증설하였다.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4층에서 5층, 현재의 6층으로까지 증축하여 전자과 24학급, 정보처리과 12학급 등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 1996년에 진영실업학교에서 진영실업고등학교로 1997년에는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8년에는 진영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년에 2년제 과정(1년 3학기제)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2001년에 피부미용과를 신설하였다. 1982년에 설립하여 중학교는 총 33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2,248명, 고등학교는 총 33회 졸업생 배출에 누적 졸업생 10,946명으로 진영중고등학교는 82년부터 18년 2월까지 총 13,194명의 학생에게 학력을 부여하였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부천의 진영중고등학교는 3년제 고등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 2년제 중학교를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 중에 있다.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총 971명으로 고등학교는 735명, 중학교는 236명에 해당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주간에서는 남성학습자가, 야간에서는 여성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중학교의 경우는 남학생은 야간에 14명으로 소수가 재학 중에 있고 대다수는 여성 학습자이다.

진영고등학교에서는 자동차과, 미용예술과, 경영정보과, 쇼핑물창업과 등 4개의 특성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 여학생은 미용예술과에 남학생은 비교적 모든 학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미용예술과와 자동차과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표 2-23〉 성별, 과정별 진영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분	주야	학기제	남	여	학생 수	계
고등학교	주간	2학기제	224	72	296	735
	야간	3학기제	50	389	439	
중학교	주간	3학기제	-	160	160	236
	야간	3학기제	14	62	76	
총 학생 수			288	683	971	971

연령별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45세 이상(380명)이 5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6~20세의 청소년이 333명으로 45.3%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습 부적응, 중도 탈락, 경제적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를 포기한 청소년들의 비중이 높고 다른 학력인정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24〉 연령별 진영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학생 수	연령별 학생현황(2018. 3. 고등학교 기준)						
	16세 미만	16-20세	21-25세	26-35세	36-45세	45세 이상	계
735	0	333	7	5	10	380	735

2018년 기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4년제 26명, 2년제 96명으로 총 122명이 진학하였고 학과별 자격증 취득율도 자동차학과, 경영정보과, 미용예술과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학교운영의 특성

■ 배우인접도시의 수요자 풀 확보

진영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부천은 인구 87만 명에 인천, 시흥, 김포, 안산 등의 4개의 인접도시를 배후로 하고 있어 수요자 풀이 충분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까지 전철로 40분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습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학생정원 모집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물론 진영중고등학교도 학력의 보편화와 고도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학습수요자의 감소라는 주변 여건과 교육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운영 어려움은 전국과 공통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지리적 접근성이 학교운영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으로 경쟁력 확보

진영중고등학교는 학교 출발부터가 실업학교로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향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자동차과, 미용예술과, 경영정보과, 쇼핑물창업과 등 다양한 특성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생업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주야간의 운영도 학습자들에게는 학교선택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력인정학교와는 달리 남학생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목포시 제일정보중고등학교

가) 학교 설립배경과 연혁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1961년 목포 성심학원을 설립하여 1963년 목포향토중학원으로 개명을 한 뒤 목포경찰서 직업소년학교를 병설 운영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목포향토중학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1973년 전남교육위원회 소속 불우청소년을 위한 3년제 기술계 학원을 인가받았으며 1985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등록 사회교육시설 목포향토학교를 승인 받고 1986년 향토중학원 마지막회 졸업을 통해 총 3,7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같은 해인 1986년에 문교부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목포향토(중고등학교)를 인가받고 2000년에 전라남도교육감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199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1년 3학기제의 실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2018년 제 33회 졸업생을 총 499명(중199명, 고300명) 배출하였다.

나) 학생현황 및 학습자 특성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중·고 모두 1년 3학기 2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총 971명으로 고등학교는 605명, 중학교는 366명에 해당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모두 여성학습자가 많고 중학교는 77.8% 고등학교는 70.1%가 여성학습자이다. 성인학습자들의 직업별 분포에 대한 학교자체 분석에 의하면 전체 학생 총 971명 가운데 전업주부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업 150명, 서비스업 142명, 상업 106명이었으며 회사원도 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성별·학년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소계	
학급 수		4	5	9	7	6	13	22
학생 수	남	45	36	81	93	88	181	262
	여	154	131	285	207	217	424	709
	계	199	167	366	300	305	605	971

연령별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50대 성인학습자가 442명으로 전체 학생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60대가 3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대 미만의 학생은 129명으로 전체 학생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6〉 연령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2018년)

(단위 : 명)

학생 수	연령별 학생현황(2018. 3. 기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중학교	1	5	24	157	154	25	366
고등학교	9	22	68	285	190	31	605
계	10	27	92	442	344	56	971

다) 학교운영의 특성

■ 특성화 및 1년 3학기제 운영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과 직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무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그 원인을 전국 최초의 1년 3학기 운영 시범학교로서의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 학교운영이 가능한데서 찾고 있다. 대부분 수업이 오전이나 이른 시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일·가정 또는 일·학업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로서 직업과의 연계성이나 현장경험 교육이 가능한 측면에서도 다양한 수요자를 학생자원으로 창출하고 있다.

■ 광주·전남 학력인정 거점학교로서 경쟁력 확보

보편적으로 학력소외계층의 다수가 분포하는 지역으로는 전남과 전북을 들 수 있다. 광주전남은 저학력 또는 미진학자 인구대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가 매우 적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2018년 현재 광주전남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단 두 곳만이 운영 중에 있다. 광주 진명중학교는 폐교되었으며 홍지중고등학교는 별교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있다. 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거점학교로서의 지속적인 학생자원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북과 비교하여 볼 때 광주전남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수가 많은 편이다. 중학교는 광주전남이 3개소 전북은 1개소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광주전남 4개소이고 전북은 2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수요와 인터넷 수업으로 정보화 학업습득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보완적 기능으로서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존재한다.

4. 소결

해방 이후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기까지 학교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대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전쟁과 가난, 질병, 학교부적응 등으로 못 배운 교육소외계층의 ‘한’을 풀어주고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2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 학력의 보편화와 고도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학교와 학생 수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성인문해교육 중요성 인식 확산과 평생교육법 논의, 일부 학력인정시설의 부실과 부정운영에 대한 법적 체제 미흡과 그로 인한 시설의 법인화 규정 등으로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학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개교 가운데 진북고등학교는 폐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백제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11명에 지나지 않는 등 학교와 학생 수 감소로 사실상 4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학력인정이 필요한 미진학 저학력의 성인학습자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인구층을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잠재 수요자라고 예상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소외계층이 두터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50세 이상의 전북 성인여성 교육연수는 2015년 7.5년으로 전국 여성의 평균교육연수 8.9년에 비교하여 1.4년 낮고 전북 남성 10.6년과는 3.1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시기를 놓쳐버린 여성은 전북에 대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주로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임실 등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인구대비 저학력 미진학 성인학습자가 많은 군단위는 교육 기회 및 접근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4년 이후 학력인정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지원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면서 각 지역별로 교사의 인건비 보조 등은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할 때 교사의 처우나 복지 지원,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은 지자체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학생자원의 80%를 넘는 여성 성인학습자들은 과거 가부

장적 문화 아래서 교육기회의 배제와 차별, 소외 현상을 겪고 그 결과 오늘날의 여성 빈곤, 직업과 사회활동에서의 성별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성인여성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기회 제공이 더욱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학생 수 감소와 학교 법인화에 따른 학교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타 지자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기능다각화와 홍보전략,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학생자원을 확보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병설운영, 2년제, 특성화, 주·야간반 등 다각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취업과 상급학교(대학교 진학)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의 MOU를 통한 장학금지원 지원,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교소개와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근교사를 둔 학교의 경우는 교사-학생의 관계형성, 교사의 직업몰입도와 기여도 등에서 상근교사가 없는 학교와는 달리 학생모집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임용과 처우 등은 학교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발전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Jeonbuk Institute

-
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기본현황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특성 및 현안과제
 4. 소결

제3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기본 현황

가. 설립목적과 학교운영 경과²⁾

1) 설립배경 및 목적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성인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학력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1998년 3월 9일 설립하였다(여성백서, 2005).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일제침략과 전쟁, 가난과 질병, 가부장적 문화로 성차별을 받아 취학하지 못한 여성들, 일탈행동이나 학업부진 등으로 학교중도탈락이나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학습할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과 시설·설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평생교육법」 제 31조에 따라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못 배운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개인 독지가들에 의해 설립되고 이를 지자체의 교육감이 인가하는 형태인데 반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설립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학교에 해당한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립자인 당시 유종근 도지사는 ‘여자이기에, 여자가 배워서 무엇하냐는 편견과 나보다는 장남, 남동생, 오빠를 우선시 했던 가부장 풍토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학교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 본 절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www.jbwss.sc.kr>)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외에도 학력위주의 한국사회 풍토와 지식정보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여성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의 하나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 학교운영 경과

1997년 9월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정 인가를 받은 후 그 해 3월에 전북여성회관에 동지를 틀었다가 2002년 현 위치로 학교를 이전하였으며 2003년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에서 현 명칭인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학교명을 개칭하였다.

2010년 10회 졸업생까지 총 754명의 졸업생(중학교 442명, 고등학교 384명)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 534명(고등학교 328명, 대학교 206명)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였다. 2018년 현재 중학교 3년제 주간 정규과정 및 고등학교 3년제 주간 정규과정을 운영하며, 인가규모는 6학급 180명(중·고 학년당 각 1학급씩)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이 일반적으로 1년 3학기 2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인가 당시부터 중학교 3년제 주간 정규과정 및 고등학교 3년제 주간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여성들에게 학교와 학창시절의 꿈과 소망을 실현시키고 배움의 충실한 시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3년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중고등학교 인가규모는 6학급 240명에서 출발하였으나 2018년 현재는 인가규모는 6학급 180명(중·고 학년 당 각 1학급씩)이다.

나. 시설규모 및 예산

1) 시설규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 시설은 부지 10,372㎡이며 교장실 1개, 교무실 1개, 행정실 1개, 반교실 6개, 특별실 2개, 합동강당 1개, 가사실습실 1개, 식당 1개, 다목적실 1개, 기타시설 등이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최고의 장점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우수성을 꼽을 수 있다.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개인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과감한 시설투자가 어렵고 법으로(평생교육법 제17조(지도및지원) 제1항) 학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권한이 미비하여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넓은 부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 주요시설 규모

(단위 : ㎡)

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실	전산실	강당	음악실	도서실
2,314	28	53	66	694	79	424	86	86
	조리실	식당	휴게실	상담실	양호실	탈의실	다목적실	기타
	55	345	41	15	20	22	192	357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상담실



전산실



강당



음악실



도서실



양호실



휴게실



가사실습실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그림 3-1〉 주요시설 현황

2) 예산현황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연간 운영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보상금이 24.3%, 일반운영비 1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교사의 수당에 해당하는 예산이므로 전체예산의 74.9%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이 연간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년대비 전체예산은 약 8% 정도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3-2〉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고
	원	%	원	%		
계	1,031,230	100.0	949,652	100.0	+ 81,578	
인건비	521,637	50.6	482,330	50.8	+ 39,307	청사청소원, 구내식당 및 조경관리 인부임, 행정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일반 운영비	123,588	12.0	123,428	13.0	+ 160	학생모집 및 홍보, 운영물품 구입, 급량비 등
여비	15,000	1.5	15,000	1.6	0	학생인솔, 자료수집, 교사 워크숍 등
업무 추진비	8,195	0.8	8,890	0.9	- 695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25,560	2.5	11,040	1.2	+ 14,520	직급 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재료비	7,100	0.7	7,100	0.7	0	교과목 재료비, 특별활동 재료비
일반보상금	250,864	24.3	249,864	26.3	+ 1,000	자원봉사교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시설 및 부대비	54,076	5.2	35,000	3.7	+ 19,076	학교시설물보강, 노후시설물보수, 내진성능평가 등
자산취득비	25,210	2.4	17,000	1.8	+ 8,210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자료 : 전라북도세출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실태분석

가. 학생현황 및 변화추이

1) 시설규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에 개교한 후 2004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집정원을 각각 50명으로 하여 총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모집정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여 입학정원이 총 80명이었으며 2015년 이후 모집정원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0명으로 줄여 현재 매년 6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지원자 및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입생 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모집정원도 매년 채워지고 있다.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라북도 내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지원자 및 입학생 현황(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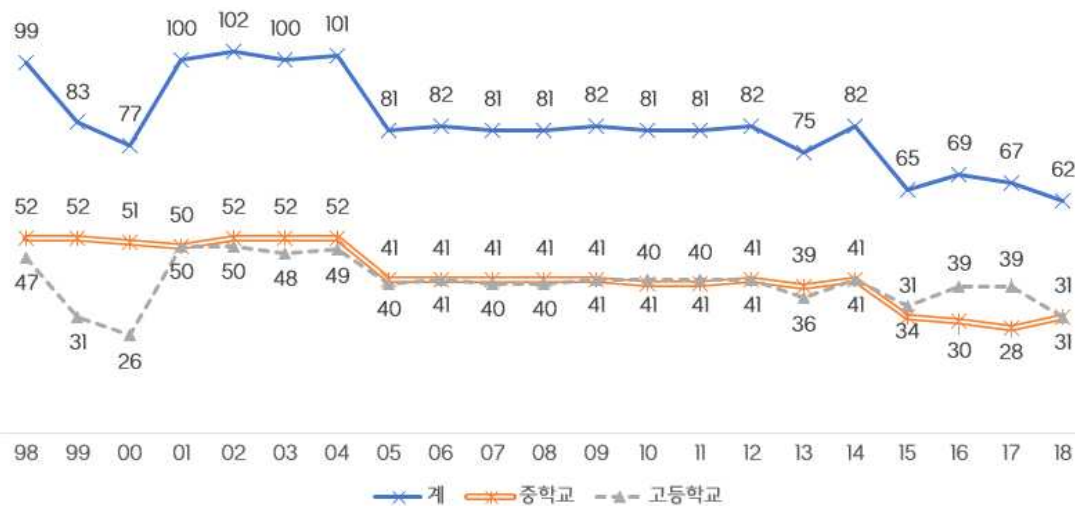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지 원 자			입 학 생			편 입
	계	중	고	계	중	고	
계	2,357	1,338	1,019	1,733	887	846	
제21기(18학년도)	76	39	37	62	31	31	고(2) 1
제20기(17학년도)	96	48	44	67	28	39	중(2)1,고(3)1
제19기(16학년도)	96	44	50	69	30	39	
제18기(15학년도)	111	59	52	65	31	34	
제17기(14학년도)	102	52	50	82	41	41	
제16기(13학년도)	104	57	47	75	39	36	
제15기(12학년도)	117	62	55	82	41	41	
제14기(11학년도)	113	64	49	81	40	41	
제13기(10학년도)	112	57	55	81	40	41	
제12기(09학년도)	125	68	57	82	41	41	
제11기(08학년도)	112	63	49	81	41	40	
제10기(07학년도)	109	51	58	81	41	40	
제 9기(06학년도)	114	68	46	82	41	41	
제 8기(05학년도)	116	72	44	81	41	40	
제 7기(04학년도)	119	61	58	101	52	49	
제 6기(03학년도)	117	63	54	100	52	48	

구 분	지 원 자			입 학 생			편 입
	계	중	고	계	중	고	
제 5기(02학년도)	117	67	50	102	52	50	
제 4기(01학년도)	123	67	56	100	50	50	
제 3기(00학년도)	116	86	30	77	51	26	
제 2기(99학년도)	122	91	31	83	52	31	
제 1기(98학년도)	146	99	47	99	52	47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자료.

(단위 : 명)



〈그림 3-2〉 입학생 현황

2) 학생자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특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연령별 재학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0~60대 연령층의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은 전체 학생 중 50~60대 비중이 80%가 넘었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 전체 학생의 75% 이상은 50~60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4년 ~ 2015년은 50대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이후로는 60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연령별 학생 구성비를 통하여 재학생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0대 이하 학생은 총 29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 40대 이하 학생은 총 4명으로 전체의 2.2%만을 차지하였다. 반면 70대 이상 학생은 2014년 15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70대 이상 학생 수는 36명으로 재학생의 19.7%가 70대 이상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연령별 재학생 현황(2014-2018)

(단위 : 명, 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227	119	108	212	106	106	199	91	108	193	81	112	183	79	104
20대	4	2	2	4	1	3	-	-	-	1	-	1	1	-	1
30대	3	1	2	4	1	3	1	-	1	1	-	1	2	-	2
40대	22	7	15	10	2	8	9	4	5	5	2	3	4	1	3
50대	106	60	46	89	40	49	78	34	44	67	33	34	53	25	28
60대	77	38	39	82	47	35	81	33	48	82	34	48	87	38	49
70대	15	11	4	23	15	8	29	19	10	34	11	23	31	13	18
80대	-	-	-	-	-	-	1	1	-	3	1	2	5	2	3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자료.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14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50대 후반 연령층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5〉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은 84.0%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40대와 50대에 해당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15.5%에 지나지 않아 14년 사이에 학습자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연령별 재학생 현황(2004)

(단위 : 명, 세)

구분		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245명	1	7	99	100	38
중	소계	124	0	1	47	60	16
	1	38	0	0	16	20	2
	2	47	0	1	20	18	8
	3	39	0	0	121	22	6
고	소계	121	1	6	52	40	22
	1	38	1	2	13	16	6
	2	44	0	4	23	11	6
	3	39	0	0	16	13	10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2005), 2005 전북여성백서

최근 5년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학생 227명 중 전주시 거주학생이 184명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82.1%, 2016년에는 79.9%, 2017년에는 80.8%, 2018년에는 81.4%로 재학생 중 대부분이 전주시에 거주하였다.

전주시를 제외하면 전주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익산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을 제외하면 두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이 15%를 넘지 못하였다. 최근 5년간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에 거주하는 재학생은 없었는데 정읍시의 경우 남일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무주, 장수, 순창 등 동부권은 임실의 인화초중고등학교가 학생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주시와의 지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6〉 지역별 재학생 현황(2014-2018)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중 학교	고등 학교
계	227	119	108	212	106	106	199	91	108	193	81	112	183	79	104
전주	184	98	86	174	90	84	159	75	84	156	69	87	149	68	81
군산	1	0	1	1	1	-	1	1	-	1	1	-	1	1	-
익산	16	7	9	14	3	11	15	3	12	11	3	8	9	2	7
정읍	-	-	-	-	-	-	-	-	-	1	-	1	-	-	-
남원	-	-	-	-	-	-	1	1	-	2	1	1	2	1	1
김제	3	1	2	3	2	1	1	1	-	1	1	-	1	1	-
완주	18	9	9	17	8	9	19	8	11	16	4	12	16	6	10
진안	-	-	-	-	-	-	-	-	-	1	1	-	2	-	2
무주	-	-	-	-	-	-	-	-	-	-	-	-	-	-	-
장수	-	-	-	-	-	-	-	-	-	-	-	-	-	-	-
임실	1	1	-	-	-	-	1	-	1	1	1	-	1	1	-
순창	-	-	-	-	-	-	-	-	-	-	-	-	-	-	-
고창	-	-	-	-	-	-	-	-	-	-	-	-	-	-	-
부안	4	3	1	3	2	1	2	2	-	3	-	3	3	-	3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자료.

3) 학생 배출 현황

1998년 이후 2018년까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배출한 졸업생의 누적합계는 총 1,320명으로 중학교 졸업생 689명, 고등학교 졸업생 631명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설립 이후 총 18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가운데 중학교 졸업자 689명 중 54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78.7%의 진학률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자 631명 중 375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59.4%의 진학률을 보였다. 한편, 2018년 기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87.0%로 23명 중 20명이 진학하였다.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36.4%로 33명 중 12명이 진학하였으며 2018년 대학진학률이 역대 진학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생(명)			상급학교 진학(명)					진학률(%)	
	계	중	고	계	고	대학			고등 학교	대학
						계	4년제	2년제		
계	1,320	689	631	917	542	375	107	268	78.7	59.4
제18회(2018)	56	23	33	32	20	12	2	10	87.0	36.4
제17회(2017)	70	35	35	44	29	15	3	12	82.9	42.9
제16회(2016)	70	36	34	51	26	25	8	17	72.2	73.5
제15회(2015)	74	39	35	54	28	26	7	19	71.8	74.3
제14회(2014)	79	40	39	57	29	28	6	22	72.5	71.8
제13회(2013)	73	36	37	51	26	25	5	20	72.2	67.6
제12회(2012)	72	38	34	48	28	20	4	16	73.7	88.2
제11회(2011)	72	32	40	46	28	18	2	16	87.5	45.0
제10회(2010)	74	36	38	59	28	31	4	27	77.8	81.6
제 9회(2009)	68	33	35	37	22	15	4	11	66.7	42.9
제 8회(2008)	68	35	33	42	20	22	4	18	57.1	66.7
제 7회(2007)	90	47	43	64	37	27	7	20	78.7	62.8
제 6회(2006)	78	39	39	51	32	19	7	12	82.1	48.7
제 5회(2005)	85	48	37	69	46	23	7	16	95.8	62.2
제 4회(2004)	74	40	34	57	30	27	9	18	75.0	79.4
제 3회(2003)	68	45	23	52	37	15	11	4	82.2	65.2
제 2회(2002)	71	45	26	56	46	10	6	4	100.0	38.5
제 1회(2001)	78	42	36	47	30	17	11	6	71.4	47.2

주 : 전체진학률 = (고등학교진학률+대학교진학률)/2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자료.

2018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5개 대학, 8개 학과로 진학하였으며 전 북도립여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심리상담과, 임상병리과, 아동복지과, 농학과, 국어국문학과, 교육학과, 문화교양학과, 중국어문학과 등으로 다양하다.

나. 교사현황

1) 교사의 자격과 선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장, 교학관리팀장 각 1명과 일반직 5명을 포함하여 행정지원 6명과 교사 23명 등 총 정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교사는 국어과 3명, 영어과 3명, 수학과 3명, 과학과 2명, 사회과 3명, 도덕과 1명, 한문과 1명, 음악과 1명, 미술과 1명, 체육과 2명, 컴퓨터과 1명, 기술가정과 1명, 일본어과 1명으로 총 23명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개교 당시 50명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0명으로, 2014년 이후 30명으로 계속하여 입학정원이 줄고 있으나 직원 및 교사는 개교당시와 비교하여 교사는 일본어 1명이 증원되었고 행정지원과는 8명에서 6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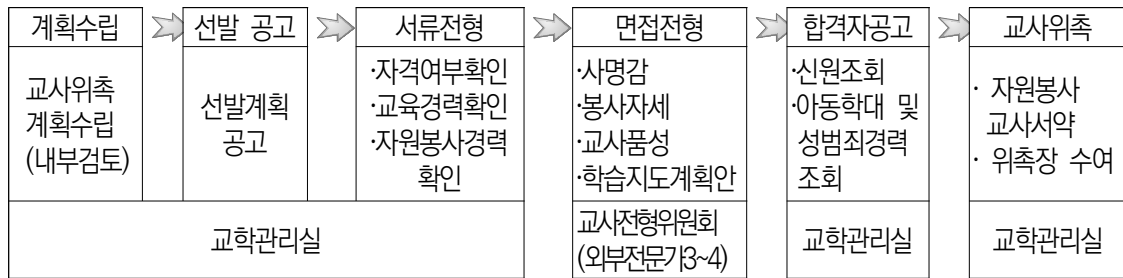
〈표 3-8〉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정원	교장	교학관리 팀장	일반직					자원봉사교사						
			소계	행정	간호	전산	녹지							
30	1	1	5	2	1	1	1							
소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한문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기술 가정	일본 어	
23	3	3	3	2	3	1	1	1	1	2	1	1	1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자격은 중등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 실기교사(예체능)로서 교사의 위촉은 도지사가 임명한다(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교사의 근무연령은 62세이며 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교사의 위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임용하고 있다.



〈그림 3-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위촉 과정

2015년부터 2017년 선발과목은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8년에는 결원교사만을 공개모집하고 결원 이외의 교사는 위촉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표 3-9〉 연도별 교사모집과 선발 현황

(단위 : 명)

연도	선발과목	서류지원자	서류합격	선발인원
2015	13	96	93	23
2016	13	73	72	23
2017	13	62	60	23
2018	5	17	16	5(결원교사 모집)

자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자료(201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모집과 선발 및 교사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교사들과 학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사제지간의 관계가 일반 학교와는 다르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연령이 높은 학습자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한 학기가 걸리며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수준을 파악하고 진도를 맞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생-교사와의 유대감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1년 단위의 계약과 선발은 학생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전북일보, 2013.2.21.).

2) 교사의 역할과 처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수업지도와 HR교사로서 학생들의 상담, 학교행사 협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학생들의 담임은 6명의 행정직원들이 각각 맡고 있으며 담임의 역할은 학생들의 출결관리, 학업성적관리, 학사운영관련 소식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이외의 학교운영 전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즉 관 운영의 특성상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학생수업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는 자원봉사 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공무원-교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크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수 수준은 정규학교에 비해 낮고 열악하지만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중고등 병설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양쪽 수업에 다 들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교원자격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임용고사를 통해 임용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하되 정규 교사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윤여각, 2004).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신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의 월 급여는 평균 80~85만원 정도이며 교사의 인건비는 총 23명의 교사 가운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13명(1인당 7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북도청에서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0〉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명)

지역	교사급여보조금	건강보건검진	비고
서울	115만원	지원	2018년 15만원 인상
경기	120만원	지원	2018년 30만원 인상
대전	130만원	-	2018년 20만원 인상
대구	80만원	지원	-
부산	100만원	지원	2018년 3만원 인상
경남	160만원	지원	2018년 10만원 인상
전북	70만원	없음	-
강원	85만원	-	-

다. 교육과정

1) 일반교과 교육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주간 정규학교와 같은 1년 2학기제(3년)를 운영 중이며 학사운영 역시 정규학교의 과목 및 시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이라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 학기별로 기본 과목 493시간, 창의적 체험 68시간으로 총 561시간을 운영한다. 전체 중학교 수업 시수는 기본교과 과목 2,958시간, 창의적 체험 408시간으로 총 3,366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의 시수가 가장 많으며 사회, 역사,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과학, 기술과정 등 중학교 교과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선택/교양 과목은 한문, 컴퓨터, 진로 과목이 진행되며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진행된다.

〈표 3-11〉 중학교 학년별 과목별 수업 시수(2018)

(단위 : 시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68	68	68	68	68	68	408
영어		68	68	68	68	68	68	408
수학		68	68	68	68	68	68	408
사회/역사/ 도덕	사회	34	34	34	34	-	-	136
	역사	-	-	34	34	51	51	170
	도덕	34	34	17	17	17	17	136
체육		51	51	34	34	51	51	272
예술	음악	17	17	17	28	34	34	136
	미술	34	34	-	34	-	34	136
과학/ 기술가정/ 정보	과학	51	51	51	51	34	34	272
	기술가정	34	34	51	51	34	34	538
	정보	-	34	34	-	34	-	102
선택/교양	한문	17	17	17	17	17	17	102
	컴퓨터	-	34	34	-	17	17	102
	진로	17	-	-	-	-	17	34
소계		493	493	493	493	493	493	2,958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	34	34	34	34	34	34	204
	자율활동	17	17	17	17	17	17	102
	봉사활동	8	9	8	9	8	9	51
	진로활동	9	8	9	8	9	8	51
소계		68	68	68	68	68	68	408
총수업 시간수		561	561	561	561	561	561	3,366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고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교과목은 기초, 탐구, 체육, 예능, 생활, 창의적 체험으로 구분된다. 전체 중학교 수업 시수는 기본교과 과목 2,958시간, 창의적 체험 408시간으로 총 3,366시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운영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경험이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 즉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은 일반 정규학교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시간 수, 교과서 및 교재 등에 대해 정규학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습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정표, 2011).

〈표 3-12〉 고등학교 학년별 과목별 수업 시수(2018)

(단위 : 시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68	68	-	-	-	-	136
		독서와문법	-	-	68	68	-	-	136
		문학Ⅰ	-	-	-	-	68	68	136
	수학	수학	68	68	-	-	-	-	136
		수학Ⅱ	-	-	68	68	-	-	136
		미적분	-	-	-	-	68	68	136
	외국어	영어	68	68	-	-	-	-	136
		영어Ⅰ	-	-	68	68	-	-	136
		영어Ⅱ	-	-	-	-	68	68	136
탐구	사회	생활과윤리	-	-	-	-	34	34	68
		사회	51	51	-	-	-	-	102
		한국사	51	51	-	-	-	-	102
		법과정치	-	-	-	-	34	34	68
		세계사	-	-	34	34	-	-	68
		한국지리	-	-	34	34	-	-	68
	과학	과학	51	51	-	-	-	-	102
		과학탐구실험	17	17	-	-	-	-	34
		생명과학Ⅰ	-	-	34	34	34	34	136
체육 예능	체육	운동과건강생활	34	34	34	34	34	34	204
	음악미술	음악과 생활	17	17	17	17	17	17	102
		미술창작	34	-	17	17	17	17	102
생활 (16)	제2외국어	한문Ⅰ	17	17	34	34	-	-	102
		한문Ⅱ	-	-	-	-	34	34	68
		일본어Ⅰ / 일본어Ⅱ	17	17	51	51	51	51	238
	교양	컴퓨터일반	-	34	34	34	34	34	170
교과 소계			493	493	493	493	493	493	2958
창의적체험			68	68	68	68	68	68	408
총 이수단위			561	561	561	561	561	561	3,366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2) 특별활동 교육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① 실력있는 여성, ② 변화하는 여성, ③ 함께하는 여성을 목표로 노력중심의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일반교과교육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특별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별활동은 ① 자치 및 자율활동, ② 적응활동, ③ 계발 및 동아리 활동, ④ 봉사활동, ⑤ 행사활동, ⑥ 진로활동으로 편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특별활동은 각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69시간 이상하며 5개 영역(⑥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으로 진행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표 3-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내용

구분	영역	활동내용
자치 및 자율활동	협의활동	· 학급회와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 학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 협의 ·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협의
	역할분담활동	· 1인 1역 활동 · 학급부서활동
	민주시민활동	· 애향활동 및 토론회
적응활동	기본생활습관 형성활동	· 예절, 질서, 청결 · 절제, 근검절약, 자립 등
	친교활동	· 축하 및 위로
	상담활동	· 학습, 교우, 건강 · 여가활동, 개인문제 상담 등
	진로활동	·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진로인식 등
	정체성확립활동	· 자기 이해 및 심성계발
	그 밖의 필요한 활동	· 학교교육의 특색
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	13과목 운영	· 독서토론, 풍물(좌도), 합창, 난타, 민요, 영어회화초급, 수채화, 기타, 워드프로세서, 한자급수, 한식조리기능사, 간병사, 풍선아트
봉사활동	일손돕기 활동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위문활동	·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위문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캠페인 · 학교주변정화 및 환경보전 캠페인
	자선구호활동	· 불우이웃돕기
	환경시설보호활동	· 깨끗한 환경만들기, 자연 및 문화재보호
	그 밖의 필요한 활동	· 교내 일손돕기
행사활동	의식행사활동	· 경축일, 기념일, 입학식, 졸업식
	학예행사활동	· 학습발표회, 실기대회(백일장, 사생대회)
	보건체육행사활동	· 예방접종, 춘추체육대회
	수련활동	· 현장테마학습, 수련회, 극기훈련, MT
	그밖의 필요한 활동	· 이주여성 문화교류

자료 :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https://www.jbwss.sc.kr>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이나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로 정규학교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들 처럼 50~6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시설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이나 교육기회를 경험한 학습자들이 많으므로 특별 활동은 학습자들의 유대감과 학교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학교체험과 행사활동에 그 내용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13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활동은 특별활동의 중심 활동이 되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에서 부족한 영역으로는 학습보충적인 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성인들은 높은 학습 열의를 가지고는 있으나 학습능력이 저하되거나 부진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학습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능이 부족하다. 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향하는 다른 학력 인정시설과 구별되고 있으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생 수 감소라는 당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① 실력있는 여성, ② 변화하는 여성, ③ 함께하는 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 등을 교양과목으로 수립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특성 및 현안과제

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특성

1)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

본 장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설립형태면에서 크게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되고 법인 안에는 학교법인, 공익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구분되며 비법인 안에는 개인설치와 지자체 설치로 구분된다.

〈표 3-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

구분	일반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
설립형태	· 법인 (학교법인, 공익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단법인) · 비법인 (개인설치, 지자체 설치)	· 행·재정 지원미흡 · 회계불투명 · 법인화 전환 어려움으로 최근 폐쇄학교 증가
설립목적	· 정규학교에 준하는 방식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	· 학력인정,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기능수행
교사	상근교사	· 교사급여 및 처우 취약으로 이직률 높음
학생구성	청소년, 성인, 남녀공학	·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질적 집단
학생선발	중·고등학교 병설, 주·야간모집	· 다양한 학생선발 기회와 수요자의 욕구부합 · 직업과 학업병행 가능
교육과정	· 중학교: 성인 1년 3학기제 · 고등학교: 청소년 1년 2학기제, 성인 1년 3학기제	· 상급학교 및 직업교육 진입기회 단축 · 방학이 없어 여가나 생활여유 부족 · 교육의 충실성보다는 졸업장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우려
교육시설	열악함	· 학교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보유한 학교는 20% 정도 ·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시설투자 취약함
학사제도	특성화고, 실업고	· 현장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격취득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다수는 비법인의 개인설치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체 58개교 중 법인은 10개교로 전체 시설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설의 주체를 법인화로 권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으로의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법인화로의 검토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재무회계 등의 불투명으로 인해 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최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지위승계 및 설립자 유고 시 학교관리 등의 문제와 법인화 수용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비법인 개인설치 시설들이 폐쇄 수순 등을 밟고 있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설립의 목적은 정규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시기를 놓쳤거나 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 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교육기능은 학력인정,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는 모두 증등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사들이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수 수준이 정규학교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도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윤여각, 2004).

학생자원은 성인과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령기에 학업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와 일반 학교 적응에 실패하여 중도탈락하거나 학습부진으로 정규학교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생자원의 특성은 일반학교와 달리 매우 복잡적이며 다양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선발은 중·고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고 수요자의 니드에 부합하며 야간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생모집 기회가 다양할수록 학생 수는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중학과정은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1년 3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경우 1년 2학기 3년 과정, 성인은 1년 3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윤여각, 2004). 그러나 2년제로 운영되는 경우, 상급학교와 직업교육 진입 기회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을 따라갈 수 없고 수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으며 방학도 없이 진행되는 수업으로 일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대다수가 자동차나 정보화, 골프, 미용학교처럼 특성화나 실업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자격취득이나 현장 전문성함양까지 연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특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속하지만 운영주체와 설립배경이 다른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도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3-1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성

구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성
설립형태	· 지자체 설치 (비법인)	· 행재정의 안정적 지원 · 회계투명
설립목적	· 정규학교에 준하는 방식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	· 학력인정 · 가부장문화에서 교육기회에서 배제, 차별, 소외되거나 희생된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제공
교사	자원봉사 (1년 단위 계약)	· 교사신분 불안정으로 조직기여도, 몰입도, 소속감 미흡
학생구성	성인여성	· 동질감, 졸업 후 지속적 유대관계
학생선발	중·고등학교 병설, 야간 없음	· 다양한 학생선발 제한적 · 직업과 학업병행 불가
교육과정	1년 2학기제	· 교육과정의 내실화 · 기초지식이 부족한 성인대상의 맞춤형 교육 가능
교육시설	양호	· 학교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보유 · 기존의 관공서 건물을 사용, 설비 양호하고 시설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사제도	인문계	· 실업고나 특성화고가 아니라 직업연계 가능성 낮음 · 대학진학 등을 위한 준비 가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체 44개교 중 43개교 모두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이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만이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학교에 해당한다. 설립형태와 설립

배경, 목적 등에 있어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다른 학력인정학교시설과 뚜렷한 차이점과 특징을 갖고 있다.

설립목적과 배경에 있어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학력인정을 위한 대안학교에 해당하지만, 과거 경제적 빈곤과 가부장적 풍토 때문에 교육기회에서 차별, 배제, 소외 되어온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여성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한 여성을 위한 학교이다.

교사는 이원화되어 공무원이 답임을 맡고 있고 위촉직 과목담당교사가 HR교사로 학생상담과 지도를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교사는 1년 단위 위촉직으로 매년 교사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교사의 신분은 조직의 기여도나 몰입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은 대부분 성인여성들로 과거 배우지 못한 ‘한’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동일한 성(여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졸업생-재학생의 유대나 교류가 학교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는 구분이 된다.

학생선발은 중고등학교 병설로 운영이 되고 야간 등이 없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고 직업-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과정은 1년 2학기제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1년 3학기 2년제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 점과도 차별화 되고 있다. 1년 2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성인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시설은 지자체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나 여건, 규모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보다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하다.

학사제도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여 자격취득이나 현장 전문성 함양까지 연계하는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현안과제

1) 교육수요자 및 입학생 감소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미진학자의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임을 인구통계분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수 변화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요자의 감소는 학력의 보편화와 고도화로 인하여 고졸미만의 학력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잠재적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미진학 성인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학력인정교육시설이나 교육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70년을 기준시점으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의 고졸미만자의 추계인구는 여성의 경우 매 5년마다 32~33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970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전북의 고졸미만 여성학력자의 비율은 44.7%로 전국의 44.0%보다 약간 높지만 감소추이는 전국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고졸미만의 성인여성 학력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5년에는 전국 21.5% 전북 30.1%, 2030년 예측으로는 전국 17.0% 전북 25.1%로 전국 평균보다 약 8.1%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미만의 성인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학력인정교육시설의 입학생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전북의 고졸미만의 학력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다. 따라서 전북의 고령화율이 전국보다 빠르고 교육 잠재수요자가 대부분 60세 이후의 고령인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입학생 수요는 통계 숫자상으로는 보장된다고 하여도 실제 입학 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잠재학생수요자 감소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표 2-8>에 의하면 2030년에는 전주는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고졸미만의 여성학력자는 46,114명이고 시단위와 군단위 가운데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동부권 역의 5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에서는 2천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요자 감소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요자의 감소는 이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생 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8년 개교 당시에는 모집정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50명씩이었으나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모집정원을 40명으로 변경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모집정원이 각각 30명씩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학력의 고도화·보편화로 인한 미진학 잠재수요자의 감소, 수요자의 고령화 등으로 매년 입학지원 신청자의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의 입학정원 30명을 학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원으로 판단한다면 향후 학생모집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수요자의 고령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생의 평균 연령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와 <표 3-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현재 재학생의 75% 이상은 50대 이상이지만 ‘2005 전북여성백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재학생 총 245명 가운데 43.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50대 미만에 해당하였다.

학습자의 고령화 추이는 <표 3-4>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년 이후부터 70대 연령층의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0대 학습자 22명이 계속 줄어들어 2018년에는 단 4명에 불과하다. 반면 2016년부터는 80대 연령층 학습자 1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5명까지 고령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고령학습자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립여성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이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각각 99.9%, 9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인정교육기관의 잠재 수요자 풀(pool)은 과거 가난과 전쟁,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여성 교육기회 배제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연령집단이 실제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인학습자의 고령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의 고령화로 인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은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탈락, 학교시설 접근성의 문제, 교과목 적응과 이해, 평가 등에서의 부진함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 문제까지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3) 도시권 중심의 학생모집과 학생자원 편중

최근 5년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거주지역을 살펴 본 <표 3-6>에 의하면 재학생의 대부분이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재학생 거주지역 분포는 80% 이상이 전주이고 이어서 완주와 익산시를 합한 비중이 1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력인정 학교로서 예산 지원이 안정적인 면은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고졸미만의 학력자가 주로 군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주와 완주라는 특정지역의 교육수요자의 니드만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모두 6개소가 있고 이 가운데 진북고등학교와 백제고등학교는 수요자가 학교부적응이나 일탈로 인한 학교 중도포기자나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력인정교육기관과 다소 구별되어진다. 나머지 4개 중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의 학교는 정읍, 임실, 군산 등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읍시의 경우는 재학생의 거주지가 주로 정읍과 김제, 전주와 이웃인접도시 곡성 등이며 임실의 경우는 임실, 순창, 남원 등에 해당하고 군산시는 익산, 군산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으로 이 지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전북지역 여성들의 학력신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수요자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교사의 이원화와 신분 불안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는 이원화되어 공무원이 답임을 맡고 있고 위촉직 과목담당교사가 HR교사로 학생상담과 지도를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답임을 맡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답임으로서 지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공무원이 답임을 맡을 수도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답임은 성인학습자를 지도해

야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높은 자질이 요구되어진다. 즉 뒤늦게 공부하는 성인학생들이라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해야 하는가? 또한 학력인정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인대상의 평생교육에 차원에서의 학생접근 방법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순환보직 공무원이 이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학교운영 요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 단위의 위촉교사의 취약한 신분과 이에 대한 처우는 학교 운영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대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교사를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로 인해 학생지도나 몰입도, 학교에 대한 기여와 봉사 등이 저조하거나 취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상급학교 진학률 감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표 2-18>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7%이고 대학 진학률은 59.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북도립여성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졸업과 함께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진학하고 있다. 다만 대학 진학률은 입학초기 47.2%에서 2012년 88.2%까지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습자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만학도의 높은 학구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타 시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학 진학률을 살펴 본 결과, 부천의 진영중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고 도내의 군산평화중고등학교도 75%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학습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매년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교육 수요자의 욕구분석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운영실태, 특성 및 현안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교육의 3요소에 해당하는 학생, 교사,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로서 재정·행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 개인 독지가에 의해 설립, 운영됨으로써 파생되는 재정·회계의 불투명과 이로 인한 정부의 법인화 권유 및 규정에 의한 부담으로 최근 잇따른 폐쇄 절차에 들어간 여타의 학교와 매우 대비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력인정학교시설과 동일하게 교육환경의 여건과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입학생 50명에서 30명까지 감소하였기 때문에 향후 학교운명을 위한 지속가능한 규모 산정이 필요하다. 학생 수는 40%로 줄었지만 학교운영 예산은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원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전주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고졸미만의 성인여성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전북지역이 높은 편이며 여전히 교육소외계층 인구는 전북이 높기 때문에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잠재수요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고령화도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계획 수립도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사의 문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타의 학력인정 학교시설도 교사의 처우나 신분이 불안정하고 열악하지만 이러한 공통된 문제점 이외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순환보직의 공무원이 주담임을 맡고 학생상담과 지도의 HR교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성인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적 측면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며 이는 학생자원의 지속적인 창출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통해 교원을 충족하는 방식은 교사의

안정성과 학교에 대한 헌신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의 임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는 드물게 1년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학력인정시설이 1년 3학기 2년제로 운영하는 점과는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 시키는 단축·통합형으로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결시키는 1년 3학기제는 나름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습이 부진하고 고령화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1년 2학기 3년제가 갖는 장점도 있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계속 운영할 것인지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일반 학력인정학교시설과는 학교설립 형태, 설립목적이 매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며 과거 가부장적 문화아래서 여성이 교육기회에서 배제, 차별, 소외되었기 때문에 교육 소외계층인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의의나 지역사회, 그리고 여성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교육의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 방식, 학사운영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능다각화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장

교육수요 및 학교발전방안조사 분석결과

Jeonbuk Institute

-
1. 재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2. 미진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4. 소결

제 4 장 교육수요 및 학교발전방안조사 분석결과

1. 재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는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목적은 학교생활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실
태를 파악하여 학교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전북연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2018년 7월 7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총 7일 동
안 직접 기관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 진행과정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연령이 많고 학습능력의 개별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학년별
로 HR교사와 조사원, 연구원 등이 1:1 면접 형태로 설문지를 같이 읽어주고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조사로 회수된 설문지는 당일 결석학생을 제외하고 총 168부였으며, 이 중 무
응답과 이상값 등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166명이었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비
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지역, 연령, 일자리활동여부, 혼인상태, 월평
균 수입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학습효능감, 만족도, 교육요구도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수들이고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룰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내용 및 세부조사항목으로는 학교입학 및 학교생활 (세부문
항 9문항),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세부문항 14문항),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세부문항 20문항), 응답자 특성(세부문항 6문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재학생용 세부 설문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학교 입학 및 학교생활	• 교육 중단 이유, 그로인한 경험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경로 및 학교입학 사유, 만족도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교사, 교육과정, 시설, 학교생활, 교육성과)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요구도	•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 이유 • 인터넷 사이버교육 병행에 대한 찬반의견 및 반대사유 • 학기제 단축운영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정책지원 요구도 • 학교홍보 의향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	•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학교통학수단, 경제활동 유무 및 월평균 총 소득

나. 분석 결과

1) 인적 특성

조사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은 중학교 재학생이 71명으로 42.8%였으며, 고등학생이 95명으로 57.2%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전주시 85.5%, 완주군 6.6%, 익산시 4.2%, 부안군 1.3%, 군산시·남원시·진안군·임실군 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의 대다수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전주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완주군, 익산시 등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리적 거리가 먼 시군 거주자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60대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23.9%, 70대 17.2%, 40대와 80대 3.1%, 20대와 30대 0.6% 순이다. 앞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현황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재학생 중 60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고 그 뒤는 50대와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일자리 활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78.7%가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11.9%에 불과했으며, 9.4%는 당분간 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년간 주간에 수업을 받아야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주간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의 혼인형태를 분석한 결과, 본 조사대상 중 기혼여성은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별 22.2%, 별거 및 이혼이 4.3%, 미혼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약 75%가 50~60대 여성이기 때문에 기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70~80대의 고령 여성이 재학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사별자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사별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의 비율이 높아져 50대 10.3%, 60대 19.5%, 70대 48.1%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는 9.2%, 60대와 70대는 28.6%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현재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24.0%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0.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7%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3%, 가구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3%로 나타났다.

〈표 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인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명	%	구분		명	%
과정	중학교	71	42.8	일자리 활동	하고 있다	19	11.9
	고등학교	95	57.2		하고 있지 않다	126	78.7
	합계	166	100.0		당분간 쉬고 있다	15	9.4
지역	전주	142	85.5		합계	160	100.0
	완주	11	6.6	혼인형 태	미혼	2	1.2
	익산	7	4.2		기혼	113	69.8
	부안	2	1.3		사별	36	22.2
	군산	1	0.6		별거 및 이혼	7	4.3
	남원	1	0.6		기타	4	2.5
	진안	1	0.6		합계	166	100.0
	임실	1	0.6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54	36.0
	합계	16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24.0
연령	20대	1	0.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1	20.7
	30대	1	0.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	6.7
	40대	5	3.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	5.3
	50대	39	23.9		500만원 이상	11	7.3
	60대	84	51.5		합계	150	100.0
	70대	28	17.2				
	80대	5	3.1				
	합계	163	100.0				

2) 분석 결과

가) 학교 입학 및 학교생활

■ 교육 중단 이유 및 경험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과거 교육 미수혜 및 중단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남자라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32.7%로 뒤를 이었다. 농사 및 집안일을 돌보아야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16.4%,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학교 적응에 실패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6.7%였으며 기타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표 4-3〉 재학생의 과거 교육 미수혜 및 중단 이유

(단위 : 명, %)

구분	명	%	
여자/남자라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54	32.7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57	34.5	
농사 및 집안일을 돌보아야 해서	27	16.4	
교육 이해 부족 및 적응에 실패해서	11	6.7	
기타	14	8.5	
해당 없음	2	1.2	
계	165	100.0	

과거 교육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냐는 문항에 조사대상의 86.1%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13.9%만이 힘들었던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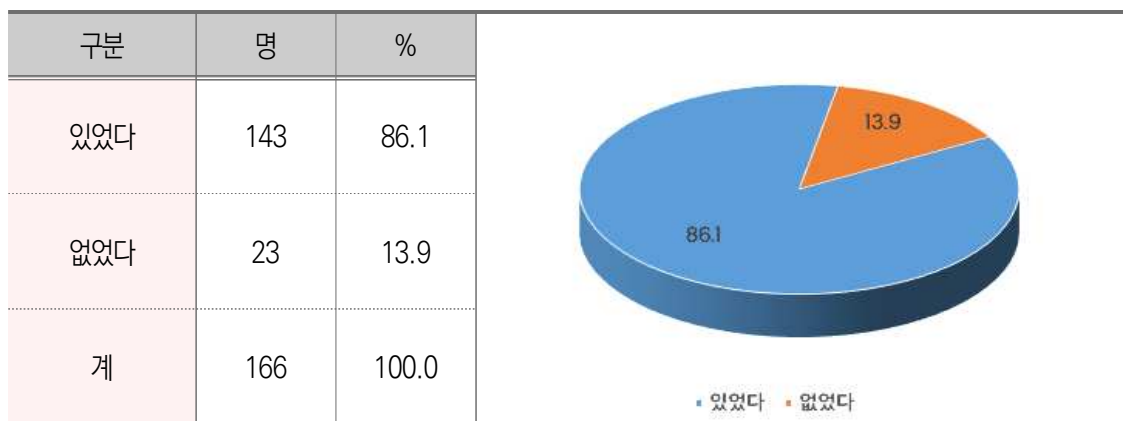
교육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6%로 가장 많았고, 학력이 노출될까 두려웠다 31.1%,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16.7%, 취업/승진하기가 힘들었다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

육의 미수혜로 힘들었던 점에 대해 실제로 외부로부터 차별이나 배제를 받거나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없거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특성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력이 노출될까 두려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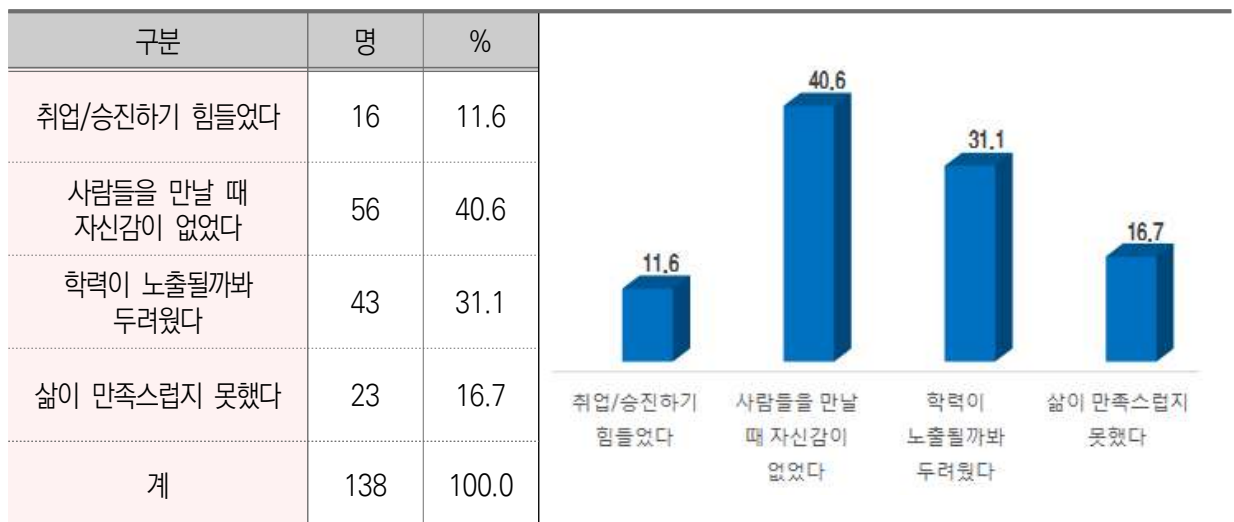
〈표 4-4〉 재학생의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단위 : 명, %)



〈표 4-5〉 재학생의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단위 : 명, %)



〈표 4-6〉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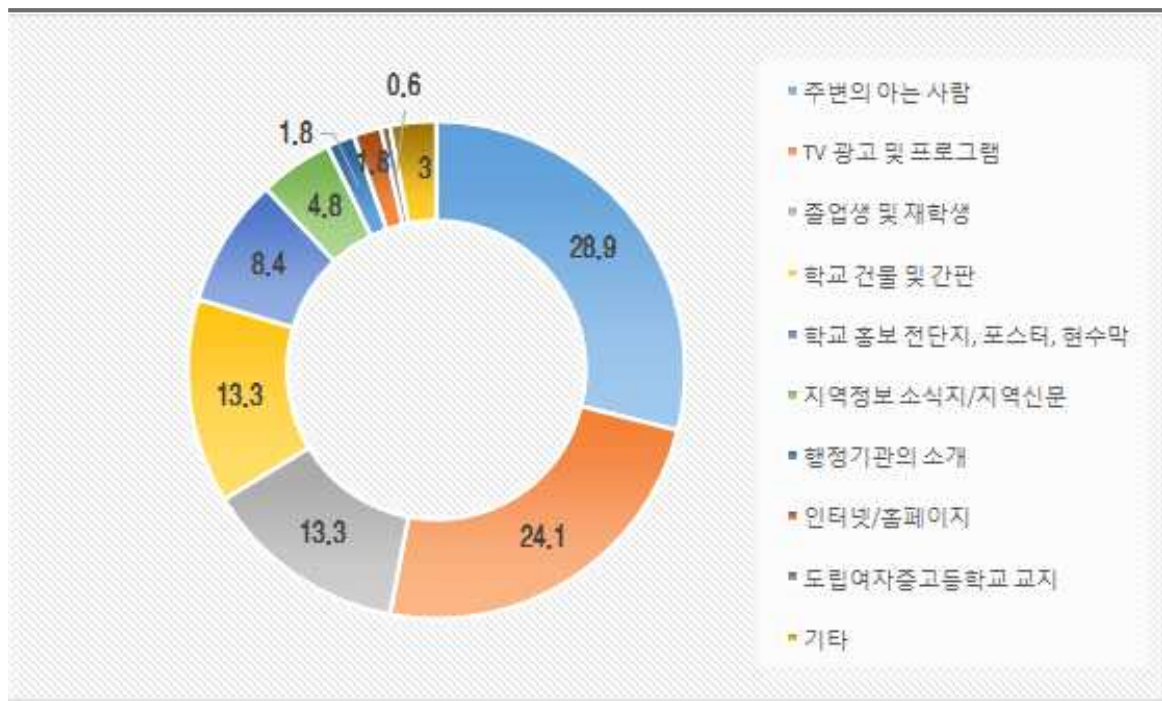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취업/승진 어려움		사람들 만날 때 자신감 없었음		학력이 노출될까봐 두려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함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16	11.6	56	40.6	43	31.2	23	16.7	138	100.0
	중학교	6	9.7	27	43.5	19	30.6	10	16.1	62	100.0
	고등학교	10	13.2	29	38.2	24	31.6	13	17.1	76	100.0
연령	계	16	11.9	54	40.0	43	31.9	22	16.3	135	100.0
	50대 이하	5	12.8	20	51.3	12	30.8	2	5.1	39	100.0
	60대	8	11.1	25	34.7	23	31.9	16	22.2	72	100.0
	70대 이상	3	12.5	9	37.5	8	33.3	4	16.7	24	100.0
배우자 유무	계	16	11.6	56	40.6	43	31.2	23	16.7	138	100.0
	있다	13	13.3	37	37.8	35	35.7	13	13.3	98	100.0
	없다	3	7.5	19	47.5	8	20.0	10	25.0	40	100.0
일자리 활동	계	15	11.3	54	40.6	41	30.8	23	17.3	133	100.0
	하고 있다	5	16.6	14	46.7	8	26.7	3	10.0	30	100.0
	하고있지 않다	10	9.7	40	38.8	33	32.1	20	19.4	103	100.0
월평균 수입	계	13	10.5	54	43.5	36	29.0	21	16.9	124	100.0
	100만원 미만	3	7.3	21	51.2	9	22.0	8	19.5	41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9.7	14	45.2	9	29.0	5	16.1	31	100.0
	200만원 이상	7	13.5	19	36.5	18	34.6	8	15.4	52	100.0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경로 및 사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인지 및 입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학교를 인지하고 입학했다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TV 광고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았다는 응답이 24.1%로 두 번째였다. 졸업생 및 재학생을 통하여, 학교건물 및 간판을 보고 입학했다는 응답이 각각 13.3%로 뒤를 이었고 학교 홍보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 학교를 알고 입학을 결정했다는 응답은 8.4%였다. 지역정보 소식지/지역신문은 4.8%, 인터넷/홈페이지는 1.8%로 재학생들의 학교 인지 및 입학경로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는데 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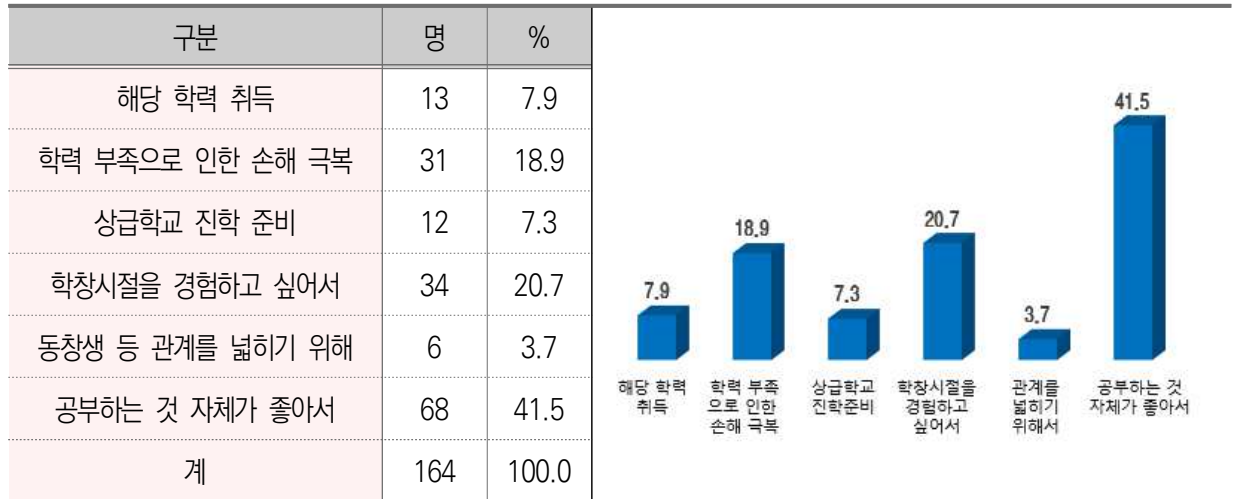


〈그림 4-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경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입학 이유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입학했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학창시절을 경험하고 싶어서 입학했다는 응답이 2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18.9%, 해당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7.9%,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서가 7.3%로 뒤를 이었으며 동창생 등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했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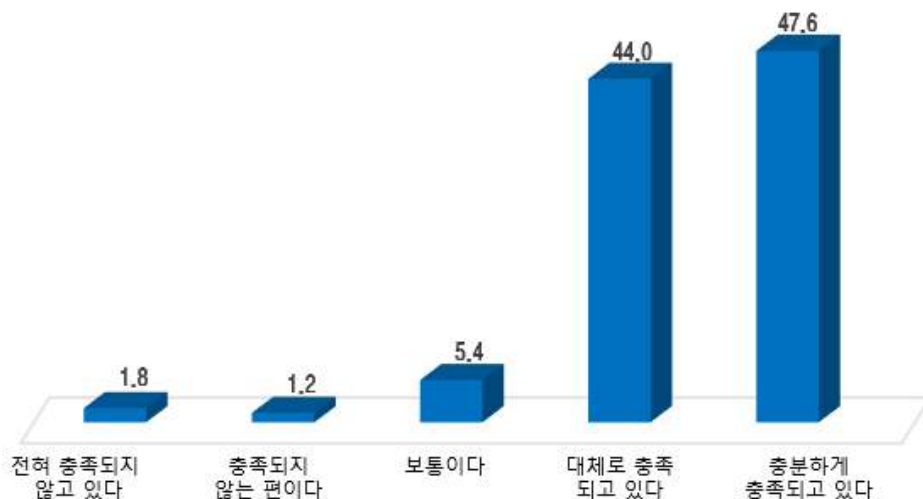
〈표 4-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이유

(단위 : 명,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 목적 충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한 목적이 충족되고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1.8%,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학교에 입학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한 반면 대체로 충족되고 있다 44.0%,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다는 응답은 47.6%로 학교에 입학한 목적이 충족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91.6%로 나타났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목적별 충족 정도는 목적별 충족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



〈그림 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목적 충족 정도

〈표 4-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 목적별 충족 정도

(단위 : 명, %)

구분	충족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충족 되었다		계	
	명	%	명	%	명	%	명	%
해당 학력 취득	0	0.0	1	7.7	12	92.3	13	100.0
학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 극복	0	0.0	1	3.2	30	96.8	31	100.0
상급학교 진학 준비	0	0.0	0	0.0	12	100.0	12	100.0
학창시절을 경험하고 싶어서	2	5.9	2	5.9	30	88.2	34	100.0
동창생 등 관계를 넓히기 위해	0	0.0	1	16.7	5	83.3	6	100.0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3	4.4	4	5.9	61	89.7	68	100.0
계	5	3.0	9	5.5	150	91.5	164	100.0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 71명 중 80.3%는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있었으며 19.7%는 진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별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87.8%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12.2%만이 진학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중 진학 의사가 있는 사람은 63.6%, 진학 의사가 없는 사람은 36.4%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

(단위 : 명, %)

구분	명	%
있다	57	80.3
없다	14	19.7
계	71	100.0



〈표 4-10〉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의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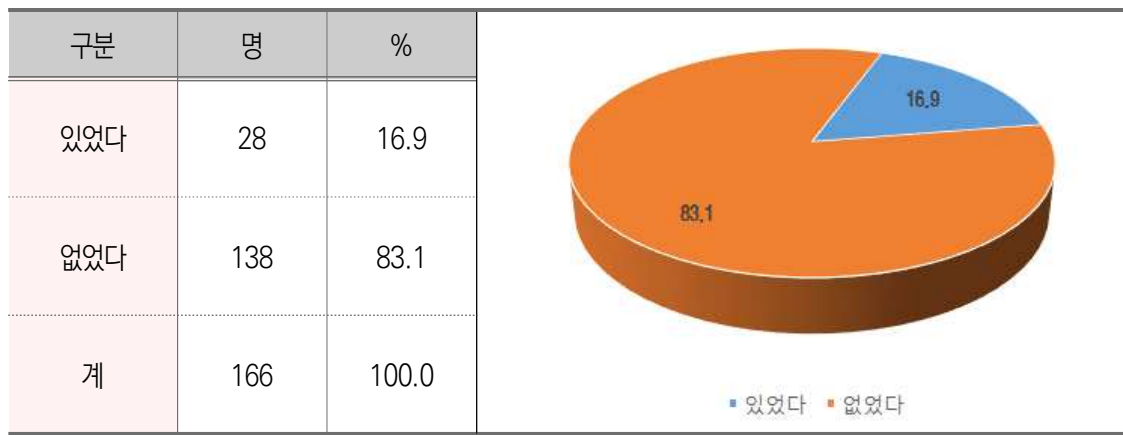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	명	%	명	%
학년	계	57	80.3	14	19.7	71	100.0
	1학년	22	88.0	3	12.0	25	100.0
	2학년	16	80.0	4	20.0	20	100.0
	3학년	19	73.1	7	26.9	26	100.0
연령	계	57	80.3	14	19.7	71	100.0
	50대 이하	19	95.0	1	5.0	20	100.0
	60대	30	76.9	9	23.1	39	100.0
	70대 이상	8	66.7	4	33.3	12	100.0
배우자 유무	계	57	80.3	14	19.7	71	100.0
	있다	43	87.8	6	12.2	49	100.0
	없다	14	63.6	8	36.4	22	100.0
일자리 활동	계	56	80.0	14	20.0	70	100.0
	하고 있다	12	75.0	4	25.0	16	100.0
	하고있지 않다	44	81.5	10	18.5	54	100.0
월평균 수입	계	53	79.1	14	20.9	67	100.0
	100만원 미만	20	80.0	5	20.0	25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70.6	5	29.4	17	100.0
	200만원 이상	21	84.0	4	16.0	25	100.0

■ 입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입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16.9%만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83.1%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자 중 40.7%는 입학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11.1%는 원서 작성이 복잡하여, 7.4%는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어려웠다고 답했다.

〈표 4-11〉 입학과정에서의 어려움 유무

(단위 : 명, %)



〈표 4-12〉 입학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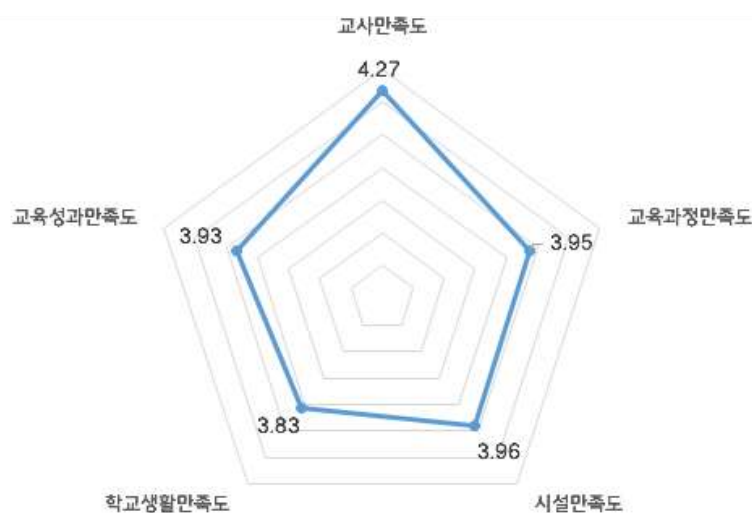
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개 분야 13개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8점이었으며 분야별 만족도는 교사 만족도가 4.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 만족도 3.96점, 교육과정 만족도 3.95점, 교육성과 만족도 3.93점, 학교생활 만족도 3.8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 대해서는 수업 중의 질문에 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었다는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의 수업진행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4.21점, 수업진행은 다양한 형태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4.12점, 운동시설·특별시설 등이 교육을 받는데 충분하다 4.0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현재의 3년제 학업기간은 적당하다는 문항이었으며 만족도는 3.7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문항이 3.81로 두 번째로 낮은 문항이었으며 학교에 통학하는데 교통이 용이하다는 문항과 사회활동 참여에 지금의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이 3.82점으로 세 번째 만족도가 낮은 문항이었다.

(단위 : 점)



〈그림 4-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만족도 평가

〈표 4-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만족도 평가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만족도		3.98												
교사 만족도	수업 중의 질문에 교사는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었다	4.32	2	1.2	3	1.2	19	11.6	60	36.6	81	49.4	166	100.0
	교사의 수업진행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4.21	3	1.8	5	3.0	24	14.6	55	33.3	78	47.3	165	100.0
	평균	4.27												
교육 과정 만족도	수업진행은 다양한 형태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4.12	4	2.4	3	1.9	28	17.1	64	39.0	65	39.6	164	100.0
	현재의 3년제 학업기간은 적당하다	3.75	5	3.1	21	12.9	29	17.7	62	38.1	46	28.2	163	100.0
	평균	3.95												
시설 만족도	학교에 통학하는데 교통이 용이하다	3.82	9	5.5	8	4.9	35	21.3	63	38.4	49	29.9	164	100.0
	운동시설, 특별교실 등이 교육을 받는데 충분하다	4.07	3	1.8	6	3.7	26	15.9	71	43.3	58	35.4	164	100.0
	학교 주변의 환경은 학습하기 알맞게 조성되었다	3.99	2	1.2	8	4.9	28	17.2	76	46.6	49	30.1	163	100.0
	평균	3.96												
학교 생활 만족도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	3.81	2	1.2	8	4.9	50	30.3	65	39.4	40	24.2	165	100.0
	졸업 후에도 같은 반 학생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할 것이다	3.79	2	1.2	3	1.8	55	33.4	72	43.6	33	20.0	165	100.0
	동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학습정보를 공유한다	3.88	12	7.3	7	4.3	26	15.9	63	38.4	56	34.1	164	100.0
	평균	3.83												
교육 성과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에 지금의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3.82	12	7.3	6	3.7	28	17.0	71	43.3	47	28.7	164	100.0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3.97	11	6.7	3	1.8	26	15.9	64	39.0	60	36.6	164	100.0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4.02	12	7.3	3	1.8	16	9.8	71	43.3	62	37.8	164	100.0
	평균	3.93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 적응하는 것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 및 돌봄과 공부 병행이 19.9%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학우·가족 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어려웠다는 응답과 중도에 포기할까 두려웠다는 응답은 각각 8.4%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표 4-14〉 응답자 특성별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

구분		수업에 적응하는 것		관계에서의 갈등		가사 및 돌봄과 공부 병행		중도포기에 대한 두려움		기타		어려움이 없었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67	40.4	14	8.4	33	19.9	14	8.4	9	5.4	29	17.5	166	100.0
	중학교	33	46.5	5	7.0	10	14.1	7	9.9	4	5.6	12	16.9	71	100.0
	고등학교	34	35.8	9	9.5	23	24.2	7	7.4	5	5.3	17	17.9	95	100.0
연령	계	66	40.5	14	8.6	33	20.2	13	8.0	9	5.5	28	17.2	163	100.0
	50대 이하	20	43.5	6	13.0	12	26.1	4	8.7	1	2.2	3	6.5	46	100.0
	60대	29	34.5	8	9.5	17	20.2	6	7.1	4	4.8	20	23.8	84	100.0
	70대 이상	17	51.5	0	0.0	4	12.1	3	9.1	4	12.1	5	15.2	33	100.0

구분		수업에 적응하는 것		관계에서의 갈등		가사 및 돌봄과 공부 병행		중도포기에 대한 두려움		기타		어려움이 없었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배우자 유무	계	67	40.4	14	8.4	33	19.9	14	8.4	9	5.4	29	17.5	166	100.0
	있다	46	40.7	9	8.0	27	23.9	7	6.2	6	5.3	18	15.9	113	100.0
	없다	21	39.6	5	9.4	6	11.3	7	13.2	3	5.7	11	20.8	53	100.0
일자리 활동	계	66	41.3	13	8.1	33	20.6	11	6.9	9	5.6	28	17.5	160	100.0
	하고 있다	15	44.1	5	14.7	7	20.6	4	11.8	1	2.9	2	5.9	34	100.0
	하고있지 않다	51	40.5	8	6.3	26	20.6	7	5.6	8	6.3	26	20.6	126	100.0
월평균 수입	계	59	39.3	13	8.7	28	18.7	12	8.0	9	6.0	29	19.3	150	100.0
	100만원 미만	25	46.3	6	11.1	4	7.4	3	5.6	5	9.3	11	20.4	5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	38.9	0	0.0	12	33.3	2	5.6	2	5.6	6	16.7	36	100.0
	200만원 이상	20	33.3	7	11.7	12	20.0	7	11.7	2	3.3	12	20.0	60	100.0

■ 학교 접근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통학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한다는 응답이 33.1%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걸어서 학교를 통학한다는 응답은 12.7%였으며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1.2%, 기타 응답 1.8%로 나타났다.

〈표 4-1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통학방법

(단위 : 명, %)

구분	명	%	
자가용	55	33.1	자가용 33.1
버스	85	51.2	버스 51.2
도보	21	12.7	도보 12.7
자전거	2	1.2	자전거 1.2
기타	3	1.8	기타 1.8
계	166	100.0	

다) 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정책지원 요구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정책지원 요구를 분석한 결과, 급식 지원에 대한 요구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수업료 지원이 24.8%로 두 번째, 통학 교통편 및 교통비가 18.8%로 세 번째로 높았다. 요구도가 높은 세 가지 지원책이 약 70%를 차지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료, 급식비, 교통비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대학 진학시 특별전형 혜택 6.1%, 교과 외 특별활동 지원 6.1%, 직업훈련반 운영 4.8%가 차지하여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추후 진로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정책지원 요구(1순위)

(단위 : 명, %)

구분	명	%
급식 지원	43	26.1
수업료	41	24.8
통학 교통편 및 교통비	31	18.8
교과 외 특별활동 지원	10	6.1
대학 진학시 특별전형 혜택	10	6.1
직업훈련반 운영	8	4.8
교육기간 중 생계비	4	2.4
취업정보 제공/직업알선	4	2.4
보육서비스	2	1.2
운동시설 지원	2	1.2
기타 시설 지원(인터넷, 미술실 등)	2	1.2
농업종사자에 대한 장학금 혜택	2	1.2
교재비	1	0.6
진로 준비 지원	1	0.6
기타	1	0.6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3	1.8
계	166	100.0

■ 남녀공학 전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반대 의견이 65.4%, 중립 의견이 15.8%, 찬성 의견이 18.8%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남녀공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은 반대 63.2%, 중립 11.6%, 찬성 25.3%인 반면 중학생은 반대 68.6%, 중립 21.4%, 찬성 10.0%에 그쳤다.

〈표 4-17〉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녀공학 전환	2.27	108	65.4	49	29.7	59	35.7	26	15.8	31	18.8	26	15.8	5	3.0	1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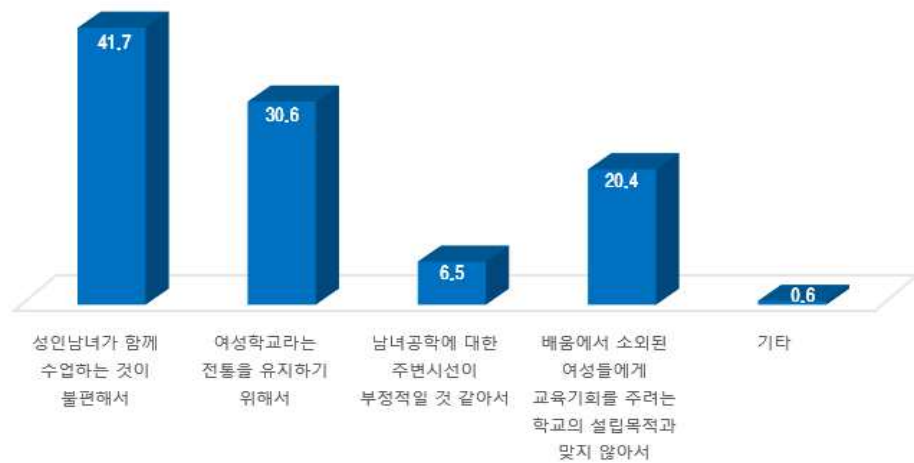
〈표 4-18〉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남녀공학 전환 의견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108	65.5	26	15.8	31	18.8	165	100.0
	중학교	48	68.6	15	21.4	7	10.0	70	100.0
	고등학교	60	63.2	11	11.6	24	25.3	95	100.0
연령	계	107	66.0	25	15.4	30	18.5	162	100.0
	50대 이하	31	67.4	8	17.4	7	15.2	46	100.0
	60대	57	68.7	14	16.9	12	14.5	83	100.0
	70대 이상	19	57.6	3	9.1	11	33.3	33	100.0
배우자 유무	계	108	65.5	26	15.8	31	18.8	165	100.0
	있다	75	49.0	17	15.2	20	17.9	112	100.0
	없다	33	62.3	9	17.0	11	20.8	53	100.0
일자리 활동	계	107	67.3	26	16.4	26	16.4	159	100.0
	하고 있다	21	63.6	5	15.2	7	21.2	33	100.0
	하고있지 않다	86	68.3	21	16.7	19	15.1	126	100.0
월평균 수입	계	98	65.8	24	16.1	27	18.1	149	100.0
	100만원 미만	35	66.0	7	13.2	11	20.8	53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75.0	5	13.9	4	11.1	36	100.0
	200만원 이상	36	60.0	12	20.0	12	20.0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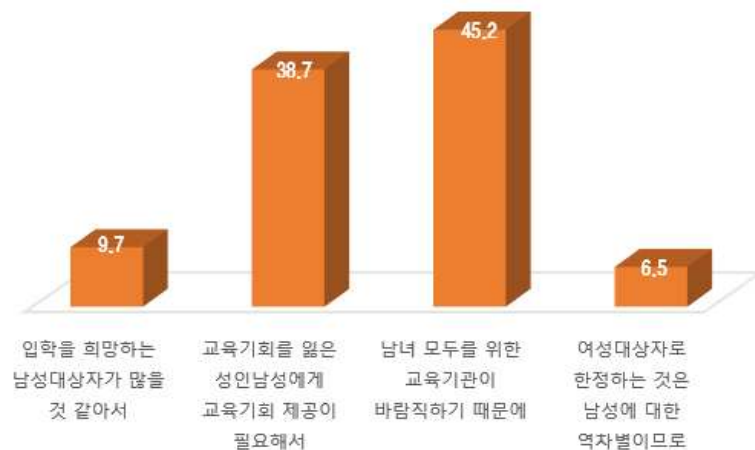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성인 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41.7%로 가장 많았고, 여성학교라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30.6%, 배움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아서 20.4%, 남녀공학에 대한 주변시선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남녀공학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5%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찬성 이유는 남녀 모두를 위한 교육기관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45.2%, 교육기회를 잃은 남성에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해서 38.7%, 입학할 희망하는 남성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9.7%, 여성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6.5% 순이었다.

(단위 : %)



〈그림 4-5〉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유

(단위 : %)



〈그림 4-6〉 재학생의 남녀공학 전환 찬성 이유

■ 사이버 교육 병행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적극 반대 5.4%, 반대 31.3%로 총 36.7%였으며 중립은 20.5%, 찬성하는 의견은 찬성 26.5%, 적극 찬성 16.3%로 총 42.8%로 나타나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평균 점수가 2.27점인데 반해 사이버 교육 병행의 평균점수는 3.1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재학생의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사이버교육 병행	3.17	61	36.7	9	5.4	52	31.3	34	20.5	71	42.8	44	26.5	27	16.3	166	100.0

〈표 4-20〉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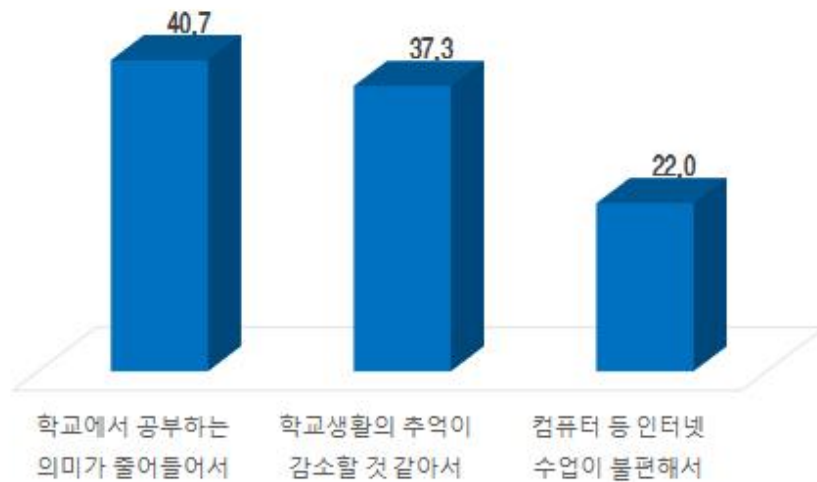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23	32.4	19	26.8	29	40.8	71	100.0
	중학교	38	40.0	15	15.8	42	44.2	95	100.0
	고등학교	61	36.7	34	20.5	71	42.8	166	100.0
연령	계	60	36.8	33	20.2	70	42.9	163	100.0
	50대 이하	16	34.8	8	17.4	22	47.8	46	100.0
	60대	31	36.9	20	23.8	33	39.3	84	100.0
	70대 이상	13	39.4	5	15.2	15	45.5	33	100.0
배우자 유무	계	61	63.7	34	20.5	71	42.8	166	100.0
	있다	37	32.7	21	18.6	55	48.7	113	100.0
	없다	24	45.3	13	24.5	16	30.2	53	100.0
일자리 활동	계	60	37.5	32	20.0	68	42.5	160	100.0
	하고 있다	18	33.3	13	24.1	23	42.6	54	100.0
	하고있지 않다	49	38.9	25	19.8	52	41.3	126	100.0
월평균 수입	계	53	35.3	33	22.0	64	42.7	150	100.0
	100만원 미만	18	33.3	13	24.1	23	42.6	5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	52.8	8	22.2	9	25.0	36	100.0
	200만원 이상	16	26.7	12	20.0	32	53.3	60	100.0

사이버교육 병행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줄어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40.7%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의 추억이 감소할 것 같아서 반대하는 의견이 37.3%로 두 번째였다.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이 불편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22.0%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줄어들 것 같아서 사이버 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60대는 학교생활의 추억이 감소할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2%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역시 학교생활의 추억이 감소할 것 같아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다.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이 불편해서 사이버교육 병행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졌는데 50대 이하에서는 13.3%에 불과하던 응답이 60대는 22.6%, 70대 이상은 33.3%로 분석되었다.

(단위 : %)



〈그림 4-7〉 재학생의 사이버교육 병행 반대 이유

〈표 4-21〉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줄어들어서		학교생활의 추억이 감소할 것 같아서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이 불편해서		계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24	40.7	22	37.3	13	22.0	59	100.0
	중학교	9	40.9	9	40.9	4	18.2	22	100.0
	고등학교	15	40.5	13	35.1	9	24.3	37	100.0
연령	계	23	39.7	22	37.9	13	22.4	58	100.0
	50대 이하	11	73.3	2	13.3	2	13.3	15	100.0
	60대	10	32.3	14	45.2	7	22.6	31	100.0
	70대 이상	2	16.7	6	50.0	4	33.3	12	100.0
배우자 유무	계	24	40.7	22	37.3	13	22.0	59	100.0
	있다	14	38.9	14	38.9	8	22.2	36	100.0
	없다	10	43.5	8	34.8	5	21.7	23	100.0
일자리 활동	계	23	39.7	22	37.9	13	22.4	58	100.0
	하고 있다	4	36.4	5	45.5	2	18.2	11	100.0
	하고있지 않다	19	40.4	17	36.2	11	23.4	47	100.0
월평균 수입	계	21	41.2	17	33.3	13	25.5	51	100.0
	100만원 미만	6	35.3	8	47.1	3	17.6	17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36.8	4	21.1	8	42.1	19	100.0
	200만원 이상	8	53.3	5	33.3	2	13.3	15	100.0

■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대응방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반대 6.8%, 반대 20.5%로 부정적 의견이 27.3%인데 반해 긍정적 의견은 찬성 34.8%, 적극 찬성 37.9%로 총 72.7%였다.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대응방안은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었는데 적극 반대 7.6%, 반대 19.6%로 부정적 의견이 27.2%를 차지했으며 찬성 48.7%, 적극 찬성 24.1%로 긍정적 의견은 72.8%로 나타났다고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9점이었다.

세 번째 대응방안은 전주 지역 외 2~3개의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안은 적극 반대 7.6%, 반대 22.8%로 부정적 의견이 30.4%, 찬성 46.8%, 적극 찬성 22.8%로 긍정적 의견이 69.6%이며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5점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대응방안은 농번이나 추수기에 방학을 실시 등 탄력적 교육 운영 방안이었으며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74점이었다. 적극 반대 5.2%, 반대 32.2%로 부정적 의견이 37.4%였으며 찬성 45.8%, 적극 찬성 16.8%로 긍정적 의견은 62.6%였다. 이는 재학생 대부분의 거주지역이 전주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수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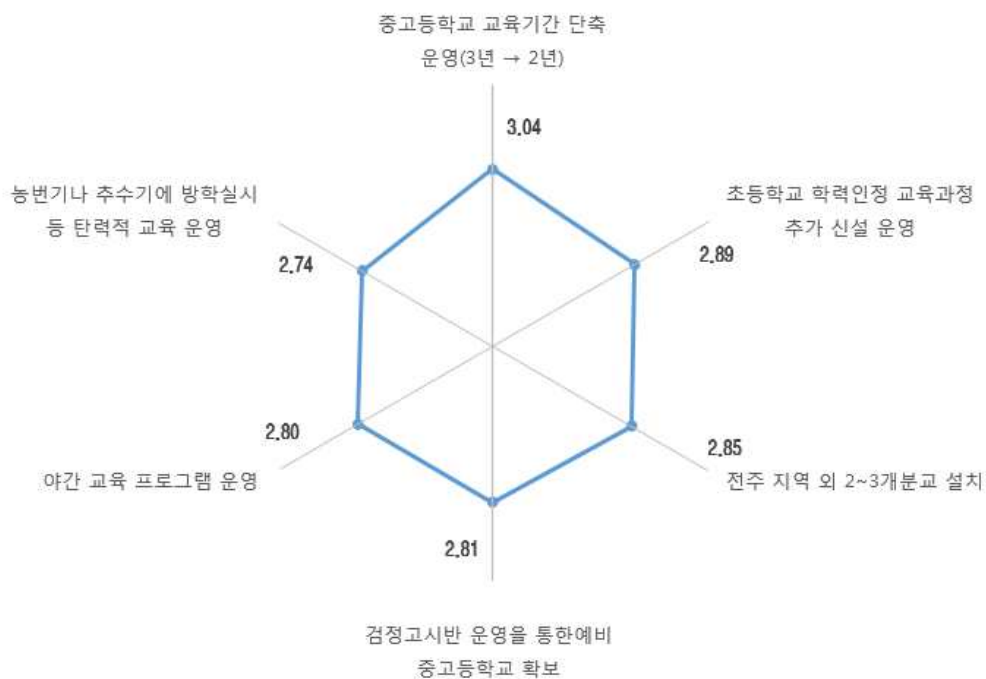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은 야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43.3%, 찬성하는 의견이 56.7%이고, 고등학생은 반대 의견이 27.8%, 찬성 의견이 72.2%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야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4점)	반대인 편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중고등학교 교육기간 단축 운영(3년 → 2년)	3.04	44	27.3	11	6.8	33	20.5	117	72.7	56	34.8	61	37.9	161	100.0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 운영	2.89	43	27.2	12	7.6	31	19.6	115	72.8	77	48.7	38	24.1	158	100.0
전주 지역 외 2~3개 분교 설치	2.85	48	30.4	12	7.6	36	22.8	110	69.6	74	46.8	36	22.8	158	100.0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교 확보	2.81	44	28.6	12	7.8	32	20.8	110	71.4	84	54.5	26	16.9	154	100.0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80	54	34.4	7	4.5	47	29.9	103	65.6	74	47.1	29	18.5	157	100.0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실시 등 탄력적 교육 운영	2.74	58	37.4	8	5.2	50	32.2	97	62.6	71	45.8	26	16.8	155	100.0

(단위 : 점)



〈그림 4-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의견

〈표 4-23〉 응답자 특성별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의견

(단위 : 명, %)

구분		반대		찬성		계	
		명	%	명	%	명	%
학력	계	54	34.4	103	65.6	157	100.0
	중학교	29	43.3	38	56.7	67	100.0
	고등학교	25	27.8	65	72.2	90	100.0
연령	계	53	34.2	102	65.8	155	100.0
	50대 이하	13	28.3	33	71.7	46	100.0
	60대	31	39.2	48	60.8	79	100.0
	70대 이상	9	30.0	21	70.0	30	100.0
배우자 유무	계	54	34.4	103	65.6	157	100.0
	있다	39	35.8	70	64.2	109	100.0
	없다	15	31.3	33	68.8	48	100.0
일자리 활동	계	53	34.6	100	65.4	153	100.0
	하고 있다	8	25.8	23	74.2	31	100.0
	하고있지 않다	45	36.9	77	63.1	122	100.0
월평균 수입	계	48	33.6	95	66.4	143	100.0
	100만원 미만	18	34.6	34	65.4	5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	45.7	19	54.3	35	100.0
	200만원 이상	14	25.0	42	75.0	56	100.0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적극 반대 3.6%와 반대 8.5%를 포함한 부정적 의견은 12.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는 중립의 의견은 36.4%, 찬성 37.0%와 적극 찬성 14.5%를 포함한 긍정적인 의견은 5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재학생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학기제	3.50	20	12.1	6	3.6	14	8.5	60	36.4	85	51.5	61	37.0	24	14.5	165	100.0

〈표 4-25〉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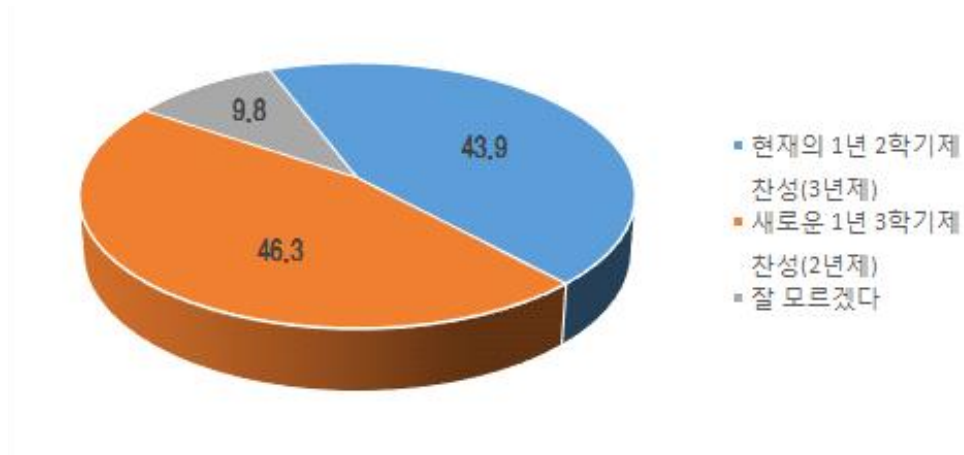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20	12.1	60	36.4	85	51.5	165	100.0
	중학교	9	12.7	28	39.4	34	47.9	71	100.0
	고등학교	11	11.7	32	34.0	51	54.3	94	100.0
연령	계	20	12.3	58	35.8	84	51.9	162	100.0
	50대 이하	7	15.2	14	30.4	25	54.3	46	100.0
	60대	12	14.3	34	40.5	38	45.2	84	100.0
	70대 이상	1	3.1	10	31.3	21	65.6	32	100.0
배우자 유무	계	20	12.1	60	36.4	85	51.5	165	100.0
	있다	14	12.4	37	32.7	62	54.9	113	100.0
	없다	6	11.5	23	44.2	23	44.2	52	100.0
일자리 활동	계	20	12.6	58	36.5	81	50.9	159	100.0
	하고 있다	4	11.8	14	41.2	16	47.1	34	100.0
	하고있지 않다	16	12.8	44	35.2	65	52.0	125	100.0
월평균 수입	계	18	12.0	57	38.0	75	50.0	150	100.0
	100만원 미만	7	13.0	22	40.7	25	46.3	5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19.4	13	36.1	16	44.4	36	100.0
	200만원 이상	4	6.7	22	36.7	34	56.7	60	100.0

■ 교육기간 단축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1년 2학기제(3년제)와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1년 3학기제(2년제) 중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원하는 학기제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43.9%,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46.3%로 미세한 차이로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중학생은 35.2%가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하고 과반수인 57.7%가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50.5%가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했고 37.6%만이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



〈그림 4-9〉 재학생의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표 4-26〉 재학생 응답자 특성별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현재의 1년 2학기제 찬성(3년제)		잘 모르겠다		새로운 1년 3학기제 찬성(2년제)		계	
		명	%	명	%	명	%	명	%
학력	계	72	43.9	16	9.8	74	46.3	164	100.0
	중학교	25	35.2	5	7.0	41	57.7	71	100.0
	고등학교	47	50.5	11	11.8	35	37.6	93	100.0
연령	계	71	43.8	16	9.9	75	46.3	162	100.0
	50대 이하	16	34.8	2	4.3	28	60.9	46	100.0
	60대	69	47.0	12	14.5	32	38.6	83	100.0
	70대 이상	16	48.5	2	6.1	15	45.5	33	100.0
배우자 유무	계	72	43.9	16	9.8	76	46.3	164	100.0
	있다	50	44.2	9	8.0	54	47.8	113	100.0
	없다	22	43.1	7	13.8	22	43.1	51	100.0
일자리 활동	계	70	44.0	16	10.1	73	45.9	159	100.0
	하고 있다	16	47.1	3	8.8	15	44.1	34	100.0
	하고있지 않다	54	43.2	13	10.4	58	46.4	125	100.0
월평균 수입	계	65	43.6	15	10.1	69	46.3	149	100.0
	100만원 미만	26	48.1	8	14.8	20	37.0	5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	44.4	5	13.9	15	41.7	36	100.0
	200만원 이상	23	39.0	2	3.4	34	57.6	59	100.0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찬성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쫓은 시절 갖지 못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25.7%, 2년으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타났다. 방학이 보장된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12.9%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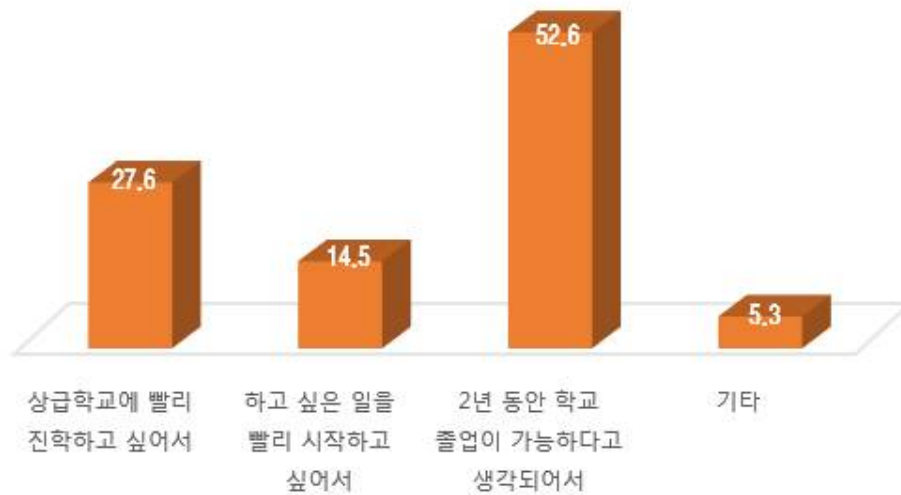
반면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찬성 이유는 2년 동안 학교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2.6%, 상급학교에 빨리 진학하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27.6%,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4.5%로 조사되었다.

(단위 : %)



〈그림 4-10〉 재학생의 1년 2학기제(3년제) 찬성 이유

(단위 : %)



〈그림 4-11〉 재학생의 1년 3학기제(2년제) 찬성 이유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경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홍보물을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홍보 경험이 있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1.4%였으며, 해당 홍보 경험이 없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불과했다. 학교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 경험에 대해서는 88.0%가 경험이 있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12.0%가 경험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학교 입학 주변사람들에게 권유하는 홍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5.6%였으며 홍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로 나타났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홍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세 문항 모두 90% 전후로 나타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를 홍보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경험

(단위 : 명, %)

구분	평균 (4점)	안 한 편이다						한 편이다						계	
		거의 한 적 없다				전혀 하지 않았다		한적 있다				많이 했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학교 홍보물을 주변 사람에게 전달	3.37	14	8.6	8	4.9	6	3.7	149	91.4	66	40.5	83	50.9	163	100.0
학교를 주변사람에게 알림	3.20	19	12.0	9	5.7	10	6.3	140	88.0	80	50.3	60	37.7	159	100.0
학교 입학 주변사람에게 권유	3.20	23	14.5	6	3.8	17	10.7	136	85.6	75	47.2	61	38.4	159	100.0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방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방안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았고, TV 광고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3.5%로 두 번째였다. 뒤를 이어 학교 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15.1%, 행정기관의 소개 11.4%, 지역정보 소식지/지역신문 7.8% 순으로 재학생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방안

(단위 : 명, %)

구분	명	%
행정기관의 소개	19	11.4
TV 광고 및 프로그램	39	23.5
인터넷 / 홈페이지	40	24.1
학교 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25	15.1
지역정보 소식지 / 지역신문	13	7.8
교재배포	11	6.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6	3.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별활동팀의 시군축제 참여	6	3.6
일반인 대상의 바자회 등의 행사	4	2.4
기타	3	1.8
계	166	100.0

2. 미진학생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잠재적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미진학생의 경우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등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사설 문해교육기관의 학습수강자, 전라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잠재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성인학습자(미진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목적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와 향후 진학의사 진학 시 애로사항 등 교육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전북연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2018년 7월 7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총 7일 동안 직접 기관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 진행과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많고 학습능력의 개별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담당교사, 조사원, 연구원 등이 1:1 면접 형태로 설문지를 같이 읽어주고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조사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2부였으며, 데이터클리어 작업을 통해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212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는 지역, 연령, 일자리활동여부, 혼인상태, 월평균 수입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학습효능감, 만족도, 교육요구도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수들이고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잠재수요자인 미진학생 대상으로는 교육중단 이유 및 현황(세부분항 3문항),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 및 교육수요도(세부분항 22문항),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도(세부분항 11문항), 응답자 특성(세부분항 7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의 <표 4-29>와 같다.

〈표 4-29〉 미진학생용 세부 설문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교육중단 이유	• 교육 중단 이유 및 그로인한 경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 및 교육수요도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여부, 인지방법 • 중등, 고등학교 교육기회 수요여부 및 이유 • 학교진학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그 정도 • 학교 미진학 시 그 이유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요구도	• 학교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 이유 • 남녀공학 전환 시 진학의사 • 인터넷 사이버교육 병행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이유 • 학기제 단축운영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 • 학교홍보 방법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	• 성,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학교통학수단, 경제활동 유무 및 월평균 총 소득

나. 분석 결과

1) 인적 특성

조사대상의 성별은 전체 212명 중 남성 9.0%, 여성 91.0%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학력인정 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성별이 대부분 여성인 것이 반영된 것이다.

조사대상의 거주 지역은 전주시 47.6%, 완주군 20.0%, 군산시 15.2%, 익산시 8.5%, 김제시 3.3%, 정읍시 1.4%, 임실군 1.0%,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이 각각 0.5%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지역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에 위치한 학력인정 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네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김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60대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29.4%, 50대 13.8%, 80대 5.7%, 40대 0.9% 순이었고 20대와 30대는 없었다. 앞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인적 특성과 같이 60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으나 미진학생은 70대가 두 번째, 50대가 세 번째라는 점이 재학생의 인적 특성과 달랐다.

조사대상의 일자리 활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1.4%는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35.7%였으며, 2.9%는 당분간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 분석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비교하면 미진학생 조사대상의 일자리 활동이 더욱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의 혼인형태를 분석한 결과, 본 조사대상 중 기혼여성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별 32.4%, 별거 및 이혼이 6.2%, 미혼이 2.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4%가 50~60대 여성이기 때문에 기혼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70~80대의 고령 여성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별자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사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 중 사별상태인 사람은 20.8%에 불과했으나 70대 54.8%, 80대 90.9%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1.2%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

는 9.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4%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5%, 가구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1.4%로 나타났다.

〈표 4-30〉 미진학생의 인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19	9.0	연령대	20대	0	0.0
	여성	192	91.0		30대	0	0.0
	합계	212	100.0		40대	2	0.9
지역	전주	100	47.6		50대	29	13.8
	완주	42	20.0		60대	106	50.2
	군산	32	15.2		70대	62	29.4
	익산	18	8.5		80대	12	5.7
	김제	7	3.3		합계	211	100.0
	정읍	3	1.4	혼인형태	미혼	6	2.9
	임실	2	1.0		기혼	123	58.5
	남원	1	0.5		사별	68	32.4
	진안	1	0.5		별거 및 이혼	13	6.2
	무주	1	0.5		합계	210	100.0
	장수	1	0.5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34	64.4
	고창	1	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4	21.2
	부안	1	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	9.1
	합계	21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	3.4
일자리 활동	하고있다	75	35.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	0.5
	하고 있지 않다	129	61.4		500만원 이상	3	1.4
	당분간 쉬고 있다	6	2.9		합계	208	100.0
	합계	210	100.0				

2) 분석 결과

가) 교육중단 이유 및 경험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과거 교육중단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여자/남자라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44.1%로 뒤를 이었다. 농사 및 집안일을 돌보아야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5.2%,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학교 적응에 실패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3.8%였으며 기타에 대한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표 4-31〉 과거 교육 미수혜 및 중단 이유

(단위 : 명, %)

구분	명	%	
여자/남자라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95	45.0	여자/남자라고 부모님이 반대해서 45.0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93	44.1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44.1
농사 및 집안일을 돌보아야 해서	11	5.2	농사 및 집안일을 돌보아야 해서 5.2
교육 이해 부족 및 적응에 실패해서	8	3.8	교육 이해 부족 및 적응에 실패해서 3.8
기타	4	1.9	기타 1.9
			해당 없음 1.2
계	211	100.0	

과거 교육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냐는 문항에 조사대상의 95.3%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4.7%만이 힘들었던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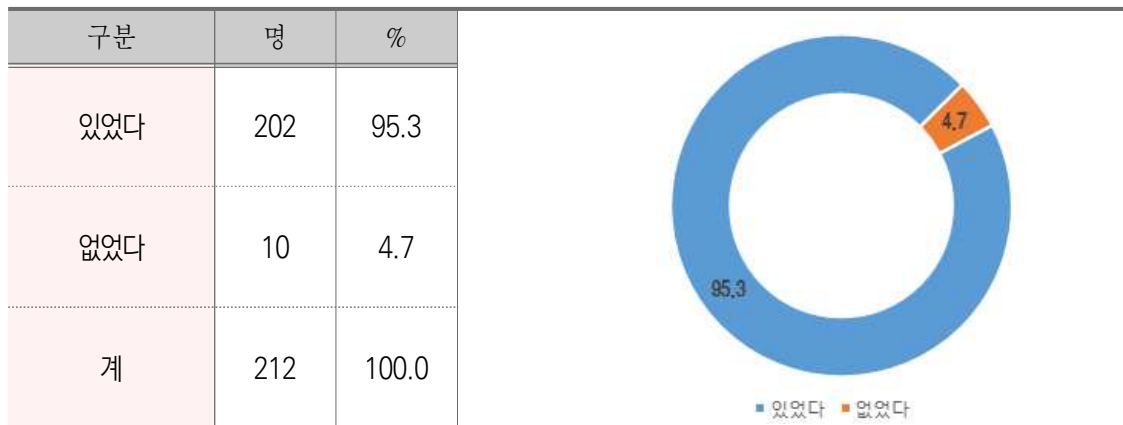
교육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이 노출될까 두려웠다 23.8%, 취업/승진하기가 힘들었다 14.9%,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8.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과반은 교육의 미수혜로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으며 외부로부터 차별이나 배제를 받거나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는 약 38%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응답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역 특성에 의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와 완주를 포함하는 전주권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60.7%로 매우 높았던 반면 전주권 외에서는 해당 응답이 37.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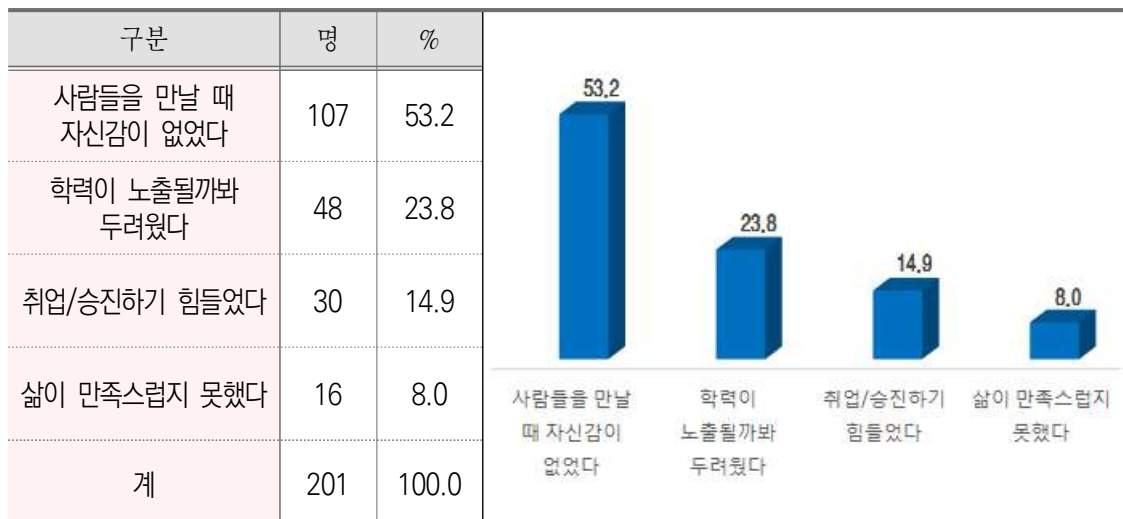
〈표 4-32〉 교육 미수혜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단위 : 명, %)



〈표 4-33〉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단위 : 명, %)



〈표 4-34〉 응답자 특성별 교육 미수혜로 인한 힘든 점

(단위 : 명, %)

구분		취업/승진 어려움		사람들 만날 때 자신감 없었음		학력이 노출될까봐 두려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함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29	14.5	107	53.5	48	24.0	46	8.0	200	100.0
	50대 이하	8	27.6	14	48.3	6	20.7	1	3.4	29	100.0
	60대	12	12.1	55	55.6	21	21.2	11	11.1	99	100.0
	70대 이상	9	12.5	38	52.8	21	29.2	4	5.6	72	100.0
지역	계	30	14.9	107	53.2	48	23.9	16	8.0	201	100.0
	전주권	16	11.9	82	60.7	30	22.2	7	5.2	135	100.0
	전주권 외	14	21.2	25	37.9	18	27.3	9	13.6	66	100.0
배우자 유무	계	30	14.9	107	53.2	48	23.9	16	8.0	201	100.0
	있다	17	14.7	65	56.0	26	22.4	8	6.9	116	100.0
	없다	13	15.3	42	49.4	22	25.9	8	9.4	85	100.0
일자리 활동	계	29	14.6	106	53.3	48	24.1	16	8.0	199	100.0
	하고 있다	13	17.1	37	48.7	22	28.9	4	5.3	76	100.0
	하고있지 않다	16	13.0	69	56.1	26	21.1	12	9.8	123	100.0
월평균 수입	계	27	13.7	106	53.8	48	24.4	16	8.1	197	100.0
	100만원 미만	20	15.9	72	57.2	26	20.6	8	6.3	12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4.9	23	56.1	11	26.8	5	12.2	41	100.0
	200만원 이상	5	16.6	11	36.7	11	36.7	3	10.0	30	100.0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 및 교육수요도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

조사 대상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2.1%, 모른다는 응답이 44.7%로 66.8%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모르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2.1%는 알고 있다, 5.8%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27.9%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아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54.8%가 모르는 편, 41.9%가 아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60대는 모르는 편 56.8%, 아는 편 39.3%, 70대 이상은 모르는 편 85.1%, 아는 편 6.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주권에서는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62.8%, 전주권 외에서는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75.0%로 나타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전주권에서 전주권 외의 지역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아는 편이라는 응답이 36.7%인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는 15.9%에 불과하여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활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의 53.2%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아는 편이라는 응답이 12.6%에 불과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4-3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모르는 편이다						들어본 적 있다	아는 편이다						계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전북도립여성중고 등학교 인지여부	2.45	139	66.8	46	22.1	93	44.7	11	5.3	58	27.9	46	22.1	12	5.8	2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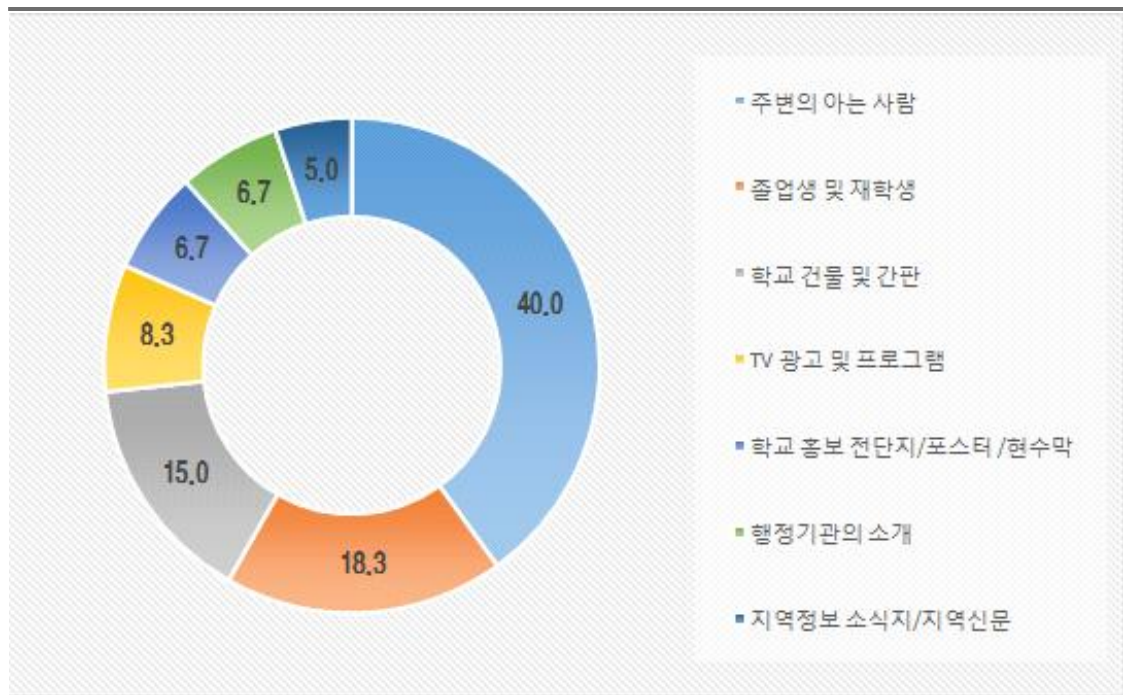
〈표 4-36〉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46	22.2	92	44.4	11	5.2	46	22.2	12	5.8	207	100.0
	50대 이하	4	12.9	13	41.9	1	3.3	9	29.0	4	12.9	31	100.0
	60대	18	17.6	40	39.2	4	3.9	33	32.4	7	6.9	102	100.0
	70대 이상	24	32.4	39	52.7	6	8.1	5	5.4	1	1.4	74	100.0
지역	계	46	22.1	93	44.7	11	5.3	46	22.1	12	5.8	208	100.0
	전주권	24	17.1	64	45.7	11	7.9	31	22.1	10	7.1	140	100.0
	전주권 외	22	32.4	29	42.6	0	0.0	15	22.1	2	2.9	68	100.0
배우자 유무	계	46	22.1	93	44.7	11	5.3	46	22.1	12	5.8	208	100.0
	있다	14	11.7	57	47.5	5	4.1	35	29.2	9	7.5	120	100.0
	없다	32	36.4	36	40.9	6	6.8	11	12.5	3	3.4	88	100.0
일자리 활동	계	46	22.3	91	44.2	11	5.3	46	22.3	12	5.9	206	100.0
	하고 있다	11	13.9	23	29.1	3	3.8	32	40.5	10	12.7	79	100.0
	하고있지 않다	35	27.6	68	53.5	8	6.3	14	11.0	2	1.6	127	100.0
월평균 수입	계	45	22.1	92	45.1	10	4.9	45	22.1	12	5.8	204	100.0
	100만원 미만	31	23.7	65	49.6	9	6.9	21	16.0	5	3.8	131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22.7	16	36.4	1	2.3	13	29.5	4	9.1	44	100.0
	200만원 이상	4	13.8	11	37.9	0	0.0	11	37.9	3	10.4	29	100.0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 인지 경로를 분석한 결과,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학교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통하여 알았다는 응답이 18.3%로 두 번째였다. 학교 건물 및 간판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15.0%로 뒤를 이었고 TV 광고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8.3%, 행정기관의 소개, 학교 홍보 전단지/포스터/현수막을 통해 학교를 알았다는 응답은 6.7%였다. 지역정보 소식지/지역신문은 5.0%로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외하면 미진학생들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경로로써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단위 : 명, %)



〈그림 4-12〉 미진학생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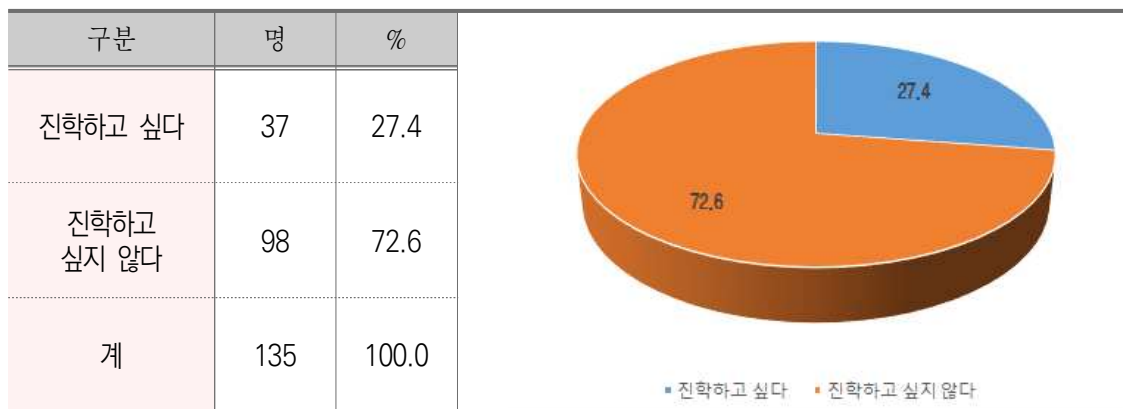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 수요도

미진학 응답자 중 초등학교까지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초등학교 과정 중에 있는 응답자에게 전북도립여성중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은 24.7%였고,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72.6%였다.

또한 중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중학교 과정 중에 있는 응답자에게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43.0%,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3%로 초등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진학 의사보다 중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 진학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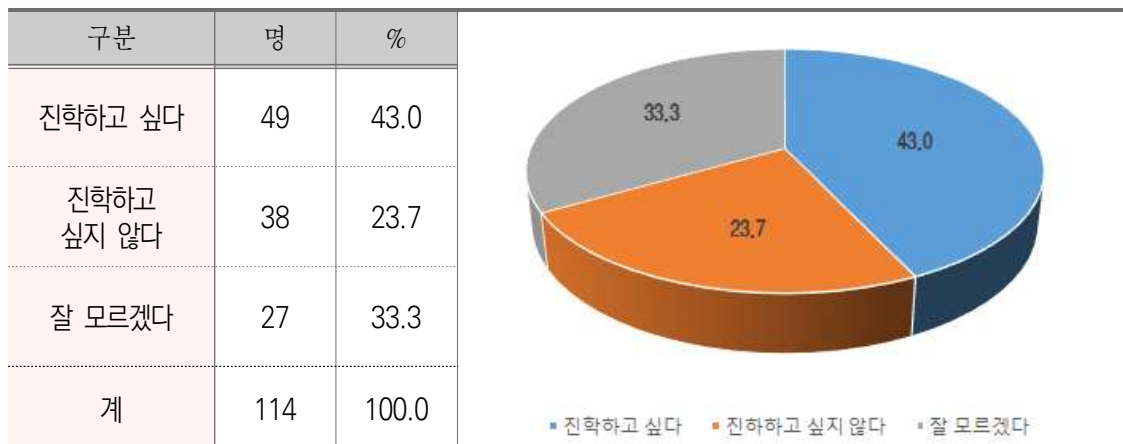
〈표 4-37〉 초등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중학교 진학 의사

(단위 : 명, %)



〈표 4-38〉 중학교 학력자의 전북도립여성고등학교 진학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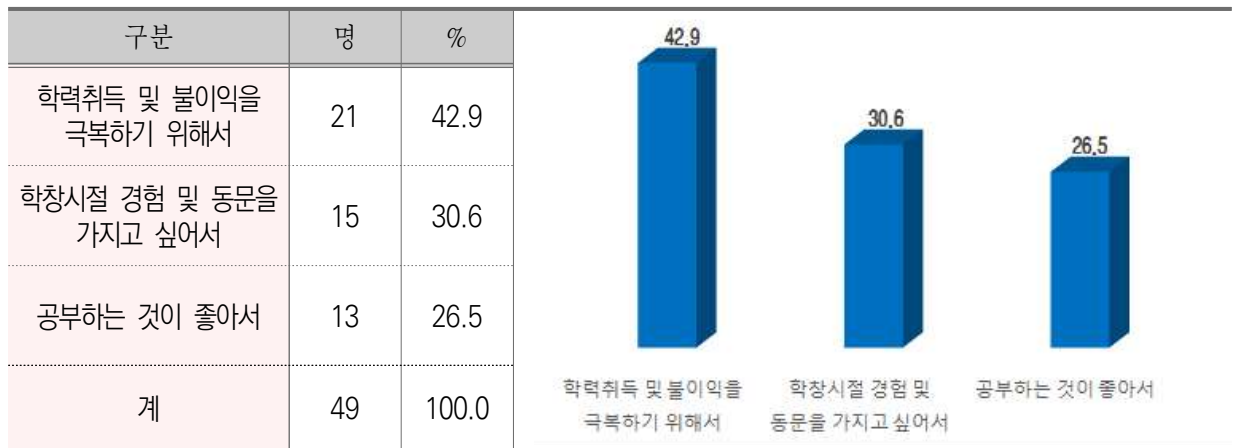
(단위 : 명,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학력취득 및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학창시절 경험 및 동문을 가지고 싶어서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0.6%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으로 26.5%로 나타났다.

〈표 4-39〉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표 4-40〉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학력취득 및 불이익 극복하기 위해서		학창시절 경험 및 동문을 가지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20	41.7	15	31.3	13	27.1	48	100.0
	50대 이하	9	56.3	3	18.8	4	25.0	16	100.0
	60대	8	34.8	10	43.5	5	21.7	23	100.0
	70대 이상	3	33.3	2	22.2	4	44.4	9	100.0
지역	계	21	42.9	15	30.6	13	26.5	49	100.0
	전주권	14	50.0	8	28.6	6	21.4	28	100.0
	전주권 외	7	33.3	7	33.3	7	33.3	21	100.0
배우자 유무	계	21	42.9	15	30.6	13	26.5	49	100.0
	있다	14	41.2	10	29.4	10	29.4	34	100.0
	없다	7	46.7	5	33.3	3	20.0	15	100.0

구분		학력취득 및 불이익 극복하기 위해서		학창시절 경험 및 동문을 가지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계	
		명	%	명	%	명	%	명	%
일자리 활동	계	20	41.7	15	31.2	13	27.1	48	100.0
	하고 있다	11	45.8	7	29.2	6	25.0	24	100.0
	하고있지 않다	9	37.5	8	33.3	7	29.2	24	100.0
월평균 수입	계	20	41.7	15	31.2	13	27.1	48	100.0
	100만원 미만	8	34.8	7	30.4	8	34.8	23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50.0	5	50.0	0	0.0	10	100.0
	200만원 이상	7	46.7	3	20.0	5	33.3	15	100.0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학교 진학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3.1%로 가장 높았다. 한글 공부까지만 하고 싶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2.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 번째는 학교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으로 18.5%를 차지했다. 그 뒤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6.9%,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12.3%, 기타 6.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50대 이하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41.7%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학교 진학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아 50대 이하, 60대와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주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한글 공부까지만 하고 싶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권 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학교 진학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4.7%로 과반을 차지했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학교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진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학교 진학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진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한글공부까지만 하고 싶어서 진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가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한글 공부까지만 하고 싶어서 진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집단은 학교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진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넘었다.

(단위 : %)



〈그림 4-1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지 않은 이유

〈표 4-41〉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학교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 진학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한글 공부까지만 하고 싶어서		기타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24	18.5	22	16.9	16	12.3	30	23.1	29	22.3	9	6.9	130	100.0
	50대 이하	0	0.0	5	41.7	2	16.7	2	16.7	2	16.7	1	8.3	12	100.0
	60대	12	17.9	14	20.9	14	20.9	11	16.4	12	17.9	4	6.0	67	100.0
	70대 이상	12	23.5	3	5.9	0	0.0	17	33.3	15	29.4	4	7.8	51	100.0
지역	계	24	18.5	22	16.9	16	12.3	30	23.1	29	22.3	9	6.9	130	100.0
	전주권	21	21.9	17	17.7	14	14.6	8	8.3	29	30.2	7	7.3	96	100.0
	전주권 외	3	8.8	5	14.7	2	5.9	22	64.7	0	0.0	2	5.9	34	100.0
배우자 유무	계	24	18.5	22	16.9	16	12.3	30	23.1	29	22.3	9	6.9	130	100.0
	있다	15	21.1	18	15.4	7	9.9	11	15.5	14	19.7	6	8.5	71	100.0
	없다	9	15.3	4	6.8	9	15.3	19	32.2	15	25.4	3	5.1	59	100.0
일자리 활동	계	24	18.5	22	16.9	16	12.3	30	23.1	29	22.3	9	6.9	130	100.0
	하고 있다	1	2.4	19	46.3	7	17.1	9	22.0	1	2.4	4	9.8	41	100.0
	하고있지 않다	23	25.8	3	3.4	9	10.1	21	23.6	28	31.5	5	5.6	89	100.0
월평균 수입	계	24	18.8	22	17.2	16	12.5	28	21.9	29	22.7	9	7.0	128	100.0
	100만원 미만	15	16.9	7	7.9	9	10.1	23	25.8	28	31.5	7	7.9	8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	32.1	9	32.1	7	25.0	2	7.1	1	3.6	0	0.0	28	100.0
	200만원 이상	0	0.0	6	54.5	0	0.0	3	27.3	0	0.0	2	18.2	11	100.0

■ 학교 진학으로 인한 문제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진학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 불편 및 학교가 멀어서 진학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 2.50점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6.7%,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하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평균 2.48점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2.5%,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1.7%였다.

세 번째는 긴 교육과정을 문제로 꼽았는데, 평균 2.19점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2.8%,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7.0%로 분석되었다.

중도에 포기할까 하는 두려움이 문제가 된다는 응답은 평균 2.17점, 공부하는 동안의 건강상태와 수업료·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은 각각 2.15점이었다.

문제점의 평균 점수가 낮아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되는 문항은 주변 사람의 시선이 평균 1.79점, 자녀·손자녀 돌봄이 1.61점, 부모·환자 등 가족 돌봄이 1.55점, 가족의 반대가 1.54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가족의 반대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2.2%,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4.3%에 불과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하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60대가 2.70점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2.47점, 70대 이상이 1.78점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 불편 및 학교가 멀어서 진학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이 2.07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2.43점으로 두 번째, 70대 이상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해당 문항의 응답이 평균 2.17점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평균 2.79점으로 분석되어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가 멀다는 점을 진학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하는 동안 건강상태를 어려움으로 꼽은 집단은 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평균 2.57점으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1.90점,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71점으로 나타나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공부하는 동안의 건강상태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명, %)

구분	평균 (4점)	문제 없다						문제가 되는 편이다						계	
				전혀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가 된다		크게 문제가 된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교통 불편 및 학교가 멀어서	2.50	24	50.0	8	16.7	16	33.3	24	50.0	16	33.3	8	16.7	48	100.0
일하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음	2.48	22	45.8	9	18.8	13	27.0	26	54.2	20	41.7	6	12.5	48	100.0
긴 교육과정 (3년 6학기)	2.19	33	70.2	11	23.4	22	46.8	14	29.8	8	17.0	6	12.8	47	100.0
중도에 포기할까 두려움	2.17	28	59.6	14	29.8	14	29.8	19	40.4	16	34.0	3	6.4	47	100.0
공부하는 동안 건강상태	2.15	31	64.6	13	27.1	18	37.5	17	35.4	14	29.2	3	6.2	48	100.0
수업료,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2.15	31	66.0	13	27.7	18	38.3	16	34.0	12	25.5	4	8.5	47	100.0
주변 사람의 시선	1.79	40	85.1	18	38.3	22	46.8	7	14.9	6	12.8	1	2.1	47	100.0
자녀, 손자녀 돌봄	1.61	40	87.0	24	52.2	16	34.8	6	13.0	6	13.0	0	0.0	46	100.0
부모, 환자 등 가족 돌봄	1.55	43	91.4	27	57.4	16	34.0	4	8.6	2	4.3	2	4.3	47	100.0
가족의 반대	1.54	43	93.5	25	54.3	18	39.2	3	6.5	2	4.3	1	2.2	46	100.0

〈표 4-4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시 예상되는 어려움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구분		명	M	SD	t/F	p
수업료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계		47	2.15	0.932	-	-
일하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음	계		47	2.47	0.952	-	-
	연령	50대 이하	15	2.53	0.834	3.393	.043*
		60대	23	2.70	0.876		
		70대 이상	9	1.78	1.093		
	계						
	일자리 활동	하고 있다	23	2.04	.878	3.964	.000***
		하고 있지 않다	24	2.26	1.010		
교통 불편 및 학교가 멀어서	계		47	2.49	0.975	-	-
	연령	50대 이하	15	2.07	0.799	5.826	.006**
		60대	23	2.43	0.896		
		70대 이상	9	3.33	1.000		
	계						
	일자리 활동	하고 있다	23	2.17	.937	-2.266	.028*
		하고 있지 않다	24	2.79	.932		
가족의 반대	계		46	1.54	0.690	-	-
자녀, 손자녀 돌봄	계		46	1.61	0.714	-	-
부모, 환자 등 가족 돌봄	계		47	1.55	0.775	-	-
주변 사람의 시선	계		47	1.79	0.750	-	-
중도에 포기할까 두려움	계		47	2.17	0.940	-	-
공부하는 동안 건강상태	계		47	2.17	0.892	-	-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3	2.57	0.896	5.408	.00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1.90	0.738		
		200만원 이상	14	1.71	0.726		
	계						
	일자리 활동	하고 있다	23	1.83	.834	-2.769	.008**
		하고 있지 않다	24	2.50	.834		
긴 교육과정	계						
	일자리 활동	하고 있다	23	1.91	.733	-2.296	.027*
		하고 있지 않다	23	2.52	1.039		

주 : *p<.05, **p<.01, ***p<.001

다)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 학교 운영 개선 사항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6개 문항에 대한 미진학생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진학생의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방안은 전주 지역 외에 2~3개 분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반대 20.2%, 반대 22.1%로 부정적 의견이 42.3%인데 반해 긍정적 의견은 찬성 26.9%, 적극 찬성 30.8% 총 57.7%였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이 전주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방안은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 실시 등 탄력적으로 교육 운영을 하는 방안이었으며 적극 반대 27.5%, 반대 15.7%로 부정적 의견이 43.2%를 차지했고 찬성 33.3%, 적극 찬성 23.5%로 긍정적 의견은 56.8%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53점이었다.

세 번째 방안은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신설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안은 적극 반대 31.9%, 반대 13.0%로 부정적 의견이 44.9%, 찬성 28.0%, 적극 찬성 27.1%로 긍정적 의견이 55.1%이며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5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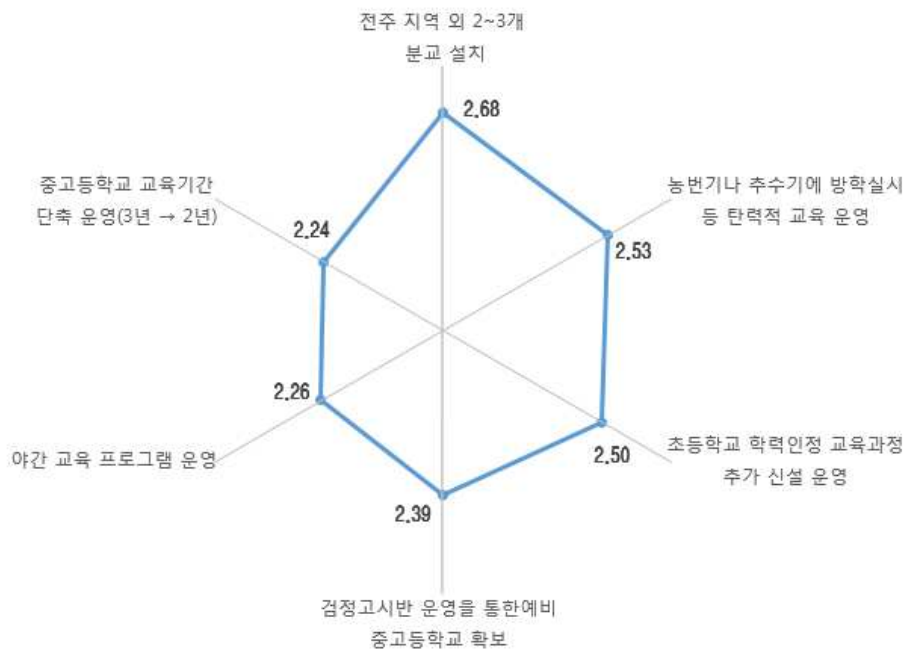
네 번째는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생을 확보하는 방안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야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두 방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2.39점과 2.26점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방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방안이었으며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24점이었다. 적극 반대 38.8%, 반대 15.1%로 부정적 의견이 53.9%였으며 찬성 29.6%, 적극찬성 16.5%로 긍정적 의견은 46.1%였다.

〈표 4-44〉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4점)	반대인 편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주 지역 외 2~3개 분교 설치	2.68	88	42.3	42	20.2	46	22.1	120	57.7	56	26.9	64	30.8	208	100.0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실시 등 탄력적 교육 운영	2.53	88	43.2	56	27.5	32	15.7	116	56.8	68	33.3	48	23.5	204	100.0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 운영	2.50	93	44.9	66	31.9	27	13.0	114	55.1	58	28.0	56	27.1	207	100.0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생 확보	2.39	100	48.5	69	33.5	31	15.0	106	51.5	62	30.1	44	21.4	206	100.0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6	118	56.7	71	34.1	47	22.6	90	43.3	54	26.0	36	17.3	208	100.0
중고등학교 교육기간 단축 운영(3년 → 2년)	2.24	111	53.9	80	38.8	31	15.1	95	46.1	61	29.6	34	16.5	206	100.0



〈그림 4-14〉 도립 여성중고등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별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주 지역 외 2~3개 분교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일자리활동, 월평균 수입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58.1%가 긍정적 응답을, 60대는 60.6%가 긍정적 응답을, 70대 이상은 52.8%가 긍정적 응답을 하여 60대가 전주 지역 외 2~3개 분교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권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5.2%인데 반해 전주권 외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82.9%로 나타나 전주권 외 지역에서 분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보다 분교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5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55.8%, 200만원 이상은 65.5% 분교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실시 등 탄력적 교육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연령, 지역, 일자리활동, 월평균 수입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45.2%가 긍정적 응답을, 60대는 51.4%가 긍정적 응답을 한데 반해 70대 이상은 31.0%만 긍정적 응답을 하여 50대 이하, 60대보다 70대 이상이 탄력적 교육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주권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31.7%에 불과하였으나 전주권 외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66.6%로 나타나 전주권 외 지역에서 탄력적 교육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 64.6%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 30.7%보다 탄력적 교육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37.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51.2%, 200만원 이상은 62.0%로 수입이 높을수록 탄력적 교육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 운영과 검정고시 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생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별로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사항 모두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지역별로는 전주권 외 지역이 전주권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었고, 월평균 수입별로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

이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 운영과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생 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48.4%가 긍정적 응답을, 60대는 54.4%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70대 이상은 47.9%만 긍정적 응답을 하여 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주권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0.3%에 불과하였으나 전주권 외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74.6%로 나타나 전주권 외 지역에서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는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 62.9%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 44.5%보다 교육기간 단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52.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7.2%, 200만원 이상은 69.0%로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적은 사람들보다 교육기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지역별로는 전주권 외 지역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별로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응답자 특성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주 지역 외 2~3개 분교 설치	연령	계	42	20.3	46	22.2	56	27.1	63	30.4	207	100.0
		50대 이하	6	19.4	7	22.6	8	25.8	10	32.3	31	100.0
		60대	20	19.2	21	20.2	40	38.5	23	22.1	104	100.0
		70대 이상	16	22.2	18	25.0	8	11.1	30	41.7	72	100.0
	지역	계	42	20.2	46	22.1	56	26.9	64	30.8	208	100.0
		전주권	39	28.3	37	26.8	39	28.3	23	16.9	138	100.0
		전주권 외	3	4.3	9	12.9	17	24.3	41	58.6	70	100.0
	배우자 유무	계	42	20.2	46	22.1	56	26.9	64	30.8	208	100.0
		있다	22	18.3	32	26.7	35	29.2	31	25.8	120	100.0
		없다	20	22.7	14	15.9	21	23.9	33	37.5	88	100.0
	일자리 활동	계	42	20.4	46	22.3	56	27.2	62	30.1	206	100.0
		하고 있다	8	10.3	16	20.5	32	41.0	22	28.2	78	100.0
		하고있지 않다	34	26.6	30	23.4	24	18.8	40	31.3	128	100.0
	월평균 수입	계	41	20.1	45	22.1	55	27.0	63	30.9	204	100.0
		100만원 미만	36	27.3	21	15.9	26	19.7	49	37.1	13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4.7	17	39.5	17	39.5	7	16.3	43	100.0
		200만원 이상	3	10.3	7	24.1	12	41.4	7	24.1	29	100.0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 실시 등 탄력적 교육 운영	연령	계	70	33.8	47	22.7	54	26.1	36	17.4	207	100.0
		50대 이하	6	19.4	11	35.5	6	19.4	8	25.8	31	100.0
		60대	27	25.7	24	22.9	39	37.1	15	14.3	105	100.0
		70대 이상	37	52.1	12	16.9	9	12.7	13	18.3	71	100.0
	지역	계	71	34.1	47	22.6	54	26.0	36	17.3	208	100.0
		전주권	61	43.9	34	24.5	31	22.3	13	9.4	139	100.0
		전주권 외	10	14.5	13	18.8	23	33.3	23	33.3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71	34.1	47	22.6	54	26.0	36	17.3	208	100.0
		있다	37	30.8	26	21.7	38	31.7	19	15.8	120	100.0
		없다	34	38.6	21	23.9	16	18.2	17	19.3	88	100.0
	일자리 활동	계	70	34.0	46	22.3	54	26.2	36	17.5	206	100.0
		하고 있다	9	11.4	19	24.1	36	45.6	15	19.0	79	100.0
		하고있지 않다	61	48.0	27	21.3	18	14.2	21	16.5	127	100.0
	월평균 수입	계	68	33.3	47	23.0	53	26.0	36	17.6	204	100.0
		100만원 미만	55	41.7	28	21.2	22	16.7	27	20.5	13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27.9	9	20.9	18	41.9	4	9.3	43	100.0
		200만원 이상	1	3.4	10	34.5	13	44.8	5	17.2	29	100.0

구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 운영	연령	계	56	27.6	31	15.3	48	33.5	48	23.6	203	100.0
		50대 이하	5	16.7	8	26.7	10	33.3	7	23.3	30	100.0
		60대	22	21.2	15	14.4	50	48.1	17	16.3	104	100.0
		70대 이상	29	42.0	8	11.6	8	11.6	24	34.8	69	100.0
	지역	계	56	27.5	32	15.7	68	33.3	48	23.5	204	100.0
		전주권	47	34.1	27	19.6	44	31.9	20	14.5	138	100.0
		전주권 외	9	13.6	5	7.6	24	36.4	28	42.4	66	100.0
	배우자 유무	계	56	27.5	32	15.7	68	33.3	48	23.5	204	100.0
		있다	28	23.5	24	20.2	46	38.7	21	17.6	119	100.0
		없다	28	32.9	8	9.4	22	25.9	27	31.8	85	100.0
	일자리 활동	계	55	27.2	31	15.3	68	33.7	48	23.8	202	100.0
		하고 있다	8	10.3	14	17.9	40	51.3	16	20.5	78	100.0
		하고있지 않다	47	37.9	17	13.7	28	22.6	32	25.8	124	100.0
	월평균 수입	계	54	27.0	31	15.5	67	33.5	48	24.0	200	100.0
		100만원 미만	45	35.2	13	10.2	33	25.8	37	28.9	128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	18.6	9	20.9	21	48.8	5	11.6	43	100.0
		200만원 이상	1	3.4	9	31.0	13	44.8	6	20.7	29	100.0
검정고시반 운영을 통한 예비 중고등학생 확보	연령	계	66	32.0	27	13.1	58	28.2	55	26.7	206	100.0
		50대 이하	7	22.6	8	25.8	9	29.0	7	22.6	31	100.0
		60대	27	26.2	17	16.5	44	42.7	15	14.6	103	100.0
		70대 이상	32	44.4	2	2.8	5	6.9	33	45.8	72	100.0
	지역	계	66	31.9	27	13.0	58	28.0	56	27.1	207	100.0
		전주권	58	42.0	22	16.0	40	29.0	18	13.0	138	100.0
		전주권 외	8	11.6	5	7.2	18	26.1	38	55.1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66	31.9	27	13.0	58	28.0	56	27.1	207	100.0
		있다	36	30.0	18	15.0	43	35.8	23	19.2	120	100.0
		없다	30	34.5	9	10.3	15	17.2	33	37.9	87	100.0
	일자리 활동	계	66	32.2	27	13.2	58	28.3	54	26.3	205	100.0
		하고 있다	10	12.8	19	24.4	34	43.6	15	19.2	78	100.0
		하고있지 않다	56	44.1	8	6.3	24	18.9	39	30.7	127	100.0
	월평균 수입	계	64	31.5	27	13.3	57	28.1	55	27.1	203	100.0
		100만원 미만	49	37.1	8	6.1	34	25.8	41	31.1	13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	25.6	12	27.9	14	32.6	6	14.0	43	100.0
		200만원 이상	4	14.3	7	25.0	9	32.1	8	28.6	28	100.0

구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중고등학교 교육기간 단축 운영(3년 → 2년)	연령	계	69	33.7	31	15.1	62	30.2	43	21.0	205	100.0
		50대 이하	7	22.6	9	29.0	12	38.7	3	9.7	31	100.0
		60대	30	29.1	17	16.5	45	43.7	11	10.7	103	100.0
		70대 이상	32	45.1	5	7.0	5	7.0	29	40.9	71	100.0
	지역	계	69	33.5	31	15.0	62	30.1	44	21.4	206	100.0
		전주권	55	39.6	28	20.1	41	29.5	15	10.8	139	100.0
		전주권 외	14	20.9	3	4.5	21	31.3	29	43.3	67	100.0
	배우자 유무	계	69	33.5	31	15.0	62	30.1	44	21.4	206	100.0
		있다	37	30.8	21	17.5	48	40.0	14	11.7	120	100.0
		없다	32	37.2	10	11.6	14	16.3	30	34.9	86	100.0
	일자리 활동	계	68	33.3	31	15.2	62	30.4	43	21.1	204	100.0
		하고 있다	12	15.4	17	21.8	41	52.6	8	10.3	78	100.0
		하고있지 않다	56	44.4	14	11.1	21	16.7	35	27.8	126	100.0
	월평균 수입	계	67	33.2	31	15.3	61	30.2	43	21.3	202	100.0
		100만원 미만	51	39.2	11	8.5	32	24.6	36	27.7	13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	30.2	14	32.6	13	30.2	3	7.0	43	100.0
		200만원 이상	3	10.3	6	20.7	16	55.2	4	13.8	29	100.0
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	계	80	39.0	31	15.1	61	29.8	66	16.1	205	100.0
		50대 이하	5	16.1	9	29.0	9	9.0	8	25.9	31	100.0
		60대	32	30.8	14	13.5	45	43.3	13	12.5	104	100.0
		70대 이상	43	61.4	8	11.4	7	10.0	12	17.1	70	100.0
	지역	계	80	38.8	31	15.0	61	29.6	34	16.5	206	100.0
		전주권	60	43.5	17	12.3	46	33.3	15	10.7	138	100.0
		전주권 외	20	29.4	14	20.6	15	22.1	19	27.9	68	100.0
	배우자 유무	계	80	38.8	31	15.0	61	29.6	34	16.5	206	100.0
		있다	38	31.7	18	15.0	46	38.3	18	15.0	120	100.0
		없다	42	48.8	13	15.1	15	17.4	16	18.6	86	100.0
	일자리 활동	계	80	39.2	31	15.2	61	29.9	32	15.7	204	100.0
		하고 있다	9	11.5	15	19.2	37	47.4	17	21.8	78	100.0
		하고있지 않다	71	56.3	16	12.7	24	19.0	15	11.9	126	100.0
	월평균 수입	계	78	38.6	31	15.3	60	29.7	33	16.3	202	100.0
		100만원 미만	63	48.5	16	12.3	31	23.8	20	15.4	13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	30.2	10	23.3	13	30.2	7	16.3	43	100.0
		200만원 이상	2	6.9	5	17.2	16	55.2	6	20.7	29	100.0

■ 남녀공학 전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미진학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반대 의견이 27.8%, 중립 의견이 26.8%, 찬성 의견이 45.4%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50대 이하는 반대 12.9%, 찬성 67.7%이고, 60대는 반대 22.9%, 찬성 44.8%, 70대 이상은 반대 42.0%, 찬성 36.2%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권이 찬성 41.2%, 전주권 외가 찬성 53.6%로 전주권 외의 지역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배우자에 따라서는 찬성 입장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반대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36.1%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2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62.5%의 높은 비율로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데 반해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41.9%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중립의견이 53.5%로, 200만원 이상은 찬성의견이 83.3%로 가장 높았다.

〈표 4-46〉 남녀공학 전환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녀공학 전환	3.11	57	27.8	46	22.4	11	5.4	55	26.8	93	45.4	61	29.8	32	15.6	2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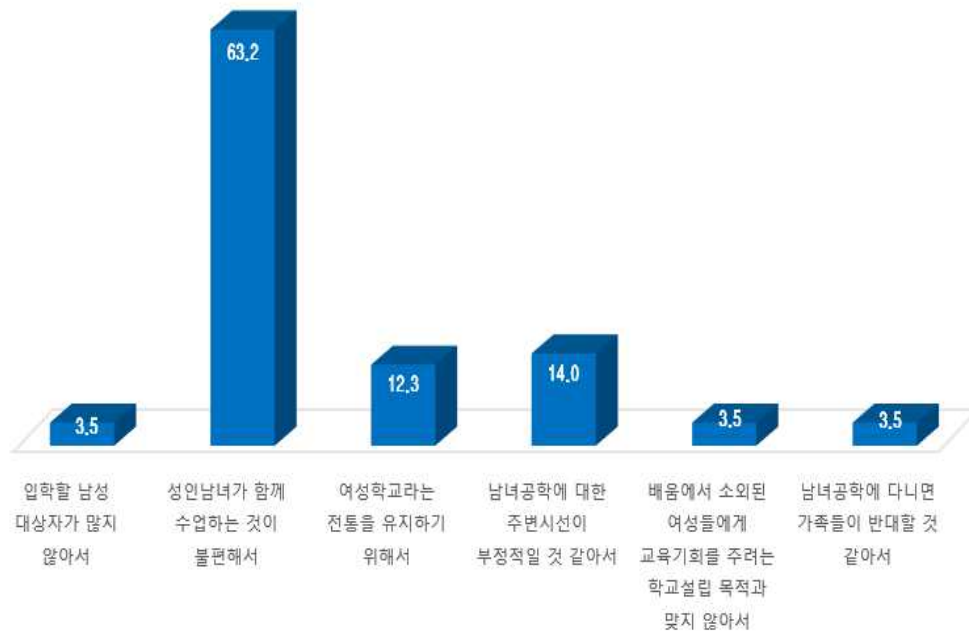
〈표 4-47〉 응답자 특성별 남녀공학 전환 의견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57	27.8	55	26.8	93	45.4	205	100.0
	50대 이하	4	12.9	6	19.4	21	67.7	31	100.0
	60대	24	22.9	34	32.4	47	44.8	105	100.0
	70대 이상	29	42.0	15	21.7	25	36.2	69	100.0
지역	계	57	27.8	55	26.8	93	45.4	205	100.0
	전주권	36	26.5	44	32.4	56	41.2	136	100.0
	전주권 외	21	30.4	11	15.9	37	53.6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57	27.8	55	26.8	93	45.4	205	100.0
	있다	27	22.1	40	32.8	55	45.1	122	100.0
	없다	30	36.1	15	18.1	38	45.8	83	100.0
일자리 활동	계	56	27.5	55	27.0	93	45.6	204	100.0
	하고 있다	6	7.5	24	30.0	50	62.5	80	100.0
	하고있지 않다	50	40.3	31	25.0	43	34.7	124	100.0
월평균 수입	계	57	28.2	53	26.2	92	45.5	202	100.0
	100만원 미만	54	41.9	27	20.9	48	37.2	12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	2.3	23	53.5	19	44.2	43	100.0
	200만원 이상	2	6.7	3	10.0	25	83.3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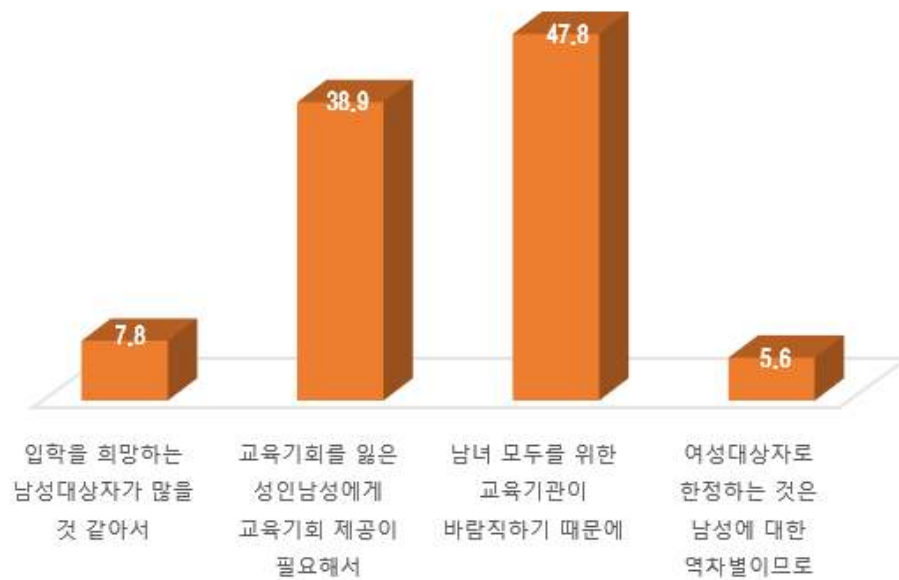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성인 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2%로 가장 많았고, 남녀공학에 대한 주변시선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남녀공학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4.0%, 여성학교라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12.3%, 입학할 남성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배움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아서, 남녀공학에 다니면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가 각각 3.5%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찬성 이유는 남녀 모두를 위한 교육기관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47.8%, 교육기회를 잃은 남성에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해서 38.9%, 입학을 희망하는 남성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7.8%, 여성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5.6% 순이었다.

(단위 : %)



〈그림 4-15〉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유

(단위 : %)



〈그림 4-16〉 남녀공학 전환 찬성 이유

응답자의 남녀공학 전환시 입학 의사를 분석한 결과,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도 입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고, 입학과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21.4%는 더 이상 교육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5.7%는 입학하겠다, 13.8%는 입학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지역, 일자리활동, 월평균 수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남녀공학 전환시 입학하겠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은 입학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전주권은 더 이상 교육받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주권 외에서는 남녀공학 여부와 입학이 관계없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활동별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녀공학 여부와 입학이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32.8%가 입학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입학하지 않겠다고와 더 이상 교육받을 생각이 없다는 각 27.8%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입학하겠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 이상은 남녀공학 여부와 관계없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고 입학하겠다는 응답이 30.0%로 뒤를 이었다.

〈표 4-48〉 남녀공학 전환시 입학 의사

(단위 : 명, %)

구분	명	%	
입학하겠다	33	15.7	입학하겠다 15.7
입학을 고려해보겠다	29	13.8	입학을 고려해보겠다 13.8
입학하지 않겠다	53	25.3	입학하지 않겠다 25.3
더 이상 교육 받을 생각이 없다	45	21.4	더 이상 교육 받을 생각이 없다 21.4
남녀공학 여부와 관계없다	50	23.8	남녀공학 여부와 관계없다 23.8
계	210	100.0	

〈표 4-49〉 응답자 특성별 전환시 입학 의사

(단위 : 명, %)

구분		입학하겠다		입학을 고려해 보겠다		입학하지 않겠다		더 이상 교육받을 생각이 없다		남녀공학 여부와 관계없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33	15.7	29	13.8	53	25.2	45	21.4	50	23.8	210	100.0
	50대 이하	11	35.5	5	16.1	3	9.7	4	12.9	8	25.8	31	100.0
	60대	12	11.3	21	19.8	25	23.6	24	22.6	24	22.6	106	100.0
	70대 이상	10	13.7	3	4.1	25	34.2	17	23.3	18	24.7	73	100.0
지역	계	33	15.7	29	13.8	53	25.2	45	21.4	50	23.8	210	100.0
	전주권	16	11.3	17	12.1	38	27.0	41	29.1	29	20.6	141	100.0
	전주권 외	17	24.6	12	17.4	15	21.7	4	5.8	21	30.4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33	15.7	29	13.8	53	25.2	45	21.4	50	23.8	210	100.0
	있다	23	18.7	19	15.4	31	25.2	21	17.1	29	23.6	123	100.0
	없다	10	11.5	10	11.5	22	25.3	24	27.6	21	24.1	87	100.0
일자리 활동	계	33	15.8	29	13.9	53	25.4	45	21.5	49	23.4	209	100.0
	하고 있다	23	28.4	15	18.5	11	13.6	8	9.9	24	29.6	81	100.0
	하고있지 않다	10	7.8	14	10.9	42	32.8	37	28.9	25	19.5	128	100.0
월평균 수입	계	33	15.9	28	13.5	51	24.6	45	21.7	50	24.2	207	100.0
	100만원 미만	12	9.0	18	13.5	37	27.8	37	27.8	29	21.8	133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27.3	3	6.8	11	25.0	7	15.9	11	25.0	44	100.0
	200만원 이상	9	30.0	7	23.3	3	10.0	1	3.3	10	33.3	30	100.0

■ 사이버 교육 병행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한 미진학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적극 반대 6.2%, 반대 16.1%로 총 22.3%였으며 중립은 36.0%, 찬성하는 의견은 찬성 25.1%, 적극 찬성 16.6%로 총 41.7%로 나타나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교육 병행에 대한 평균점수는 3.30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 지역, 일자리 활동, 월평균 수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50대 이하는 반대 12.9%, 찬성 67.7%이고, 60대는 반대 18.9%, 찬성 42.5%, 70대 이상은 반대 31.1%, 찬성 29.7%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권이 찬성 35.9%, 전주권 외가 찬성 53.6%로 전주권 외의 지역에서 사이버 교육 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거주지역이 떨어져 있는 타 시군의 거주자가 전주권의 거주자보다 학교 통학 등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자리 활동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65.4%의 높은 비율로 사이버 교육 병행을 찬성하는데 반해 일자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보통이라는 의견이 4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반대 의견이 30.2%로 뒤따랐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41.8%가 사이버 교육 병행에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찬성 의견이 52.3%, 200만원 이상은 찬성의견이 73.3%로 가장 높았다.

〈표 4-50〉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사이버교육 병행	3.30	47	22.3	13	6.2	34	16.1	76	36.0	88	41.7	53	25.1	35	16.6	2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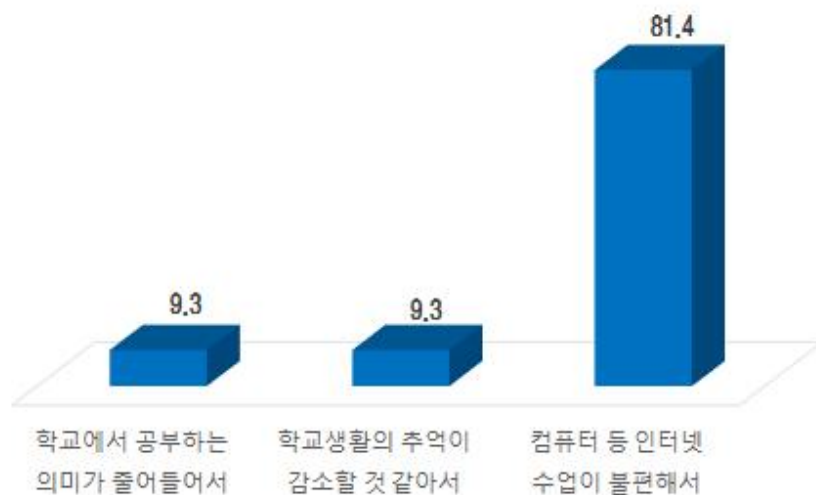
〈표 4-51〉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47	22.3	76	36.0	88	41.7	211	100.0
	50대 이하	4	12.9	6	19.4	21	67.7	31	100.0
	60대	20	18.9	41	38.7	45	42.5	106	100.0
	70대 이상	23	31.1	29	39.2	22	29.7	74	100.0
지역	계	47	22.3	76	36.0	88	41.7	211	100.0
	전주권	23	16.2	68	47.9	51	35.9	142	100.0
	전주권 외	24	34.8	8	11.6	37	53.6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47	22.3	76	36.0	88	41.7	211	100.0
	있다	24	19.5	43	35.0	56	45.5	123	100.0
	없다	23	26.1	33	37.5	32	36.4	88	100.0
일자리 활동	계	46	21.9	76	36.2	88	41.9	210	100.0
	하고 있다	7	8.6	21	25.9	53	65.4	81	100.0
	하고있지 않다	39	30.2	55	42.6	35	27.1	129	100.0
월평균 수입	계	46	22.1	75	36.1	87	41.8	208	100.0
	100만원 미만	36	26.9	56	41.8	42	31.3	13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15.9	14	31.8	23	52.3	44	100.0
	200만원 이상	3	10.0	5	16.7	22	73.3	30	100.0

사이버교육 병행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반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이 불편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81.4%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줄어들어서, 학교생활의 추억이 감소할 것 같아서 반대하는 의견은 각각 9.3%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4-17〉 사이버교육 병행 반대 이유

〈표 4-52〉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4	9.3	4	90.3	35	81.4	43	100.0
	50대 이하	0	0.0	0	0.0	2	100.0	2	100.0
	60대	4	21.1	2	10.5	13	68.4	19	100.0
	70대 이상	0	0.0	2	9.1	20	90.9	22	100.0
지역	계	3	14.3	3	14.3	15	71.4	43	100.0
	전주권	3	14.3	3	14.3	15	71.4	21	100.0
	전주권 외	1	4.5	1	4.5	20	90.9	22	100.0
배우자 유무	계	4	9.3	4	9.3	35	81.4	43	100.0
	있다	2	9.1	2	9.1	18	81.8	22	100.0
	없다	2	9.5	2	9.5	17	81.0	21	100.0
일자리 활동	계	4	9.5	4	9.5	34	81.0	42	100.0
	하고 있다	1	16.7	0	0.0	5	83.3	6	100.0
	하고있지 않다	3	8.3	4	11.1	29	80.6	36	100.0
월평균 수입	계	4	9.5	4	90.5	34	81.0	42	100.0
	100만원 미만	3	8.8	3	8.8	28	82.4	3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	16.7	1	16.7	4	66.7	6	100.0
	200만원 이상	0	0.0	0	0.0	3	100.0	4	100.0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미진학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나타났다. 적극 반대 15.6%와 반대 10.0%를 포함한 부정적 의견은 25.6%였으며, 보통이라는 중립의 의견은 22.2%, 찬성 33.9%와 적극 찬성 18.3%를 포함한 긍정적인 의견은 52.2%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진학생들은 도립여성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 특성으로는 50대는 보통이다가 42.9%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70대 이상은 찬성이 의견이 51.1%, 60.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전주권에서는 반대 30.4%, 찬성 48.2%인데 반해 전주권 외에서는 반대 17.6%, 찬성 58.8%로 전주권 외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활동은 찬성 의견은 큰 차이가 없으나 반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6.3%인데 반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33.3%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평균 (5점)	반대인 편이다						보통 이다	찬성인 편이다						계		
		적극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학기제	3.29	46	25.6	28	15.6	18	10.0	40	22.2	94	52.2	61	33.9	33	18.3	180	100.0

〈표 4-54〉 응답자 특성별 사이버 교육 병행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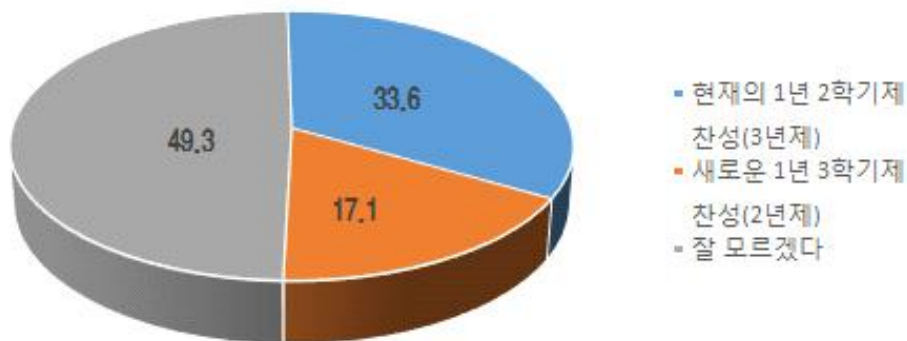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반대		보통이다		찬성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46	25.6	40	22.2	94	52.2	180	100.0
	50대 이하	5	17.8	12	42.9	11	39.3	28	100.0
	60대	20	21.3	26	27.6	48	51.1	94	100.0
	70대 이상	21	36.3	2	3.4	35	60.3	58	100.0
지역	계	46	25.6	40	22.2	94	52.2	180	100.0
	전주권	34	30.4	24	21.4	54	48.2	112	100.0
	전주권 외	12	17.6	16	23.5	40	58.8	68	100.0
배우자 유무	계	46	25.6	40	22.2	94	52.2	180	100.0
	있다	27	24.8	29	26.6	53	48.6	109	100.0
	없다	19	26.8	11	15.5	41	57.7	71	100.0
일자리 활동	계	46	25.7	40	22.3	93	52.0	179	100.0
	하고 있다	13	16.3	26	32.5	41	51.3	80	100.0
	하고있지 않다	33	33.3	14	14.1	52	52.5	99	100.0
월평균 수입	계	44	24.9	39	22.0	94	53.1	177	100.0
	100만원 미만	26	25.0	21	20.2	57	54.8	10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27.9	11	25.6	20	46.5	43	100.0
	200만원 이상	6	20.0	7	23.3	17	56.7	30	100.0

■ 교육기간 단축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1년 2학기제(3년제)와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1년 3학기제(2년제) 중 미진학자들이 원하는 학기제를 분석한 결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49.3%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33.6%,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17.1%로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교육기간 단축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주권은 62.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와 1년 2학기제(2년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똑같이 19.0%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권 외는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63.8%로 나타나 전주권 외에서는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1년 2학기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



〈그림 4-18〉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표 4-55〉 응답자 특성별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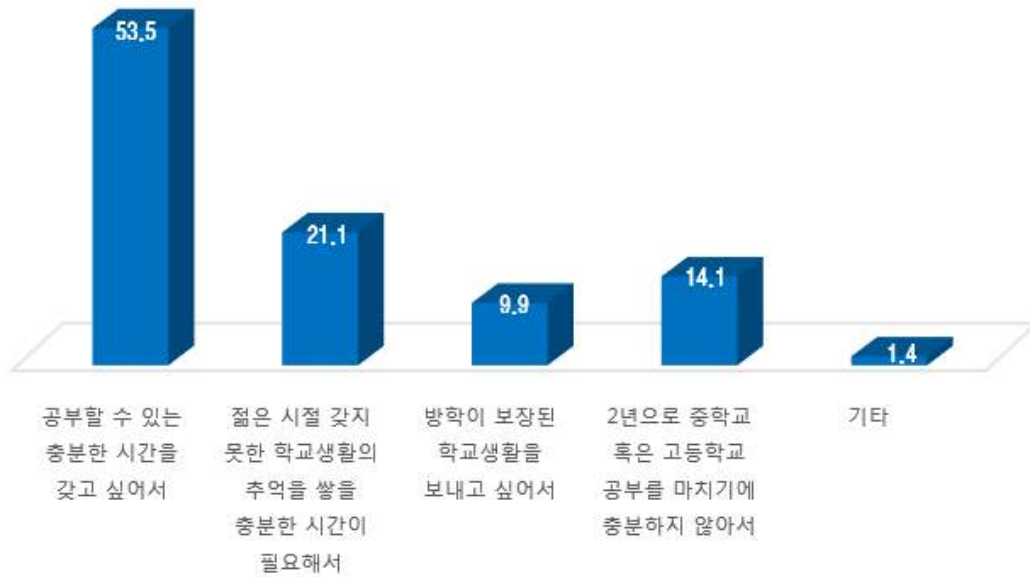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현재의 1년 2학기제 찬성(3년제)		잘 모르겠다		새로운 1년 3학기제 찬성(2년제)		계	
		명	%	명	%	명	%	명	%
연령	계	71	33.6	104	49.3	36	17.1	211	100.0
	50대 이하	9	29.0	17	54.8	5	16.2	31	100.0
	60대	36	34.0	54	50.9	16	15.1	106	100.0
	70대 이상	26	35.1	33	44.6	15	20.3	74	100.0
지역	계	71	33.6	104	49.3	36	17.1	211	100.0
	전주권	27	19.0	88	62.0	27	19.0	142	100.0
	전주권 외	44	63.8	16	23.2	9	13.0	69	100.0
배우자 유무	계	71	33.6	104	49.3	36	17.1	211	100.0
	있다	39	31.7	64	52.0	20	16.3	123	100.0
	없다	32	36.4	40	45.5	16	18.2	88	100.0
일자리 활동	계	70	33.3	104	49.5	36	17.2	210	100.0
	하고 있다	32	39.5	32	39.5	17	21.0	81	100.0
	하고있지 않다	38	29.5	72	55.8	19	14.7	129	100.0
월평균 수입	계	71	34.1	102	49.0	35	16.8	208	100.0
	100만원 미만	44	32.8	67	50.0	23	17.2	134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	31.8	23	52.3	7	15.9	44	100.0
	200만원 이상	13	43.3	12	40.0	5	16.7	30	100.0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찬성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쫓은 시절 갖지 못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21.1%, 2년으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4.1%로 나타났다. 방학이 보장된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9.9%로 기타 1.4%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반면 1년 3학기제(2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찬성 이유는 기타와 2년 동안 학교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5.1%, 상급학교에 빨리 진학하고 싶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2.1%로 조사되었다.

(단위 : %)



〈그림 4-19〉 1년 2학기제(3년제) 찬성 이유

(단위 : %)



〈그림 4-20〉 1년 3학기제(2년제) 찬성 이유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방안

미진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한 홍보방안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고, TV 광고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7.3%로 두 번째였다. 뒤를 이어 인터넷/홈페이지 11.0%, 학교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9.1%, 지역정보 소식지/지역신문 8.6% 순으로 미진학생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보방안

(단위 : 명, %)

구분	명	%
행정기관의 소개	72	34.4
TV 광고 및 프로그램	57	27.3
인터넷 / 홈페이지	23	11.0
학교 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19	9.1
지역정보 소식지 / 지역신문	18	8.6
교재배포	6	2.9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	2.4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특별활동팀의 시군축제 참여	4	1.9
일반인 대상의 바자회 등의 행사	4	1.9
시군축제에서 교지 및 학교소개자료 배포	1	0.5
계	71	100.0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가.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1) FGI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들음으로써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통하여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FGI 그룹 구성은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집중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룹 내부의 이질성은 낮게, 그룹 간의 이질성은 높게 되어야 한다.(이병숙·강성래·김혜옥, 201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FGI 인터뷰 집단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제 1그룹(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으로, 외부 전문가를 한 제 2그룹(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외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로 구성된 내부집단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분리함으로써 그룹 내의 이질성은 줄이고, 그룹 간의 이질성은 높이기 위함이다. 포커스그룹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57〉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FGI 제1그룹: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

	성별	연령	신분	거주지역	졸업시기 /재학학년	직업
1	여	60	졸업생	전주시	고 : 1회	정치인
2	여	64	졸업생	전주시	중 : 5회 고 : 8회	개인 사업
3	여	56	졸업생	전주시	중 : 3회 고 : 6회	상담교사
4	여	61	졸업생	전주시	고 : 9회	사회복지 관련
5	여	64	졸업생	익산시	중 : 7회 고 : 10회	사회복지 관련
6	여	63	졸업생	익산시	중 : 2회 고 : 5회	아동복지 교사
7	여	61	졸업생	익산시	중 : 5회 고 : 12회	사회복지 관련
8	여	64	재학생	전주시	중 3	학생
9	여	53	재학생	전주시	중 3	학생
10	여	59	재학생	전주시	고 3	학생
11	여	70	재학생	전주시	고 3	학생
12	여	63	재학생	전주시	고 2	학생
13	여	64	재학생	전주시	고 3	학생
14	여	71	재학생	전주시	중 3	학생
	성별	연령	신분	직업		과목
15	여	61	교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과학
16	여	56	교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역사
17	여	60	교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사회
18	여	55	교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음악

〈표 4-58〉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FGI 제2그룹: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외부집단

	성별	연령	신분	직업	전문분야
1	여	48	전문가	교수	교육학
2	남	55	전문가	교수	교육학
3	여	45	전문가	교수	사회복지학
4	여	56	전문가	교수	행정학
5	여	57	전문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前교장	평생교육
6	여	63	전문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前교장	평생교육
7	남	58	전문가	전주주부학교 교장	평생교육

1) FGI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FGI 조사를 통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의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 학교운영 현황,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인 의견을 통하여 학교운영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GI 조사내용은 반구조화한 질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9〉 FGI 기초질문

구 분		질 문
재학생. 졸업생. 교사 대상 질문	학교 생활	1. 학령기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 2. 다른 학력인정 기관이 아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지원한 이유 3. 입학과정 및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4.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단점 5.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자기 효능감 여부
	교육 활동	1.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상호작용, 만족 여부 2. 학생들의 상담 이용도 및 만족도 3. 교사의 처우와 신분안정에 대한 의견, 요구도
(공통질문) 학교 운영 및 장기발전방안		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의의, 정체성, 기능 등에 대한 평가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교육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대응방안 의견 4. 남녀공학 전환, 1년 3학기제 전환, 특성화 교육, 주·야간 운영 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교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6.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7.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나. 심층면접조사(FGI) 분석결과

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 FGI 분석결과

가) 교육기회 배제와 성차별 경험

면접대상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업중단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피면접자는 그 이유를 교육의 기회가 남자형제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그룹1 14번)와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그룹1 4번) 모두 여성은 타의에 의해 남성이 온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저희 집은 내 밑에 아들 둘이 있는데 개들만 가르쳤어요. 개들 얹어 키우는 일을 내가 했어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가려고 아버지 몰래 새벽같이 중학교를 가서 체력장도 보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보내 주더라고요. 동생들 어쩌냐고. 개들 키우라고. 그래서 등록금도 안 주고 못 가게 혼내고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룹1 14번)

아버지 사업실패로 그리고 아래 두 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는 관계로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항상 공부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같이 중학교 공부를 할까. 같이 고등학교 오면 공부를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룹1 4번)

저도 제 밑으로 아들이 셋 있고, 또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는 옛날에 일본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책 같은 건 많이 보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엄해가지고 학교 보내지 말라 딱 거절 해버리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저 땀에 엄마가 눈물바람도 많이 하셨거든요. 못 보내가지고, 딸이라고 못 보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살면서 엄마가 그랬어요. 너는 그러면 어차피 공부를 못하니까 기술이나 배워라. (그룹1 8번)

또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으며 그것이 늦은 배움에 대한 기폭제가 되었다(그룹1 13번). 또 자신이 배우고 싶었음에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러한 마음이 자녀들이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그룹1 13번).

남편을 만나고. 애들을 딸 셋을 낳는데, 애들을 학교 공부 가르치는데도 내가 부족한 거 같고, 사회 나가서도 못 배운 것 때문에 항상 한이 남아서,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룹1 13번)

제가 꿈이 우리 애들을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주더라고요. 그 때만 해도 선생님을 좋게 생각을 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하나도 못 됐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룹1 13번)

나) 가족의 지지와 배움에 대한 보람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어려운 부분이 없었으며 가족의 지지를 통하여 배움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본인의 늦은 배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경우(그룹1 6번), 대학에 다닐 나이인 아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지를 받은 경우(그룹1 3번)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한층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났던 경험(그룹1 1번)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모두 가족, 특히 남편은 배움의 강한 동기이며 정서적 지지층으로 학교를 지속하여 다닐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남편이 시청에 다녔어요. 근데 공무원 형편에 차를 두 대를 굴릴 순 없잖아. 나한테 운전을 배우라고 하더니 중2 때 2년을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다니는게 안쓰러웠던가 나를 승용차를 주고 자기는 걸어다녔어 버스타고 다니고. 근데 고3이 됐는데 토요일날 컴퓨터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차를 쓰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걸어갔던가봐. 친구들이 ‘아주머니 돈 벌러 다녀?’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안식구 고3이야’라고 한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했냐고, 창피하게 그런 말을 했냐고 내가 막 화를 냈어. 그랬더니 ‘당신 학교 다니는게 창피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게 자랑이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 동네에서 중학교 가는 여자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었다. 전북에 당신 또래 여자들 80%는 중학교 안 나온 여자들이다. 그런데 지금도 다닌 척 하면서 안 다닌 사람이 용감하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용감하냐.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왜 그렇게 생각해.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해 걱정 말고.’ 그 말을 해주는데 내가 그때부터 안 숨기고 학교 다니는 걸 터놓고 다녔어요. (그룹1 6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제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 제가 1학년, 작은아들이 다음 년도에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그러는거예요. 아들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난 당신을 먼저 보내고 싶다. (그룹1 3번)

부인이 학교를 다니는 가정은 가정도 행복해요. 시험 볼 때 되면 자녀들한테 공부도 배우고, 남편도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 똑같이 자녀같이, 학부모 역할로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부인을 학교 보내면 딸 가르치는 것처럼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좋고, 가정이 행복해서 좋고. (그룹1 1번)

다) 남녀공학 전환 등에 관한 의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가족의 반대였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지지를 해주는 것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여성학교이기 때문이며(그룹1 8) 만약 학교가 남녀공학이라면 배우자가 절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그룹1 3)이라고 말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보,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이면, 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 당신은 보낼거야?’ 그랬더니 죽어도 안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룹 1 3번)

저희 남편이 남녀공학이었으면 안 보냈을거 같아요. 지금도 남자가 있냐 없냐 그런거 잘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도 안 계시고, 다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적극 지지를 해줘요. 제사 때 같은 때에도, 큰 아들인데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잘 해줘서 내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많이 지지해줘요. (그룹 1 8번)

또 다른 이유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었다. 여성끼리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반에 남자가 있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그룹1 17번)과 본인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학교이기 때문이며 가족의 반대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남녀공학으로 전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그룹1 13번)이 있었으며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설립 취지를 지켜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남성을 위한 반을 만들어야 한다면 남녀 합반이 아닌 성별로 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그룹1 15번)도 제시되었다.

다른 지역이 남녀공학인 데가 많잖아요. 정읍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성인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반에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감 느끼고. 우리 여자들끼리 편안하게 공부를 해야하는데, 혹시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한다고는 했었어요. 다른 지역은 남녀공학을 하고 있으니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룹1 17번)

저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여성학교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남녀가 섞여 있다고 하면 안 왔을 것 같고, 가족의 반대는 없겠지만 제가 남녀공학이라는게 탐탁지 않아요(그룹1 13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설립 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남성들이 섞이게 되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섞이게 됨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키고 온 것은 지켰으면 좋겠고. 가령 남성이 들어오고 싶다, 남성을 위한 반을 따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룹1 15번)

라) 여성학교에 대한 자부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똑같은 학사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과 똑같이 배우고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학창시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꼽혔다. 배움에 있어서 일반학생들과 같은 것들을 배우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졸업한다는 것은 그들의 큰 자부심이었다(그룹1 1). 또한 소풍이나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령기 학생들의 보통의 학교생활들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학생들이 큰 즐거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1 4,15).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정상적인 학교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자신 있게 중학교 졸업했네, 고등학교 졸업했

네, 그러고 정상적인 학교 흐름 과정을 체험을 하는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룹1 1)

진짜 잊지 못할 것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뭐 학교에서 현장학습 이런거 갈 때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렇게 재밌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인생에서 정말 제일로 재밌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에요. (그룹1 4)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학교 외의 다른 행사.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던지 소풍이라던지 이런 것들 통해서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공부만하는 학교가 아니고. 저는 이학교의 장점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학생생활을 똑같이, 학교생활을 일반 즐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하는 거. 여행도 가고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그런 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룹1 15)

또 다른 장점은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공부를 하며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과학이나 수학 등의 학문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경험(그룹1 11)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이 대학에 가서도 수업을 받고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그룹1 3)을 통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체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TV에서 뭐가 나오면 그냥 꺾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태양 탐사선이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달에 태양을 탐사를 한다. 그런 것들도 다 아는 것 같고, 열려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울 때와 안 배울 때의 차이가. 제가 설명은 못해요. 어쩔다는 설명은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열려 있는 거, 조금은 열려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도 아주 안 배운 것보다, 이 학교 오니까 과학도 가르쳐 주고 수학도 가르쳐 주고 어디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냐 하는데, 그런 점들은 그래도 좀 경험으로 얻고 듣고 세상을 좀 더 넓게 알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룹1 11)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일반 중학교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그 때는 잘 몰랐는데 3년 과정을 배우고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 3년 과정을 배우고 전주대학교 상담학과를 갔었거든요. 이게 3년 3년 이게 연단이잖아요. 그 때 의자에 앉아있는 거. 그것을 터득하고 선생님들한테 늘 공부를 배우고 그게 대학을 가니까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흡수가 되는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잘

업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학교 6년 공부하고 대학을 가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더라구요. 우리 학교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4년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교수님들 말씀에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룹1 3)

마지막으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동창생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특히 어느 곳에서도 터놓을 수 없었던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여고 모임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졸업 무렵에 모임을 짰어요. 신랑들을 졸업하기 전날인가 불러가지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신랑들이 대견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정말 좋은 추억이 있구요. 그 모임이 지금도 유지해서 외국을 한 서너번 갔어요. 그러면은 꼭 여고 동창생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못 배운 것이 우리 죄는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터놓고 같이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이 학교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다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추억들을 다 꼬집어내요 하나씩. 하나씩 추억들을 꺼내면서 한 방에서 꼭 부부가 가면 따로 방이 있어도 한 방으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 모임을 100% 다 모여요. (그룹1 4)

마) 학교운영실태 및 개선 문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부집단은 1년 3학기(2년)제보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 2학기(3년)제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그들은 2년제보다 3년제 교육과정을 따를 때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고(그룹1 10번), 3년의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단순히 졸업장을 따러 온 것이 아니라는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이 생긴다고(그룹1 1번) 말했다. 또한 고등학교로 바로 올라온 자신과 중학교 3년을 공부하고 올라온 학생들 간의 차이에 대한 경험담(그룹1 12번)을 통하여 3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히 길고 헛된 기간이 아님을 이야기하였다. 내부집단 중 교사들도 3년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여(그룹1 17번) 3년으로 운영

하는 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를 지지하였다.

2년은 어떻게 보면 졸업장을 따기 위한 그런 수업인거 같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하는 수업,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다 한다는게 3년이 더 좋아요. (그룹1 10번)

사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하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아줌마들이 대충 학교 그냥 얼렁뚱땅 다니는 학교로, 졸업장이나 따러 다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치만 저희들은 3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한 떳떳함 이렇게 있는거죠.(그룹 1 1번)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1년 반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문이나 컴퓨터 같은 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중학교 과정을 다 배웠다 해도 잊어버리고. 이 분들은 3년을 하고 오니까, 영어 같은 건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저희가 뭐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고 그러는데, 한문, 컴퓨터 그런 쪽에 있어서는 3년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저희는 떨어지더라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분들은 자격증도 있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컴퓨터도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다 있고, 한문도 자격증이 벌써 몇 급이 있고 그래서, 아 3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이뤄졌구나. 제가 이제 고2 돼서 절실하게 느껴요. (그룹1 12번)

근데 만족도는 그게 더 클거예요. 3년제로 하는 게. 학생들의 만족도.

(그룹1 17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집단 모두가 교사 및 행정담임에 대한 문제점을 꼽았다. 상주교사가 아닌 자원봉사 체제로 교사를 채용하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가르침에서의 성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그룹1 1번). 또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 서로 적응하고 맞춰나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업을 진행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그룹1 11번)도 있었다.

저희도 교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다른데서 투잡을 하잖아요. 여기만 몸담고 있는게 아니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시험을 똑같이 내서 문제가 됐던 선생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투잡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차등을 뒤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성의가 없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체제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저희들 욕심은 선생님들이 상근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해요. (그룹1 1번)

선생님이 바뀌면 선생님들도 저희들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니깐 힘들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선생님이 바뀌면 또 어떤 선생님이 와서 또 저희는 맞춰 나갈지, 어떤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조금 민감하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다 저희들 맞춰서 잘 해주십니다만은, 몇몇 분들이 그러지를 못해서 그냥 편히 저희들 수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열 번, 스무 번 알려줘야 아는 그 수준대로 해주시면 좋는데, 그냥 자기 아는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배움을 과시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룹1 11)

교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집단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 역시 성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자원봉사교사의 특성상 다음 계약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수를 받거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교사연수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이런 학생일수록 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사가 1년으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길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는데요. 이게 뭐 1,2년 새에 바뀔 수도 있고요, 일년 하다가 관둘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도 올스톱 되는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의 진전이 없어요. (그룹1 17번)

교사뿐 아니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구성하는 또 다른 구성원인 공무원(행정담임)에 대한 문제점도 재기되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행정담임이 학교나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그룹1 1번).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행정직이 장기간 학교에 근무를 하는 것을 희망했으며(그룹1 10번) 교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대안(그룹

1 17번)을 말하였다.

행정담임선생님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발령이 나면 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2에 와서도 3번째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기간이 길어야 학생들에 대한 특성도 알고 그러는데 얼굴 익힐만 하면 발령이 나서 가셔야 하고 또 다른 분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요. 장기간 학교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우리 반이 아닌 다른 반이라도, 여기 학생 특성이라던가 학교 특성을 좀 알고 하면 좋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룹1 10번)

전라북도에서 직원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순간 함께할 때에는 재밌어 해요 막 선생님 하니까 재밌어 하는데, 그게 학교 조금 와서 파악할만하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요. (그룹1 1번)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결혼도 안 한 젊은 아가씨가 여기 행정선생님으로 오시고. 이럴 때 굉장히 학생들이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전에는 우리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받을 때는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도록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룹1 17)

학교까지의 접근성 역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시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어렵지만 전주에서 통학을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애매한 거리상에 거주하여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다닌다고 가깝게 다닌다고 송천동으로 왔는데 이게 가까운 버스노선도 없고 차도 없고, 도보가 한 30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눈 비 때릴 때 죽겠는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택시로 올 수도 없고. 버스가 탈라면 저리 걸어 나가야 하는데 거기 가는 시간에 여기 와요. (그룹1 14번)

그래서 그렇게 생긴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거 참 버스 타기도 뭐하고, 이리는 아예 버스를 작정을 타고 다니니까. 남원서도 오고 군산서도 와요. 근데 시내권은 조금 애매모호한데가 있어요.(그룹1 8번)

바) 학교 장기 발전 방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장기 발전방안 중 직업교육 병행 등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집단의 반응이 엇갈렸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은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왔다기보다는 예전에 못 배웠던 한을 풀기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 왔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의견(그룹1 11번)과 현재 재학생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직업교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그룹1 16번) 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하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통 엄마들을 보면 자아실현, 자기만족을 위해서 그냥 배워야겠다는 차원으로 오는 이런 학생들이지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 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나 못 배웠던 거 좀 배우고 싶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룹1 11번)

저는 상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학교에 왔을 때는 평균연령이 50대 초반 40대도 더러 있었고. 그럴 때는 어쩌면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평균연령이 60대에요, 62세인가 그래요. 직업교육에서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새로운 직업들은 거의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생활하고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룹1 16번)

직업교육 병행 등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직업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그룹1 9번)과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직업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그룹1 18번)이 있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조금 젊으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직업적으로 그런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또 저희가 학교 끝나고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도 직업적으로 그런 활동,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냥 공부, 운동 다 그런 건데, 동아리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룹1 9번)

여기를 일단 들어온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개인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기가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거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예상할 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직업을, 직업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만족감도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룹1 18번)

또 다른 장기 발전 방안인 야간반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주간 3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생업으로 인하여 학교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분들이 학력 상승이 된다면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그룹1 15번)이 찬성의 주된 이유였다.

여성을 야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와서 배우고 싶어도 일 때문에 계속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간에는 안하느냐. 그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학력상승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 훨씬 더 젊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그런 야간 운영은 검토해보는 게, 여성을 위한 야간. 나중에 직업인으로서도 더 학력에, 현재 그분들은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야간 대학도 많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완전 배제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룹1 15번)

정말로 야간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낮에 온 벌고 저녁에는 와서 공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학교 자체에서 야간수업을 안하니까.. (그룹1 3번)

마지막으로 학교 장기 발전 방안 중 노인직업대학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다 학생의 수요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이전까지 졸업했던 학생들과 대학에 못간 여성들을 위한 제 2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그룹1 1번)이 있었다.

2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잖아요. 일부는 대학에 가서 지금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렇지만 대학을 못가고 그대로 묻혀버리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2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를, 시설을 해서 다시 운영 체계화를 해간다면 오히려 우리 전북도에서 보람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왔거든요. (그룹 1 1번)

사) 정책적 지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응답 중 하나는 앞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쿨버스 운영이었다. 아침과 오후 두 차례 정도 일정한 차비를 받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등하교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도에서 해주려면 스쿨버스 아침에 한 번, 수업 끝나고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한 번 해봅니다. (그룹1 14)

차비를 더 내더라고 스쿨버스를 운영했으면. 어차피 교통비 내니까. (그룹1 10)

내부집단에서 제안한 또 다른 지원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사를 두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 상담교사보다는 학교의 동문을 상담교사로 채용하면 그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그룹1 1)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한 만큼 가지고 있던 상처와 어려움을 같은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동문이 상담교사를 하면 학생들의 상담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는 각 반에 행정담임과 HR담임(자원봉사교사)이 배치되어 있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저희가 그때 학교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후배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학교 다니고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 교우관계에서 사실상 지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상담 교사를 한 명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문을 하나 채용을 해서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왜냐면 일반인하고 다른 게 여기는 배움의 길이 다른 부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동안에 교육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상담도 하고 했을 때 문을 여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면 문을 열수가 없을 뿐더러 상담의 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교사와의 상담은 서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그룹1 1)

마지막으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도 함께 졸업한 동문들이 자주 만나고, 매년 재학생들이 개최하는 바자회에도 참석하는 등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동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저희가 학교는 졸업 했지만, 1년에 문화 탐방도 가고요. 총 동문회도 꼭 가고요. 기수별로 1년에 한 번 두 번 꼭 이렇게 모여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래요. 졸업 후에 동문회 운영되고, 문화탐방, 1년에 한 두 번은 문화탐방도 시행을 하고 있고, 재학생과 동문들과 같이 유대감 형성도 하고. 동문회에서 임원들 힘내라고. 바자회 때도 밥도 사주고.(그룹1 3)

동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을 때. 이분들은 지금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동문회장을 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더 갖는 편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후배는 후배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예요. (그룹1 1)

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외부집단 FGI 분석결과

가) 학생 수 감소와 남녀공학에 대한 의견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외부집단의 의견은 현재의 학생 수 감소가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 감소가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현재 학생 수의 감소는 비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며 학생 수에 대한 일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의견(그룹2 5번)이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건가. 아까 단기 장기 중장기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보다 오히려 중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학교가 일단 한번 입학생 유지가 되면 우리가 6년제이기 때문에, 5년, 6년, 10년 정도는 가거든요, 모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30명인데, 20명까지 모집이 안됐을 때, 아니면 50프로 이하 이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유지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그룹2 5번)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내부집단과 마찬가지로 외부집단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시에 오히려 현재 교육의 대상인 여성들이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그룹2 6번) 아직 중등교육이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원래의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학교라는 취지를 살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그룹2 4번)이 있었다.

저는 주간은 반대예요.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하나도 지원 안할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인 남녀가 남녀공학에 같은 교실이 아니고 다른 교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려워요. 불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학생의 남편들이 반대할거고. (그룹2 6번)

일단 교육이 필요한 여성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보다는 여성학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원래 취지도 교육 차별을 받은 여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그룹2 4번)

나) 학교운영실태 및 개선 문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운영 중 외부집단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교과과정이었다. 여성학교에 대한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을 특성화한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그룹2 2번)과 일반적인 학생들의 교육과정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체험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듯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도 이론과 더불어 체험활동의 비중을 늘려 교육과정에 농업이나 6차 산업 같은 커리큘럼을 가미하는 등 변화를 주자는 의견(그룹2 1번)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 이론을 배우는 교과 과정이 아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업을 진행하여 효과를 거뒀지만 사실상 그런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그룹2 5번)도 있었다.

여성학교라는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정에 학교장 재량이 가능한 정도에서 여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면, 넣어진다면 여기는 여성을 특성화한 교육과정이 있다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면 이거는 남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기존 추세에서 그런 쪽으로 추가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룹2 2번)

이분들의 교육과정도 이론 플러스 이런 체험활동으로 더 가는 거죠. 아까 그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부도 좋지만 또 이렇게 와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적인 것들도 굉장히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커리큘럼을 농업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미해서 교육과정에 조금은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그룹2 1번)

여성교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평등에 관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수업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6교시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단점이 딱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자녀들을 엄청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뭘 했냐면 일주일에 한번씩 HR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남의 말 듣는 거. 손들고 발표하는 거, 내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 다수에 따르는 거, 소수에 따르는 거. 그거를 3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마저도 어떤 시간을 빼서 할건지가 참 어려웠죠. (그룹2 5번)

또 다른 학교운영의 문제점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에 관련된 문제였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전체적인 교육이나 행정은 일반학교와 똑같이 운영되는데 반해 교사의 신분과 근무환경 등은 매우 열악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학생의 불만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그룹2 1번)이 있었다. 또 자원봉사교사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희생이 많고, 교사의 정체성 확립이 되어있지 않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그룹2 4번)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교사에게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해주는 등 우수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그룹2 2)하기도 하였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외부집단의 공통된 의견은 그들의 근무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학교가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학생은. 그런데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 그렇게 모형이 되어있으면 교사도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사는 하나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럼 학교에 대한 불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측면은 열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교사적인 측면은. 교사들의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색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룹2 1번)

자원봉사 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이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렇다고 급여라던지 돈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요구하는 건 많고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져야 하고. (그룹2 4번)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의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최대 몇 년까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적어도 일 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이라던지. (그룹2 2번)

자원봉사교사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논의된 것은 행정직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2년 이상은 한 곳에 근무하지 않긴 하지만 짧게는 1년, 6개월만에도 발령이 난다는 현실(그룹2 5)에 대해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도 확실한 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관심들을 학생들이 결국에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제는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그룹2 4)이 있었으며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사라는 역할을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그룹2 2)도 있었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도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그룹2 1)은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직원들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은 공무원들이 한 곳에 못 계시잖아요, 순환보직이라. 그럼 1년 반 내지 2년. 그런데 제가 있을 때에는 2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있도록 했는데, 심한 경우는 6개월 만에도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오시되, 오시면 2월 정기 인사에만 가라, 7월에 가지 않겠다, 1년 이상 해 달라.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룹2 5)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잠깐 거기 거쳐 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도 인사 쪽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교육부분은 정말 확실한 철학이 있고. 우리도 학교에 있어보지만 학생들과 늘 상담도 하고,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나 진로에 대해서 같이 늘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 학생도 안다고 그거를 교사가 그렇게 하는지를.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쉬어가는 자리로 인식 하고 있다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교육 쪽으로 효과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룹2 4)

도 행정,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교사가 된다고 하면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하는데, 전문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일단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담임이 돼야 이게 지도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인 지도가 안 되고 각 개별로 업무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룹2 2)

행정직원들이 담임이 그렇게 있어야 되고 포진해있어야 되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처럼 해야 되면서 또 교사들도 아니고, 근데 또 그분들도 아마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통이 많을 거예요. 교사가 아닌데 우리는 교사의 역할, 나이스에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하니까. (그룹2 1)

자원봉사교사와 행정직원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사와 행정공무원 모두 연수나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하며 특히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령을 내기 전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할 것은 제안했다(그룹2 2).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도에서 발령받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숫자를 도와의 소통역할을 할 한두 명으로 줄이고 그 예산을 교사에 지원하여 더욱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는 것이었다(그룹2 4). 마지막으로 현재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핵심, 코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그룹2 2)이 개선안으로 나왔다.

담당교사들에게 있어서 연수기회나 교육의 기회를 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를 갖다가 해야 되고, 이거 하는 대신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교육 일정이 있고 연수를 받는데 그런 연수 기회도 없고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발령 낼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을 받던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연수원이 있잖아요. 연수원에 있는 교육과정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룹2 2)

공무원은 도와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직으로 한 명 정도 받는다면 근데 여섯명이 모두 담임을 맡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직원의 숫자가 줄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더 해주면서 교사들이 실제 담임도 맡아 제대로 역할을 하게하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좀 높여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룹2 4)

저는 여기 봤을 때 전체적으로 30명이 있는 것 중에서 공무원이 7명인데. 적어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은 있으면서 책임지고 공무원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핵심, 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도 나가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룹2 2)

다) 학생 감소 대응 및 학교 장기 발전 방안

외부 집단은 학교 장기발전방안 중 야간반 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간반 운영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간반을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에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간반 운영에 있어서는 주간반과는 차별성을 두어서 직업 교육 등 특성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그룹2 2)과 남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주간 남녀공학보다는 야간에 한 반 정도 남성을 위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그룹2 6)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어찌됐던 간에 주간반을 운영을 했을 때, 주간에 올수 있는 사람이고. 야간에 올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방안은 일단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야간반을 가져다 운영을 할 때 약간 특화를 시켜 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잖아요. 학력인정에다가 이제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는 진학이 전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부분을 찾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듀얼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낮에는 학력으로 가고, 인정은 둘 다 받지만, 야간은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룹2 2)

남녀공학을 주간에 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남성에게도 교육기회를 준다고 하면 야간에 한 반 정도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남성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룹2 6)

라) 정책적 지원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이 거론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만큼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고, 전라북도 전체를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주 내에서만이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찾을 것이라는 의견(그룹2 2)이 있었다.

셔틀버스 운영이 비용 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 평생교육기관은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오는 사람의 95%가 또 거기서 가까운 사람일거예요, 전주라고도 하지만. 만약에 전주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2 2)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네트워크 강화이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립 학교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그룹2 5). 그에 대해 외부집단들은 성인학습자라고 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그룹2 2,4)을 냈다.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책이 다 무료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을 돈을 내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학령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 교과서비 지원이나 사실 식비가 우리는 급식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떼면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도청소속이니까 도청이 책임져야한다. (그룹2 5)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교육청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가지고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룹2 2)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네요. 전라북도랑 전라북도교육청이랑.

(그룹2 4)

4. 소결

가. 재학생 대상 조사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령기에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기에 공부를 하지 못한 탓에 사람들과 대면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생하였다고 한다. 특히 자신감을 갖지 못한 재학생 중에는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50대 혹은 가족수입이 낮은 재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령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여성들은 그것으로부터 많은 상실감과 사회활동 기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존재 이유는 아직도 명확한 것 같다.

재학생 응답자 중 도립중고등학교를 인지하게 된 것은 주로 주변의 아는 사람, 언론 홍보, 도립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교건물 홍보물 등을 통해 가능하였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부하는 것이 좋거나 또는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학창시절 경험 등이 많은 재학생들이 지적하고 내용들이다. 더욱이 재학생 대부분은 자신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력 취득을 비롯하여 상급학교 진학, 학력 부족에 따른 손해 극복, 학창시절 경험, 사회관계 확대, 공부하는 것에 자체 등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중학교 재학생 중 80% 정도가 고등학교 진학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른 한편, 입학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재학생은 20% 미만으로 낮았으며, 그들 중에는 입학정보 획득이나 원서 작성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입학원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교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응답자는 약 5% 정도로 낮은 반면 대부분은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교사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성과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업 적응이나 수업을 가사 및 돌봄과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중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많았고, 70대 이상을 비롯한 가족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학교적응에 필요한 학습 등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졸업생이나 혹은 여성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내용 중에는 급식지원을 비롯하여 수업료, 통학 교통편이나 교통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현재 여성 전용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성인남녀가 함께 수업 받는 것이 불편하거나 여성중고등학교로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전통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남녀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일부 응답자 중에는 교육기관이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과 여성처럼 교육기회를 잃은 남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 교육 병행에 대해서 재학생 응답자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조금 많았고,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감소하거나 학교생활 추억이 반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감소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50대를 비롯하여 가족수입이 많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교생활 추억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응답자 중에는 70대 이상 및 가족수입이 적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재학생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안 중에는 학업기간 단축을 비롯하여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을 비롯하여 전주권 외 지역에 분교설치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밖에도 검정고시반 운영을 비롯한 야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도 50%를 넘었고, 교육기간 단축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2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는 중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50대 이하, 가족수입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이들은 특히 2년

동안 공부하는 것으로 졸업이 가능하거나 혹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3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거나 학창시절의 추억을 보다 많이 갖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 미진학생 대상 조사결과

미진학생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재학생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령기에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기에 학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 대면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노출될까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재학생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더욱이 자신감을 갖지 못한 미진학생 응답자 중에는 전주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가족수입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력 노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미진학생의 경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인지도가 낮았고, 알고 있는 응답자는 28% 수준에 불과하였다. 학교를 모르는 사람 중에는 70대 이상 응답자를 비롯하여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수입이 낮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이나 졸업생 및 재학생, 그리고 학교건물 및 간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재학생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진학생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는 일하고 있는 관계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50%는 교통 불편이나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40%는 중도포기할 우려를, 35%는 건강문제를, 그리고 34%는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통 불편을 지정한 미진학생 중에는 70대 이상 응답자가 많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60대 이하가 많았고, 건강문제는 가족수입이 낮은 응답자나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운영 요구도와 관련하여 미진학생들은 전주지역 외 분교설치를 비롯하여 농번기나 추수기 방학 실시 등 탄력적 운영,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설치 등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고,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5%로 재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50대 이하, 전주지역 외 거주자,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가족수입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남녀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다수는 남녀 모두에게 교육기회 제공이나 교육기회를 잃은 성인남성에게도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 다수는 성인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진학생 가운데 사이버 교육 병행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42%로 반대하는 22%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특히 찬성하는 사람의 경우 50대 이하를 비롯하여 전주권 외 거주자, 일하는 사람, 가족수입이 많은 미진학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사이버 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는 다수가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53%로 반대하는 응답자 2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교육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3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34%로 2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1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2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는 2년 동안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주지역 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비롯하여 가족수입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미진학생들은 재학생들에 비해 남녀공학 전환이나 사이버 교육 병행 등을 더욱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향후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 FGI 분석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정체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집단에 대해 학교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여성학교와 공립학교라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 취지, 배경, 역사 등을 거스르는 행위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여성학교이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녀공학을 제외한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야간운영이나 도민수요를 반영한 은퇴자 예비학교 등 학교운영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교육과정 단축(3년→2년)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3년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이 내실 있게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은 곧 학교의 장점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과 교육여건변화와 평생교육의 일반화, 대중화 등을 고려하면 전체 학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 위촉방식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며 공무원의 파견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교사의 변경은 학생의 관점에서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자원 창출과 확대방안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동문출신의 상담교사 배치, 교사임용 안정화 등이 거론되었다.

〈표 4-60〉 FGI 분석결과 요약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	전문가
1. 학교 의의와 평가	-학교생활경험이 가장 큰 만족 -자기 효능감 확대 -명문여고에 대한 자부심 -공통의 경험을 가진 동료(동창생)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높음	-가르침을 봉사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의 열망은 사회적 의의를 갖음	-공립학교로서의 지역사회 교육복지 실현 -교육소외계층인 여성에게 교육기회제공은 지역 교육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2. 운영현안에 대한 의견	-남녀공학은 가족반대가 크고 부담스러움 -1년 2학기제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 가능, 체계적 지식습득으로 대학교육 등 고등지식 수용력 확대 -교사운영 안정은 곧 학생들의 안정과 연결	-남녀공학은 모든 시스템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반대 -기초지식이 부족한 집단 특성상 1년 2학기제 타당 -성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담임역량 중요	-교육소외계층으로서의 시대적, 문화적 동질감이 크므로 여성만으로 운영 타당 -일가정양립 관점에서도 1년 2학기 타당 -순환보직인 공무원 담임제는 불합리
3. 장기발전방안	-야간반 1반 운영 적극 검토 필요 -특성화고 운영은 반대하지만 동아리활동 등을 강화하여 직업과의 연계는 필요	-학생고령화로 교과운영 유연성, 눈높이 수업 필요	-야간반 1반운영 적절 -특성화고 운영 중장기적으로 필요 -은퇴예비학교 등 도민수요에 부합하는 장기발전 필요
4. 정책지원	-셔틀버스 운영 -상담교사 배치	-교사임용 안정화	-교사임용 안정화 -순환보직공무원임기제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력강화

5

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

Jeonbuk Institute

-
1.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 교육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제 5장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

1.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향후 학생자원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가 증가시키기 위한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의 전라북도 미진학 성인여성의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여건 변화와 당면과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학교운영 전략과 특성,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3)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의 현안문제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학교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자원으로 예상되는 잠재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운영방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요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5)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발전방안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력인정교육시설 운영사례 분석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앞서서도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시설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근 학교 수 감소와 폐쇄절차에 들어간 학교 수의 증가, 학생 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전국의 학력인정교육시설은 2004년 총 43개교에서 2018년 현재 9개교가 폐교하고 10개교가 신설되어 총 44개교이며 전체 학생 수는 총 29,675명에서 24,202명으

로 약 5,47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2장 <표 2-14>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5년에 걸쳐 학생 수는 평균 18.4%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31.6%의 감소율을 보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타 학교에 비해 2배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체감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내 지역의 학력인정교육시설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학교의 운영전략이나 학교운영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력인정교육시설의 교육수요 대응과 관련하여 공통된 운영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학교운영의 다각화: 초·중·고 병설, 주야간, 특성화고

적정 학생 수 모집과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초·중·고 등 병설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각 단계로의 학습이행의 동기부여가 교사에 의해 강력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 동년배에 대한 친숙함, 학교 적응의 수월함, 편리함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보편적이지만 운영사례 분석 중 일성여자(초)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등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대다수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상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나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는 현재 총 50개 시설 가운데 27개교에 해당한다. 이들 특성화고는 미용, 자동차, 정보화, 금융, 보건, 경호, 골프, 조리, 예술, 상업, 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현장전문성 함양과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특성화고 운영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학력인정교육시설 수요가 성인보완교육에서 중도탈락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학교 가운데에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야간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학교운영을 다각화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생모집과 학생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2) 1년 3학기 2년제 단축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학력인정(졸업장)을 위해 단축형으로 운용, 1년 3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청소년은 1년 2학기 3년 과정, 성인은 1년 3학기 2년 과정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성인들의 학습동기가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취업과 승진 등 주로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상근교사의 역할과 활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상근교사와 시간강사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상근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상담과 학생관리가 함께 이루어져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유대가 깊고 상급학교 진학의 동기부여 등이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상근교사의 경우는 교사직이 곧 이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생 수 모집과 운영을 교사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등 학생 모집의 동인이 되고 있다.

4) 평생교육 보편화와 상급학교의 높은 진학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내의 학력인정시설의 경우는 75% 수준이었으며 부천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100%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급학교의 높은 진학률의 원인으로는 학력의 고도화와 더불어 배움의 나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평생교육 인식의 대중화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사립대학 학생 수 감소 등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학생자원을 적극 확대하려는 대학의 학생유치방안 등과 연계되어 상급학교의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학력인정교육기관은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 장학금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급학교의 진학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점은 학력인정기관의 학생모집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수 감소와 관련된 학교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관련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자 수의 감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개설 당시 중고등학교 각각 50명 모집정원에 총 146명이 지원하였으나 모집정원이 각 30명으로 감소한 2018년에는 입학지원자가 단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지원자 수의 현저한 감소는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등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모집정원을 약간 상회하는 입학지원자 수의 전체적인 감소는 안정적인 학교운영의 위협적인 요소인 점은 분명하다. 입학지원자 수의 감소가 홍보 전략의 실패인지, 학교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학생자원의 고령화 추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생의 평균연령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개설 당시부터 2004년까지 50대 미만이 평균 40%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70대 이상의 고령학습자가 느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50대 이하의 학습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014년 40대 이하 22명→2018년 4명). 학습자의 고령화 추세는 건강문제, 기초학습의 부진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중도탈락율의 상승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과운영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고령자, 성인학습자 특성이나 요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습자의 접근기회 제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의 80% 이상이 전주시권 학생으로 타 지역 학생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간반 운영, 1년 2학기제 운영 등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간반 운영, 1년 3학기제 단축운영, 성인학습자와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타 학력인정기관에 비해 학습자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다.

4) 교사임용 및 처우의 불안정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1년 단위 위촉계약직으로 기간제·시간제 교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신분불안과 열악한 처우는 학교에 대한 몰입도와 기여도를 떨어뜨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도 상근교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상근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 모집과 관리가 곧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생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지도와 모집에 역할과 비중을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학생 모집이나 학생지도 등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임용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행정공무원이 담임을 맡고 있고 학생상담과 지도는 위촉계약직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교사의 이원화도 학교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내외적인 비판과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5) 행재정지원의 안전성과 투명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공립학교라는 점은 학교운영과 지속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며 타 학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현재 전국의 50개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한 비법인학교(2011년 기

준 47개가 비법인)에 해당하며 기관설립자의 회계 부정이나 학교부실 운영 등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들 학교가 행·재정 지원 미흡으로 시설운영 부실과 더불어 법인화 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행·재정 지원은 학교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학력인정학교에 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교육수요도 및 욕구 실태조사 분석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관련하여 향후 학생자원을 창출하는 전략과 방안으로는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잠재수요자에 해당하는 미진학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수요도와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입학 및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였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잠재수요자로는 현재 초등 및 중등 학력인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중단 및 미진학 사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수요도,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대상 실태조사 분석결과

■ 교육중단 사유

재학생의 교육중단 사유는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사유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금의 여성학습자들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수혜자로 볼 수 있었다.

■ 학교인지 및 입학경로, 입학사유

재학생들의 학교인지 및 경로는 주변사람을 통해서라는 의견(28.9%)과 TV 광고 및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홍보에 있어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신입생모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이 학력수준이 낮은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속성을 감안하면 TV광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학사유로는 공부자체가 좋아서(41.5%), 학창시절 경험하고 싶어서(20.7%) 등의 비중이 크고 해당 학력취득이 필요해서(7.9%), 상급학교진학 준비 때문에(7.3%) 등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력인정교육시설이 학생들의 입학사유가 해당 학력인정이나 취업 등의 목적 때문에 1년 3학기의 단축수업이나 특성화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점과는 구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상급학교 진학의사(교육수요도)

도립여성중학교 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의사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71명 중 80.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 진학의사를 갖고 있었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의 진학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와 일·학업 병행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학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학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교사, 졸업생,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될수록 학습동기나 진학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 개선사항으로 남녀공학에 대한 의견은 반대의견이 65.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대사유로는 성인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1.7%), 여성학교라는 전통유지를 위해서라는 의견(30.6%)과 배움에서 소외된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20.4%)이라는 순서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반면 사이버교육 병행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2.8%로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6가지 의견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육기간 단축(3년→2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과 전주 지역 외에 2~3개의 분교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야간반 운영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야간반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중학생은 과반이 넘는 57.7%가 1년 3학기제를 찬성하는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는 1년 2학기제 대해 5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학력인정 교육시설이 대부분 중학과정을 2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학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의 1년 2학기제(3년)를 찬성하는 사유로는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과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잠재수요자(미진학생) 대상 실태조사 분석결과

■ 교육중단 사유

미진학생의 과거 교육중단이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유로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사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95.3%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다는 경험이 가장 많았다.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지도 및 교육수요도

조사대상자의 66.8%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지역별로는 전주이외의 지역에서, 일자리 활동

여부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집단에서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인지경로로는 주변의 아는 사람(40.0%)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통해서(18.3%)라는 응답비율이 TV광고나 프로그램(8.3%), 홍보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간판 등을 통해서(6.7%)라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전에 의한 학교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의사에 대해서는 진학할 의사가 있다 24.7%, 진학할 의사가 없다 72.6%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의사 및 교육 수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력자보다는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초·중·고 병설학교일수록 같은 학교로의 상급학교 진학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력자의 진학수요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진입을 위한 타깃 집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일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을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건강이나 접근성 등이 진학 장애요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주권 외 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의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과 학업병행을 위한 야간반 운영, 접근성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영 등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학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 진학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교통 불편 및 학교가 멀어서>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 긴 교육과정(3년제)> 중도포기에 대한 두려움> 공부하는 동안의 건강상태 염려> 수업료·교통비의 부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과 일자리여부, 월평균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학교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 개선사항으로 남녀공학에 대한 의견은 반대의견이 27.8%이고 찬성의견은 45.4%로 재학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남녀공학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전주권 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집단과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의 남녀공학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사유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교육기관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47.8%)와 교육기회를 잃은 남성에게도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3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재학생과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재학생은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그 이유로는 성인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41.7%), 여성학교라는 전통유지를 위해서라는 의견(30.6%)과 배움에서 소외된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20.4%)이라는 순서로 반대의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학생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학교설립 취지나 목적을 적극 수용하여 입학동기로 작용했고 또한 여성이라는 동질감과 소속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진학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남녀공학으로 전환시 입학의사에 29.5%만이 입학의사를 보였으며 남녀공학 전환여부와 상관없다는 의견도 23.8%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은 50대 집단에서, 전주권 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남녀공학 전환 시에도 입학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사이버교육 병행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1.7%로 재학생의 응답률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6가지 의견에 대해 전주지역 외에 분교설치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농번기나 추수기에 방학 실시 등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의견과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추가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생과 미진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도에서 매우 상이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진학생의 경우는 학교접근성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단축과 같은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진학생의 응답결과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접근성의 문제가 실질적

인 학교진학 수요로 연결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1년 2학기제에 대한 찬성응답이 33.6%로 1년 3학기제 단축에 대한 응답율(1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년 2학기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학생들의 응답결과와 유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라는 응답과 젊은 시절 갖지 못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수요자의 학교 선호도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GI 분석결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현안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과제 등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앞서 재학생과 잠재수요자에 대한 미진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수요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질적 접근을 통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정체성,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근거로 향후 교육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소외계층인 여성학교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강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업중단과 입학동기는 다양하지만 과거 가난과 가부장적 문화 아래서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과 오빠, 남동생에 의해 희생되거나 교육기회에서의 배제와 차별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졌다. 늦깎이 만학도로서의 이들의 교육목적은 취업을 위한 졸업장이나 자격증과는 다소 거리가 먼 배움에 대한 ‘한’과 ‘학창시절의 경험’을 갖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었으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만난 교우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목적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에 기초한 집단

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남녀공학의 검토에 대해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남녀공학을 부정하는 이유로는 남녀문제의 발생이나 학교운영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어려움, 학교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많았다. 특히 학교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교사 및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교육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교육소외계층인 여성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기관제공과 교육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남녀공학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개인설립자에 의한 비법인화 체제하에서의 교육에 대한 재정 및 시설투자가 열악하고 운영부실이나 열악함 때문에 폐쇄절차에 들어가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공학의 검토나 전환은 교육소외계층인 여성에게는 이들의 학습기회가 더욱 제약되거나 위축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면서 더 많은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는 운영체제

학생 수 감소는 비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만의 당면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학력인정교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수준의 고도화와 보편화로 인한 학생자원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의 교육여건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다각화와 기능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에 모든 초점집단면접 대상자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야간반 운영에 대해서는 일가정양립 차원에서 야간학습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학기제의 단축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취업 등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1년 3학기제 운영에 대해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모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은 1년 2학기제 운영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으며 체계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시 지식수용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언급하였다, 이는 다른 학력인정교육시설의 학업수요자들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상

급학교 진학이라는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1년 3학기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나 심층인터뷰 등에서 학교의 입학동기가 학교생활체험 등의 사유가 많은 편이고 학습자들도 만학도가 많고 고령화되어서 취업이나 상급학교진학에 대한 수요가 적은 탓에 1년 2학기제의 선호가 높다. 그러나 학습자의 고령화 등은 교육운영과정을 일반학교에 준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 ‘야간반’ 운영이나 ‘특성화고’추진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3) 교사처우 및 연수기회 제공, 교육운영 유연성 등 교육의 질 제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사운영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의 처우와 신분보장이라는 점에 초점집단면접자들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1년 단위로 위촉하는 지금의 불안한 신분보장으로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없으며 담임제도도 개선할 사항으로 보았다. 특히 각 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행정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도중에 담임이 바뀔 경우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의 저하가 학생들의 사기와 학교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파견되는 행정공무원은 근무기간이나 전문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가 없는 점도 시급히 개선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고 고령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성인들의 특성이나 요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교육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이상 주요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향후 교육수요를 예측, 전망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을 통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수요 전망 및 대응전략

1) 교육수요 예측 및 전망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생 수의 감소는 학력수준의 고도화와 보편화로 인한 학생자원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학생자원에 해당하는 수요자의 고령화 등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교육환경 및 여건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교 수 및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계속 줄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 를 예측할 수 있다면 향후 학교운영 방안에 대한 판단 및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 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전국과 전북의 20세 이상 고졸미만의 성인인구 및 여성인구를 2030년까지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970년까지 전국 인구 32,240,827명중 고졸미만의 학력자는 총 38.4%이고 이 가운데 남성은 32.9% 여성은 44.0%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기회에서의 성 차별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고졸미만 학력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30년까지의 학력비를 예측하면 남성은 8.6%(총 2,287,860명) 여성은 17.0%(총 4,484,094명)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전북의 경우는 1970년까지의 전북인구 2,490,827명 중 고졸미만의 학력자는 총 39.5%로 이 가운데 남성은 34.4% 여성 44.7%로 남녀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아 저학력교육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국과 마찬가지로 고졸미만의 학력자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30년까지의 학력비를 예측하면 남성은 13.0%(총 117,055명) 여성 25.1%(총 227,807명)으로 예측되고 이 중 여성 고졸미만 학력자 수

는 2015년 이후 매 5년마다 1만 5천명~1만 8천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예측결과는 전국 평균보다 고졸미만의 학력자 비율은 전북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이 두 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잠재 수요자에 해당하는 20세 이상 초졸 이상 고졸미만의 학력자 비율은 1970년 총 507,064명에서 2030년 261,116명으로 까지 두 배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감소추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보면, 1970년 전체 507,664명에서 2015년 322,404명으로 184,660명(36.3%) 감소할 동안 20세 이상 여성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39,816명에서 187,211명으로 불과 52,605명(21.9%)만 감소하여 남성(49.4%)에 비해 여성의 감소가 매우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상의 결과는 과거에도 교육소외계층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았었지만 여전히 교육기회 측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인정교육시설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감소는 남성에 비해 더딘 측면이 있고 향후 교육수요 측면에서는 여성의 잠재수요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잠재수요자로 볼 수 있는 20세 이상 초졸이상 고졸미만의 학력자를 2030년까지 예측해 볼 때 총 155,097명의 46.3%에 해당하는 71,932명이 전주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적으로 학생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숫자가 전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통계적 기초자료를 고려해 볼 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자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녀공학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과 관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통계적인 예측은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장래인구추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잠재수요자 풀은 통계 숫자 그 이상일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남녀공학을 검토하기 이전에 잠재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 실태조사와 타 지역 학력인정교육시설 운영사례, FGI 분석결과에서는 남녀공학은 현 단계에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남녀공학 학력인정교육시설의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 수준에 불과하

다. 이는 남성의 경우는 직업과 학업의 병행으로 야간학교에서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미만의 졸업자인 모집단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실제 수요에서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수요가 많다. 또한 고등학교의 수요에서는 일반학교가 아닌 직업과의 연계가 높은 특성화고일 때 실제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체제(야간 없음, 특성화고 운영 아님)에서 남녀공학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립배경과 취지가 교육소외 계층인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전북지역은 고졸미만의 저학력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여성교육수요자는 폭 넓게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그 수요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지자체 차원의 교육정책과 여성복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학력인정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이 성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도 여성학교라는 동질적 집단과 속성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여성학습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운영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학생 수 감소 대응전략

앞 장의 교육수요 예측 및 전망을 통해 2030년까지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 풀은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학습수요자의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매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지원생 수의 감소와 현재 재학생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잠재적 학생수요자층 확대 전략

잠재적 학생수요자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

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타 학력인정교육기관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 측면에서 학교유인의 동기가 떨어지는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2년제 운영에 대한 교육수요도가 높은 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변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긴 교육과정은 학교선택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과 교육소의 계층의 범주 확대, 학생자원을 전주권역 이외로 확대하는 등의 학습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안정적 학생자원 확보와 창출 전략

같은 학력인정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수요자는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안정적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재학생, 졸업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요구도나 개선사항, 기대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학생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과 개선점 반영한 운영체제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수요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및 홍보 전략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학생자원을 창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발달과 성숙을 기대하는 공동체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및 지지를 위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의 홍보 전략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그 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방안

1) 운영 기본방향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수요 대응 및 학생자원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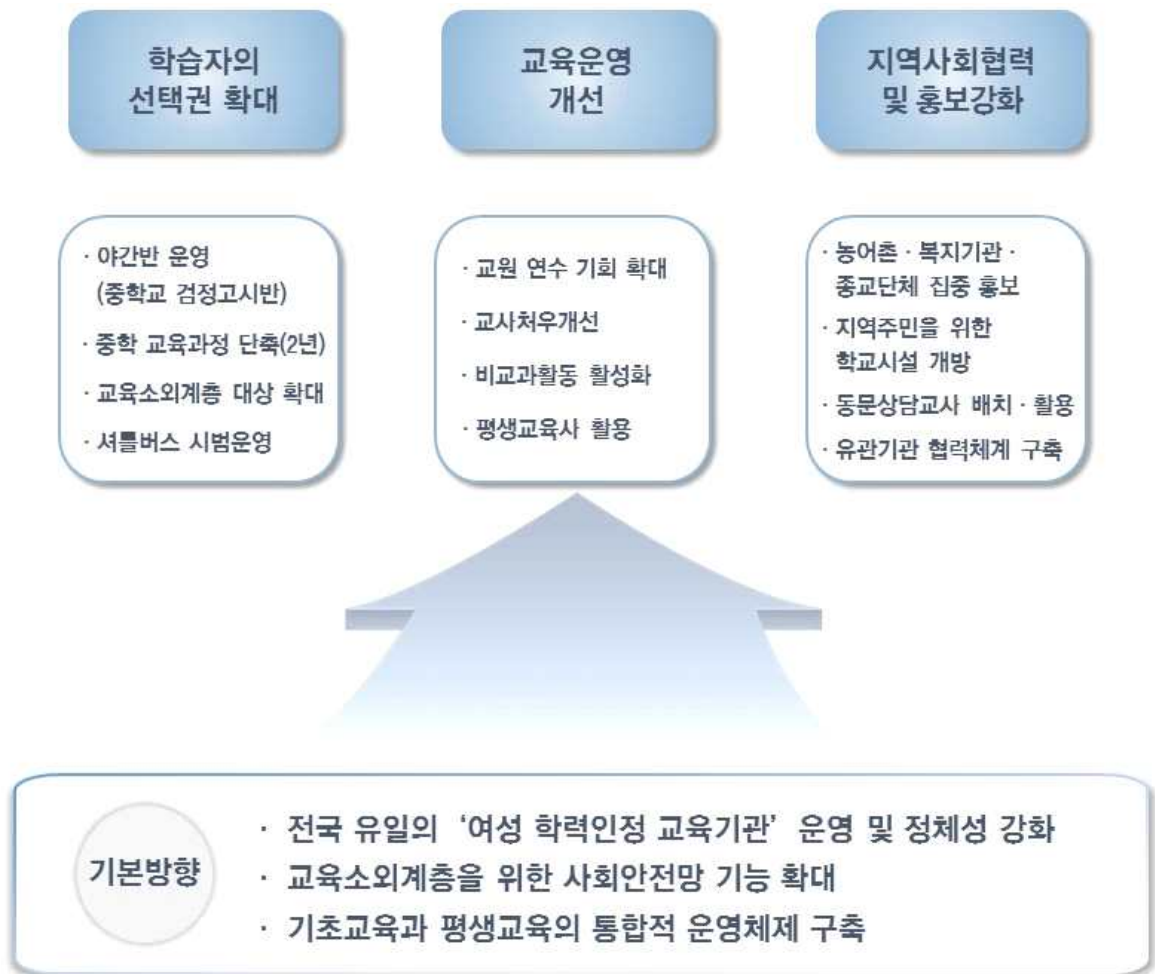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국 유일의 ‘여성학력인정교육기관’임을 특화하여 현재와 같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학력인정교육기관이 법인화의 어려움과 행·재정의 불투명과 부실로 학교폐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역의 교육소외계층에게는 교육기회 상실과 위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행·재정의 투명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소외계층인 여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학교’이고 성인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여성학교’라는 두 가지 특징이야 말로 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학생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학생자원을 예측·전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학생자원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갖지 못하므로 지금과 같은 여성학력인정교육기관을 유지하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여 전국 유일의 ‘여성학력인정교육기관’을 유지,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력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적인 우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배경과 목적은 일제침략과 전쟁, 가난으로 인해 학교 교육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로 인해 취학하지 못한 여성들, 일탈행동으로 학업이 늦어지거나 수학능력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태준, 1999).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력인정교육시설의 학습자들이 대부분 사회·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임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규학교와 비해 시설에 대한 행·재정을 우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초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인대상의 학력인정교육기관의 대부분이 1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1년 3학기제는 다음 단계의 제도권 교육 진입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교육수혜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경제적 비용절감이나 효과성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1년 3학기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졸업장을 파는 학교로 전락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립여중고는 현재 1년 2학기제를 통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학사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학교운영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초교육과 일반학교 운영에 충실하여 성인학습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학습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학력인정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적응능력이나 직업교육과 연계된 학력인정교육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욕구가 있으므로 기초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교과운영이 필요하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은 높은 학습열의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 저하 및 부진 등이 뒤따르고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학교생활과 학교공부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유연한 학습과정을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 방지나 학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자원을 수요로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교육수요 대응 및 학생자원 창출을 위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기본 방향을 토대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1〉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 기본방향,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전략 및 과제

1) 잠재적 학생수요자 유치를 위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학습자의 평균연령대 증가로 인한 고령화, 학력의 고도화와 보편화 등으로 학생수요자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한다. 주야간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단축 등과 같은 학교운영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학력인정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학력인정교육기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학교운영의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야간반 운영(중학교 검정고시반)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야간반이나 특성화고 운영, 1년 3학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야간반 운영에 대해서는 재학생은 65.6%가 미진학자는 43.3%가 찬성하였으며 FGI 분석결과와 타 학교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야간반 운영 필요성으로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수요층, 일·가정양립이 필요한 여성수요자층, 학력인정교육 중도탈락자 가운데 재진학을 희망하는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학력인정교육시설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야간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남성학습자, 직장여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중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의 야간반은 수요자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단기과정의 ‘중학교 검정고시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중·고등 병설로 되어 있는 같은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고등학교 실수요자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중학 교육과정 단축(1년 3학기 2년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 모두 1년 3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1년 3학기제는 기간단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을 앞당기고 교육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학력인정과 그에 따르는 비용 및 효과성의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도 현재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기간 단축운영(3년→2년)에 대한 욕구가 재학생은 72.2% 미진학생 46.1%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의 보편화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체 학령기(중3 고3 대학4년)의 단축은 교육수요자에게 학교 입학동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욕구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반

영하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단축은 불가피해보인다. 다만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과정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의무교육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같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년 단축은 불가피해보인다. 다만 고등학교는 현재의 3년제 운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는 기초지식이 부족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교육 내실화와 학업역량을 강화해야만 대학교육 수용성과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교육과정 2년 단축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입학유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어필되어 더 많은 잠재수요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소외계층 확대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소외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가난과 성차별에 의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여성뿐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로 인하여 생활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들의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점,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과 교육, 취업에 필요한 일정자격 등의 이유로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복지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소외계층은 더 넓은 범주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교육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을 폭넓게 정의하고 이들을 발굴하여 학력인정이나 그에 준하는 문해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 셔틀버스 시범운영

2014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80% 이상이 전주시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시를 제외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익산시와 완주군의 학생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학생의 지리적 접근성 제약으로 전북권역 학생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학생의 33.1%만이 자가용으로 통학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이 버스(51.2%), 도보(12.7%), 자전거 외(3.0%)로 통학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정책적 요구사항으로는 통학 교통편 및 교통비지원도 18.8%나 되고 있다.

한편 전북 14개 지역 인구대비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비율은 군단위에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적극 고려되어야한다. 여성, 고령자가 교통약자이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입학생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추진하도록 한다. 셔틀버스 시범운영은 채용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교통약자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2) 안정적인 학생자원 확보와 창출을 위한 교육운영 개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안정적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요구와 기대도 주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곧 학생자원을 확보하고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타 학력인정교육기관의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FGI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교육운영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은 정규학교와 동일한 교원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는 달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윤여각, 2006; 이희수, 2006; 이정표, 2014).

성인학습자는 정규학교나 일반학교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초학습 능력은 부족하나 사회생활 경험과 직업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경우, 성인교육 및 지도를 위한 역량개발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성인들의 특성이나 요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원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정보교류 기회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교재개발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교과협의회, 지도방법에 대한 자체연수, 학습자료 제작활용 등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교사처우개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1년 단위 위촉계약직으로 기간제·시간제 교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신분불안과 열악한 처우는 학교에 대한 몰입도와 기여도를 떨어뜨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도 상근교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가 고학력 여성일자리 창출로 인식되어 교체시기가 짧아진 것도 교사의 안정적 신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위상과 역할, 처우 등은 학력인정교육기관의 학생모집이나 학생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대부분이 상근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학생 모집과 관리가 곧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생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모집에 교사의 기여도가 큰 편이다.

교원인건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정규학교와 같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최소한 교사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최소 3년~5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행정공무원이 답임을 맡고 있고 학생상담과 지도는 위촉계약직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이원화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비교과활동 활성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현재 비교과활동은 6개 분야로 ① 자치 및 자율활동, ② 적응활동, ③ 계발 및 동아리 활동, ④ 봉사활동, ⑤ 행사활동, ⑥ 진로활동으로 편

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비교과활동에서 부족한 영역으로는 학습 보충적인 활동과 직업교육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들은 높은 학습 열의를 가지고는 있으나 학습능력이 저하되거나 부진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특히 학업을 처음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애로사항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시행하고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학교적응에 목표를 두고 체험학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학습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는 ‘기초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적 운영’을 반영할 수 있는 추진과제로 볼 수 있다.

■ 평생교육사 활용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교육기관은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직이수가 아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육소외계층으로 다양한 연령에 따른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원과 달리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평생교육사(또는 평생교육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이희수, 2005).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유한 교직원이 1명 충원되어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개발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교과협의회, 지도방법에 대한 자체연수, 학습자료 제작활용 등을 추진 시 평생교육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학교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양성된 평생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 발전과 학생의 안정적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요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강화

■ 농어촌 · 복지기관 · 종교단체 집중 홍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잠재수요자에 해당하는 미진학자들의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는 33.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잠재적 수요자 발굴을 위해서는 교육소외 계층이 폭 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어촌과 여성들이 많이 모여드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복지기관에서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교육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수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홍보는 전단지나 인쇄매체보다는 풍물패, 합창, 난타, 민요 등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와 홍보활동을 겸하도록 한다.

■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학교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동민의 날 행사, 추석이나 설 명절 지역상품을 홍보·전시하는 행사 등 공적인 행사시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낭송회와 다문화 문화강좌 등을 월 1회 4,5,6월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체제 중에는 지역사회 협력이나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학교시설 개방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홍보와 잠재 학생수요자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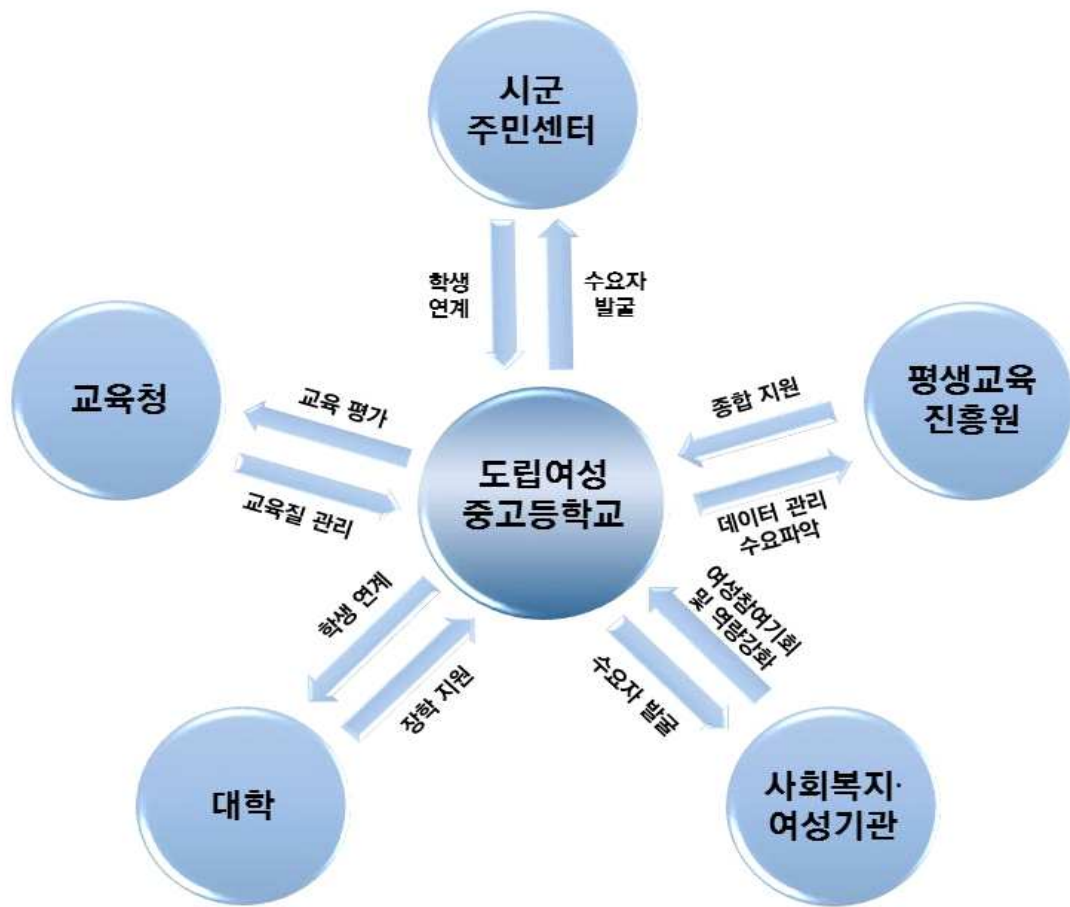
■ 동문 상담교사 배치 및 활용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 가운데 취약한 부분으로 상담기능을 들 수 있다. 기초지식이 부족한 성인학습자들이 일반교육과정을 따라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적응과 발달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소외계층으로서 살아온 과거경험이 새로운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서

적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같은 눈높이에서 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다. FGI 조사결과에서는 이들이 가족의 지지 특히 남편의 지지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 외에도 다양한 채널의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하다. 재학생과 졸업생 FGI 조사결과에서는 동문출신의 상담교사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동문출신의 상담교사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자를 발굴하고 학생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생활 적응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돕고 중도탈락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보살핌, 구전홍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문출신의 상담교사를 배치·활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력인정교육시설의 학습자들이 대부분 사회·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임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학교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공유하고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유관기관으로는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사회 및 여성복지 기관, 각 대학, 교육청 등의 기관이 해당한다. 학력인정학교는 정책과 연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도내의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도입·운영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및 수요파악 등의 실태조사 등 종합지원을 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각 대학에 교육소외계층으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특례나 장학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과의 MOU를 맺고 대학에 학생연계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잠재적 수요자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주민센터와 사회 및 여성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학생수요자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Houle. C. O.,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권미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인식 및 참여실태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한별, 「평생교육론」, 학지사, 2010.
- 박태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백종주, 「저학력 비문해 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윤여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공민학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 이병숙·강성례·김혜옥,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경험: 초점집단 연구방법 적용」, 한국간호학회지 37(1), 2007.
- 이임하,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2(1), 2003.
- 이정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 전북연구원, 「2005 전북여성백서」, 2005.
- 정혜령, 「학생수 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학생자원 창출방안 연구」, 원격교육연구소, 2016.
- 지희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 최행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성인학습자의 학습체험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각년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각년도.

정책연구 2018-15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수요 분석 및 발전방안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36-3 9337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